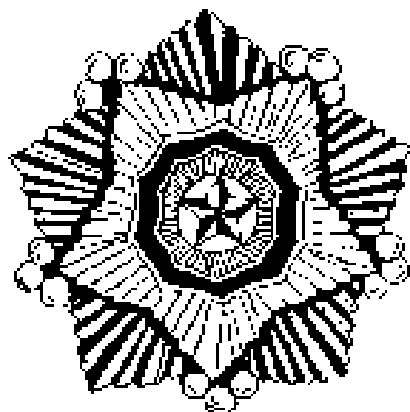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12

주체 88 (199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88(1999)년 제12호

(루계 제 626 호)

차 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작품의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지침	4
12 월의 함박눈	6
승리와 영광의 언덕에서	7
사랑의 결정체	9
인민의 어머니	10
건국의 기적소리	15
수령영생에 바쳐진 신기한 자연현상에 대한 전설적형상.....	16
명언해설	17
《조선문학》 지상축전총화가 있었다.....	18
귀국실현 40 뛸을 맞으며	19
놀랄 일이다	20
자애로운 품-나의 조국	21
쫓각난 상투수법	22
귀향.....	23
조국은 말했네	32
소나무무늬 상감자기	33

그 마음 고마워	39
영원히 나는 그 품에	40
부모와 자식	40
노래가 준 걸음	41
끝나지 않은 병사시절	43
나는 이 나날에 자랐다(외 1 편).....	49
소중한 한해	49
문은 열려져있다	50
고향과 영웅	51
그 품에서 나는 행복해	52
백년을 부를 노래	53
칭찬속에 비낀 야유	63
영원한 복무	64
우리의 하늘과 땅	72
지식인들의 두뇌건강요법.....	73
인구가 많은 10 개 나라	73
제땅.....	74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작품의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지침

리창유

올해 12월 6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신지 25돛이 되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명작창작의 넓은 길로 힘차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업적과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창작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작가들의 창작성을 적극 발양시켜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잘 살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합니다. 개성을 살리지 않고 모두 똑같은것을 쓰자고 하면 100개의 작품을 쓰는데 100명의 작가가 필요했을것입니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창작적 지혜와 재능으로 빛어진 하나의 창작품이며 탐구와 사색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체사실주의문학은 작가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작품창작에서 하나의 틀에 맞추어 쉽게 글을 쓰려는 도식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근절할것을 필수적요구로 내세우고있다. 따라서 창작지도 일군들은 작품의 주체사상적대가 확고히 섰는가, 그 내용이 당정책적선에서 제시될것이 없는가, 생활이 진실하게 그려져있는가, 전형화의 요구에 모순되지 않는가 등과 같은 내용상 측면에 모를 박고 정당한 의견을 주어야 한다.

작가의 개성적특성은 작품의 언어형상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사건과 이야기를 퍼나가는 구성조직의 진면모에서 잘 드러나기마련이다.

그런데 작품을 한틀에 맞춰서 쓰라고 하면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생활을 원만히 반영할수 없을것은 물론이고 예술적흥미가 결여된 도식주의적 작품만 씌여지게 된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0편의 작품을 쓰는데 100명의 작가가 필요없게 되고 결국은 한형타에 찍어낸 작품만 나오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작에서 바로 이러한 도식주의적경향을 없앨데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집체성과 개인의 책임성,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켜 사상예술성이 높고 작가의 개성적특성을 잘 살린 우수한 작품을 쓸데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창작에서 작가의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결코 작품창작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과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결코 작가의 그 어떤 개인적취미를 고취하자는것이 아니며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자는것도 아니다.

우리의 모든 창작사업은 어디까지나 당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우리의 작가들은 누구나 당의 방침과 요구에 맞는 작품을 써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창작에서 개인의 그릇된 주관을 막고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야 하며 집체성과 개인의 높은 책임성,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작품창작에서는 어디까지나 형상수법이나 어휘 같은것은 작가가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무리 잘 된 작품이라 해도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지 말고 인간관계와 사건, 이야기 줄거리 등과 같은 구성조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탐구와 사색을 깊이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리저리한 부족점들을 시급히 없앨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서정시창작에서는 고정격식화와 산문화를 없애며 가사창작에서는 모방을 근절하고 사상이 충분히 전달되게끔 하면서도 시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현실주체의 적지 않은 작품들이 읽을 맛이 적고 단조로운것은 작품구성상 결함파도 관련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정선을 거의 설정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의 현실은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 작가들은 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당과 혁명위업에 충실한 로동자, 농민을 전면내세우고 그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그리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부정을 전혀 무시한다면 투쟁과 생활을 미화본식하고 진실

하게 그려보일수 없게 한다.

현실주제의 작품에 부정선을 설정하는것은 부정을 허용하고 조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남아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반대하고 극복하기 위한것이다.

원래 혁명투쟁이란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 선진적인것과 반동적인것간의 투쟁과정이며 이 투쟁에서 새것이 승리하고 선진적인것이 승리하는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때문에 이러한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에 맞게 현실의 인간들과 사건들을 진실하게 그려보이려면 부정선을 설정하여 긍정적인것이 이를 타승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펴나가야 한다.

전형을 그린다고 하면서 부정선을 설정하는것을 주저하는것은 결국 우리 작가들이 무난하게 작품을 쓰자는 안일한 창작태도이다.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인 우리 작가들은 험하게 작품을 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계급투쟁, 혁명투쟁속에 뛰어들어 혁명하며 투쟁하는 현실세계를 옹기 그려내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아동문학을 급속히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정서에 맞는 사상교양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아동문학작품창작을 절대로 험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동문학일수록 어린이들의 세계를 파고드는데 모를 바고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찾아내기 위한 깊은 탐구와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우리 작가들이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체험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꾸준히 할데 대하여 명확히 가르치시었다.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이다. 작가가 생활에서 뒤떨어지면 벌써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뛰어들어가야 하며 여러가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은 인간학인것만큼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수업을 하여야 인간학이 나오지 허공에 떠가지고서는 인간학적요구에 상응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쓸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현실과 떨어져 휴양소 같은데만 찾아다닐것이 아니라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며 벅찬 투쟁을 체험하면서 주체시대의 거창한 현실을 잘 형상해야 좋은 작품을 써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이 밖에도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혀줄데 대한 문제, 문화성(당시 문화예술부)과 작가동맹

이 작가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창작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 등 문학사업 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작가들은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져야 당의 정책적요구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수 있으며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맞는 혁명적인 작품을 쓸수 있다.

작가들의 정치적안목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는데 있다. 또한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회정치생활에 널리 참가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듯 로작에서 우리의 주체사실주의문학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명작들로 활짝 피어나도록 그 급속한 발전의 넓은 길을 환히 열어주시었으며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강화하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혀 주체의 인간학적요구에 맞는 특색있고 예술적기교가 높은 문학작품을 더 빨리, 더 많이 쓸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독창적으로 제시해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12월 6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명실공히 우리의 문학을 세계최고봉의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으로 이끌어올릴 방향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당 사상사업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창작적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갈수 있게 하여준 주체사실주의문학건설의 독창적인 백과전서적대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작품창작의 진로를 새롭게 밝혀주신 때로부터 지난 25년동안 우리의 문학은 급속한 발전의 한길을 걸어왔다.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무수한 문학작품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었다.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신병하),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김만영), 장시 《인민의 어머니》(정은옥, 김은숙), 《만발하라 강성대국의 새봄맞이 꽃이여》(박정애),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 기행련시조 《백리춘천로반우에서》, 시조 《영웅찬가》, 《강원땅의 새 노래》, 동시조 《장군님과 아이들》, 서정시 《철령》(황성하) 등을 비롯하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과 2월 16일을 계기로 창작된 서정시들은 이를 잘 말하여주고 있다.

어찌 시문학뿐이라. 소설, 아동, 극 문학부문에서도 성과작들이 련이어 나왔다. 그것은 시, 소설,

아동, 극-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백두산 3대 장군의 특출한 위인상을 형상한 작품들이 왕성하게 찍여졌을뿐아니라 그 형상수준이 높아진데서 그 성과를 찾아볼수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백두산 3대장군의 내면심리세계를 상대인물의 시점에서뿐아니라 위인 자신의 시점 혹은 작가의 시점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려내는것과 같은 형상화의 새 경지를 개척한것이다. 주체의 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짓는 혁명설화 수집정리사업에서도 전진이 일어났다.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는 우리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한 결과로 좋은 결실을 맺고있다.

배낭을 메고 들끓는 현실로 들어가 한편의 서정시창작을 위해 천리 강원땅을 여러차례나 다녀온 녀성시인들, 강제정신이 나래치는 자강땅을 집체적으로 다녀온 소설, 아동문학작가들, 웅근한해를 현지체험지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생활하면서 창작적구상을 무르익힌 소설, 아동문학작가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밟으신 전선시찰의 길을 따라 두번씩이나 철령을 오르내린 가정의 주부-한 녀성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현지체험의 길에서 꼭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울것 같아 울렁거리는 가슴속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고, 그래서 힘든줄 모르고 도보로 철령을 오르내렸노라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릴 작품창작을 위해 애쓰는 우리 작가들의 충성의 열도는 참으로 뜨겁다.

올해의 창작성과는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5년전에 발표하신 로작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당한가를 실증해준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철석같은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90년대 인간들의 새로운 높은 정신세계를 작품에 더 잘 반영하는것은 영광스러운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고 새로운 21세기의 문어구에 들어서서 우리 작가들의 당면한 임무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찰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진군길우에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현실속에 들어가 더 특색있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가 민감하게 반영되고 장군님의 감정정서에 맞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한결같은 희망이고 목표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정성옥선수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려야 할것이다.

12월의 함박눈

-정성옥영웅의 이야기-

리진묵

함박눈 내리는 이 아침
뵈고싶어 뵈고싶어
또다시
주작봉마루에 오르니

김정숙어머님의 어깨우에
포연이 스치던 머리우에
쌓이고쌓이는 눈은
이 마음 아프게 합니다

썩빌라의 찌는듯한 무더위도
뜨거운줄 모르고 달렸던 이 딸이온데
한평생 찬눈을 맞으시며
어머님 헤쳐오신 그 길이 어려와
이 가슴 이리도 뜨거운것 아닙니까

폭양을 이고 달린 그 길이 숨차다 해도
어이 비기겠습니까
우박치는 총탄을 뚫고
싸우는 산정의 전우들 찾아

끓는 죽가마 이고 달리시던 그 길에

마라손경기가 아무리 힘겹다 해도
그 어이 비기겠습니까
걸음걸음 성새가 되어 방패가 되어
사령부를 보위하며
어머님 바쳐오신 그 충성의 길에

아 항일대전의 그 나날
눈보라 만리 피바다 만리
어머님 헤쳐오신 그 길에 비하면
이 딸이 달려온 길
너무나도 작아만 보입니다

그래서 12월의 함박눈은
이리도 뜨거운것입니다
내 한생 이 눈을
어머님 보내시는 축복의 꽃보라로 맞으며
승리의 주로만을 달리고달리렵니다

승리와 영광의 언덕에서

한해가 저물어간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온 나라 인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준마를 타고 세월을 주름잡으며 구보로 질풍같이 내달려온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주체88년.

어느덧 저물어가는 한해를 깊은 추억속에 돌이켜보는 우리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만수대언덕으로 향해진다.

위대한 수령님 거연히 서시여 내 나라, 내 조국의 광명한 미래, 밝은 앞날을 가리키고계시는 만수대언덕.

만수대 언덕으로 끝없이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깊어진다.

저 사람들은 또 어떤 승리의 보고를 안고 여기로 달려왔는가.

올해도 우리는 빛나는 승리와 격동적인 사변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으로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을 수놓아왔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쳐물리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그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입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앞으로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할것입니다. 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탁월하기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있습니다.》

찬바람 사납게 몰아치던 정초부터 흰눈 내리는 오늘까지 명절날, 일요일 가림없이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속에 마련된 우리의 승리.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아래 자기들이 이룩한 승리의 보고가 간직되어있거늘.

그 흐름속에는 체육인들의 모습도 보인다.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세기의 창공높이 휘날린

민족의 강한 아들딸들.

빛나는 금메달들을 번쩍이며 한결음한결음 충계를 오르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고 스승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어려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조국이 없고 이끌어줄 령도가 없어 잃어버린 민족의 존엄을 체육으로 떨쳐보려는 청운의 뜻을 품고 헤매이던 우리 체육인들.

그러나 나라없는 식민지민족의 아들딸이었던 그들에게 차례진것은 무엇이었던가. 민족의 피가 뛰는 가슴으로 경기장에 나섰건만 승리하고도 자기의 기발대신 계양대에 오르는 저주로운 종주국의 기발을바라보며 피눈물을 씹어삼켜야만 했던 그들이였고 종당에는 품었던 뜻마저 잃고 이역의 거리를 방황하여야 했고 민족의 넋, 민족체육정신을 주장한 죄아닌 《죄》로 차디찬 감방에까지 끌려가야 했던 그들이였다.

그러던 우리 체육인들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시여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자기 민족의 영예를 떨치도록 해주신 아버지수령님.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국호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가는 우리 체육인들을 만나시여 제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해방전에는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무대에 나가서도 제 나라 기발이 없어 남의 나라 기발을 울려야 하였다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다고, 세계무대에 나가서 조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오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

언제나 체육을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고 민족의 정신과 기개를 떨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친부모도 줄수 없는 다심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때로는 이른새벽에 선수들의 숙소를 찾으시여 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돌보아주시고 때로는 국제경기에 나가는 우리 선수들을 만나시여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고무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우리 선수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그들을 《개신장군》이라 불러주시며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

진도 찍어주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시던 우리 수령님.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우리 체육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체육인으로 자라났고 우리의 체육은 세계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되었다.

하기에 우리 체육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수령님을 못잊어 그리워하며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면 제일먼저 여기 만수대언덕을 찾아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곤하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세계의 최정상에 내세워주오게신다.

세계에는 체육을 중시하고 내세우는 정치가, 령도자들이 많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그토록 체육을 사랑하시고 국가중대사를 밀고나가시는 그런 령도자, 그런 위인은 아직 세상에 없다.

체육전문가들도 미처 따르지 못할 체육과학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높은 안목을 지니시고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제시하여주시고 때로는 몸소 지도원이 되시여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우리 식의 훈련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체육인들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다시며 세계적인 체육훈련기지들과 경기장들을 마련해주시고 국제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위해 사랑의 비행기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처럼 우리 선수들을 한사람한사람 품에 안아 키워주시고 국제무대에 내세워주시고도 그들이 승리하였을 때에는 제일로 기뻐하시며 지금같은 평화시기에는 국제경기에 나가 공화국기발을 날리는 선수가 영웅이라 하시며 영웅으로,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올해 8월 29일 에스빠냐의 세빌라에서는 온 세계를 들끓게 하는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조선의 정성옥선수가 1등 쟁취!

세계의 마라손강자들을 뒤에 떨구고 질풍같이 내달려 단연 1등의 시상대에 올라 **김일성**민족의 기개와 조국의 영예를 떨친 자랑스러운 조선의 딸, 민족의 딸-우리 시대의 영웅 정성옥선수.

이 소식은 만난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구보로 달려나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우리 조국의 명성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한 때처럼 크게 떨치였다.

정성옥선수를 세계녀자마라손의 패권자로, 세계 《마라손녀왕》으로 키워준 품, 그 품은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이었다. 서해기슭의 평범한 로동자의 딸로 태어난 그의 재능을 아껴주시고 체육학원과 체육선수단에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체제적으로 키워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하기에 정성옥선수는 세계녀자마라손의 최정상에 오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달렸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내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고 당당히 대답하였던것이다.

세계의 선두에서 불사신처럼 내달린 그의 가슴속에 가득차있은것은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였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성옥선수의 장거를 두고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커다란 민족적대경사라고 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성옥선수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금시계와 고급승용차, 고급살림집을 선물로 안겨주시였으며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연도환영도 조직해주시여 영광과 행복의 최정상에 높이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은 우리 체육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자애로운 사랑의 품, 어버이품이다.

어찌 체육인들뿐이라.

온 나라 모든 인민들이 그 품속에서 영웅으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고있다.

온 나라 인민모두가 승리자로 땀땀이 가슴펴고 오르는 여기 만수대언덕.

우리 인민은 여기 승리와 영광의 언덕에서 더욱더 휘황찬란할 내 나라,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에 넘쳐 바라보고있다.

본사기자



사랑의 결정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주체87(1998)년 5월 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해 광량만기슭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정제소금공장을 찾으시였다.

드넓은 염전이 한복판에 휴양각마냥 정결하고 아담하게 일떠선 건물들, 티 한점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구내길...

어데를 보나 주방처럼 알뜰한 공장의 전경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을 위해 건설한 소금공장인데 한바퀴 다 돌아보자고 하시면서 준비공정으로부터 생산공정, 포장공정, 제품보관공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에 들리시여 건설정형과 소금생산정형을 자세히 료해하시였다.

증발공정을 거쳐 소금포장직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판을 타고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눈송이처럼 새하얀 가루소금앞에 한동안 서계시였다. 여러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 불순물들이 말끔히 제거되고 건장에 좋은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보충된 백설같이 희고 보드라운 정제소금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것이 정제소금이요. 우리 병사들에게 먹일 정제소금이란 말이요!》**라고 하시며 아직도 따스한 감이 있는 소금을 한줌 쥐시여 만져도 보시고 맛까지 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환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맛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병사들에게 질 좋은 소금을 마음껏 먹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 정제소금을 식탁에 놔주면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크나큰 기쁨에 넘치시여 차곡차곡 쌓여지는 소금마대를 쓰다듬으시고 또 쓰다듬으시며 밝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한시름이 놓이시는데 손이 허리에 얹히고 정제소금더미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소금을 먹이려던 나의 소원이 드디어 풀린 날입니다.》

홍분된 심정을 안으시고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된 정제소금공장은 우리 군인들을 위해 복무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제소금이면 전군에 충분히 공급할수 있다는 일군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인들이 이런 질 좋은 정제소금을 쌓아두고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야 한시름이 놓이는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쉬임없이 쏟아져내리는 소금폭포를 유정하신 눈길로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만면에는 희디흰 소금을 받아안고 기쁨에 설레일 병사들의 즐거운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봄날같이 환한 미소가 가득히 어리시였다. 그러시며 장군님께서서는 깨끗한 정제소금이 그대로 병사들의 식탁에 가닿게 해야 한다니며 운반대책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를 동행하던 일군들의 가슴은 세찬 걱정으로 들먹이였다.

몇해전 어느 한 최전연부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이 먹는 간장맛까지 보시고 그들에게 제일 맛있는 간장을 풍족히 공급하도록 해야될수 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 그러시고도 병사들에게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그이께서는 조국을 지켜 싸우는 귀중한 병사들에게 소금도 제일 좋은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방도를 의논하기도 하시고 소금에 대한 자료들을 몸소 연구하기도 하시며 끊임없는 사색의 낮과 밤을 보내시였다. 오늘 이렇게 정제소금공장이 새로 일떠서 군인들에게 넉넉히 공급할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현대적인 정제소금공장건설을 받기하시고 그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정녕 정제소금은 우리 군인들을 제일로 아끼고 위하시며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인민의 어머니

-이 시를 빨찌산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에 드리노라-

정은옥, 김은숙

꽃이 피면
송이송이 꽃속에 그림고
눈이 오면
송이송이 눈속에 못잇는 어머니

눈부신 9월의 해빛속에
더더욱 그리워
못견디게 그리워
우리 삼가 꽃을 안고
여기 주작봉마루에 오르나니

한층계 또 한층계
오르고오를수록
어머니생각 더해쳐
승엄해지는 마음들

머리흰 로인들도
붉은 넥타이 아이들도
금별이 빛나는 병사들도
어깨나란히 오르는 그리움의 산마루

뜨거운 마음과 함께
소리없이 놓이는 꽃송이
그리움에 젖는 꽃송이
우리 삼가 놓으려니
선뜻 놓을수 없구나

놓을수 없어
쉬이 놓을수 없어
꽃을 안고 어머니모습 우러르니
오늘도 붉은 기폭앞에
수수한 저고리를 입고계시는
우리 어머니

흰머리칼 한오리 없지 않은
푸르청청한
그 젊으신 나이
우리와 같은 서른두살에 가신 어머니

그처럼 높은 뜻을 펼치셨어도
수수한 저고리를 입고계시는 그 모습
어머니는 한생
너무도 소박한 생활을 하시였구나

물노니 세월이여
누구보다 고생 많아
누구보다 오래오래 사셔야 할
우리 어머니
어이하여 그리도 일찍 가셨던가

눈길들어 바라보니
희령은 구름너머 저 멀리
6살 애어린 시절에
짚신 한켠레 보짐에 넣으시고
차디찬 두만강을 건느신 어머니

어려와라
설움 많던 타향길을
해방의 봄길로 이어놓으시려
14살 우리 어머니
혁명의 총잡고
빨찌산녀장군의 첫자옥 새기신
백두의 산발들이

말해다오 세월이여
눈보라 울부짖던 천만산악우에
뜨겁게 새겨진
어머니의 천신만고의 그 자옥자옥
그 어느 혈전의 바위아래
그 어느 숲속엔들
그 자옥 찍히지 않았으랴

그 어느 얼음장아래
그 어느 작식터엔들
그 손길 가닿지 않았으랴
높고 험한 산이란 산은
다 밟으시고
차디찬 눈이란 눈은
다 맞으시며
백두의 만고풍상을 헤쳐오신
우리 어머니

그 만고의 풍상엔
잇지 못할 사연이 많아도
이 주작봉마루에서
내 마음에 엮어보는
빨찌산시절의 목도리

잊을수 없어라
잊을수 없어라
도천리 지하공작임무를 주시던 그날
어머니께 하신 수령님 말씀

- 정숙동무
위험한 적후로 보내는 동무에게
내 줄것이 없구만
이제는 락엽지고 찬바람도 부는데
이 털실로 목도리라도 떠서 쓰오

아 피어린 백두산에서
천만고생 다하는 어머니에게
이 세상 억만금도 주고싶으신
수령님이시였건만

너무도 간고하고
너무도 어려웠던 그 시절
수령님 안겨주신
소박한 밤빛털실 한토리

그 털실로
달밝은 밀영의 밤에
어머니 뜨고뜨시던 목도리
지하공작의 나날
사령부의 불빛이 그리울 때면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 흘리던 그 목도리

우리 어머니
그 목도리
공작지에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셨던가

박달나무도 얼어 터지는
백두의 모진 추위속에서도
한겹 군복을 입으시고
눈보라 만리길 걸으시는 수령님

그 모습 마음속에 아프게 밝혀와
도천리로 떠나시던 그밤처럼
밀영의 우등불아래서
풀고루시여 한뼘두뼘 떠올리신
사령관동지의 겨울내의

그런데 몇해가 지나
그 겨울내의 다시 풀릴줄
우리 어이 알았으랴

백두의 하늘가에 쌍무지개 어리고
소백수기슭엔 버들개지 피어나던

2월의 그날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그 내의
어머니 다시 풀어뜨신
크지 않은 뜨개포단

몇번이나 다시 풀고
몇번이나 다시 뜯은 그 목도리에
다 어려있구나
이 나라 빨찌산 3대장군의
고난의 력사가

그 고생을 얼마나 못잊으셨으면
우리 수령님
금수산집무실 창가에서
주작봉마루의 어머니모습을
자주 눈물겨워 바라보셨으랴

바라보시면
권총을 비껴들고
원췌의 총탄을 막아서던
친위전사의 모습이
다시금 가슴에 뜨거우셨으랴

바라보시면
젖은 행진 품에 안고
눈보라속을 헤쳐가던 녀전사
추위에 온몸이 얼어드시던 그 모습이
다시금 아프게 어려왔으랴

천이 걸고 만이 걸어도
다 대신할수 없었던
어머니의 그 자옥자옥은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어머니의 불멸의 한생이었거니

그 자옥을 따라서
수령님 받드는 천만의 대오가 왔고
오늘은 그 자옥 이어서
장군님 따르는
일심의 대오가 굽이쳐가나니

세월이어
이 하늘 이 땅에 새겨진
어머니의 그날의 자옥자옥을 쓰다듬는
9월의 해빛은
어머니의 미소에 실려와
이리도 밝고 따뜻한것 아니더냐

우리르면
정깊은 눈길
붉은 별 군모아래
백화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빨찌산의 어머니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다는 몰랐구나
천품인줄로만 생각했던
그 해빛같은 웃음속에
얼마나 크나큰 육체적 고통을 감추고 사셨는지

그날엔
세월도 몰랐던 아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야 우리 알아
세상에 알리노니

해방된 그 이듬해
해방산언덕에
민주의 새 노래 울리는데
점심무렵 댁에 들어오신 수령님
조용히 울리는 발걸음소리에
박을 내다보셨어라

그런데 어인 일인가
장에 갔다오시는듯
나물바구니를 드신 어머니
조심조심 발끝으로
아픔을 참아가며
애써 걷는 그 모습이여

- 정숙동무
왜 그렇게 걷소?
발을 편안히 땅에 짚지 못하고...

우렁우렁한 음성에
걸음을 멈추신 어머니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나직이 드리는 말씀

...별일 없습니다 장군님

어머니는 태연하셨으나
이마에 내뿜는 땀방울 땀방울
손에 드신 봄냉이나물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수령님
그이는 모든것을 다 알아보시었다

피어린 백두의 전장을
앞장에서 달려온 너전사
그 장설속에

발뒤축이 얼고 터지며 땅을 짚을수 없어
발끝으로밖에 걸을수 없었던것을...

이제는 해방된 땅
백두산에서 언 상처 다 녹이고
백두산에서 쌓인 로고 다 풀고
고생끝에 오는 락 한껏 누리며
이 땅 이 대지를 보란듯이 활보하시면
아니된단 말인가

하다면 우리 수령님 마음
그렇게는 아프지 않으셨으리

아, 수령님 눈가에
소리없이 맺히는 뜨거운 이슬
흐려지는 눈앞에 어려오는
못잊을 추억의 산발들이여!

세월이여
건국의 그 기슭에서 너는 보았으리
우리 어머니 그 몸으로
보통강개수공사장과
풍년모 내는 봄들판에서
이 나라 첫 대학의 건설장에서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또 보았으리
땅크병들
비행사들속에서
포병들의 사격훈련장에서
첫 군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장병들과 함께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렇게 사시며 그렇게 고생하시며
빨찌산의 숙소나 같았던
해방산의 작은 집에서
젖은 손 언제 한번 마를새 없었던
우리 어머니

수령님의 생활비를
쪼개여 차려주신
콩나물잔치상은 그 얼마
손끝에 명이 들도록
밤새워 지어주신
만경대원아들의 옷은 또 그 얼마

오 그런 밤이면
그렇게 밤을 새울 때면
너무도 저린 무릎
그 아픔을 참으시느라

온밤 주무르시며
조용히 두드리시던 그 다듬이질소리
오늘도 우리 가슴에 울려오누나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사서 하신 우리의 어머니시여

그래선가
쉽게 놓을수 없구나
선뜻 놓을수 없구나
위대한 어머니의 서른두해 생애앞에
너무도 가벼이 었을수 없는 꽃이여
어머니 불멸의 생애앞에
너무도 소박한 우리의 꽃이여

가슴뜨거워라
영생의 산상에 서신 오늘도
너무도 수수한 치마저고리차림새
이룩하신 업적은 하늘에 닿았으나
생활은 그렇듯 소박하신 어머니

어느해 가을날
수령님과 어머니
경치좋은 금강산을 보시고
좋은 날, 좋은 철에 어서 오시라고
강원도인민들이 보내온
금강산풍경병풍

그 병풍을 찼던
수수한 보자기천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어머니의 처음이자 마지막웃이 된줄
어이 알았으랴

나라가 아무리 갓 해방을 맞았어도
어떻게 보자기천을 물들여 가지고
웃을 해입겠는가
너투사들 눈물겨워 말씀울렸건만

이렇게 하면
내가 해입을 천이 한감 절약되며
인민들에게 웃감 한감이
더 차례지게 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머지 않아 인민들이 잘살 때에
우리도 비단옷을 해입자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나니

어머니는
수령님 인민을

한집안식솔로 안으시고
어머니란 그 이름을
인민을 키우는 사랑으로 빛내주시었어라

진정 바람세찬 타향에서 부모를 다 잃고
피눈물속에 헤여진
언니와 조카에게 주고싶으신 그 사랑까지 합쳐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에게
천으로 만으로 더 기울여주신 어머니

해방의 그해가 저물어가던
눈내리는 그밤
이름없는 산야에 선혈을 뿌리고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그 모습을 그리며
수령님은 풍금을 타시고
어머니는 눈물에 젖어 부르시던 그 노래소리
세월이여
너는 그 어느 갈피에 간직했느냐

해방된 조국의 첫 선거장
인민주권을 받드는
뜻깊은 그날에
제일먼저 투표하셔야 할
어머니이시였던만

찬바람에 건강을 넘려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백두산에서 단련되어 일없다고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한시간반을 기다리시다
투표를 하시었거니

인민을 위한 길에선
단 한번의 특혜도 받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는
정녕 이런 평민생활을 하시었구나

아, 그래서
가시는 한생의 마지막밤마저
병상을 돌보려 온 의사를
인민이 기다린다시며
병원으로 되돌려보내시고
모진 아픔을 이겨가셨던가

말해다오 세월이여
피눈물의 소나기가
하늘땅을 적시며
가슴을 찢던 50년전
그 9월 22일을

왜놈세상에서

어혈든 병을 고치고
인민들이 무병장수를 누리라고
적십자병원자리도 잡아주시고
건설장에서 흙집도 지시더니
자신의 아픔은 인민이 알세라
왜 그리도 깊이 물어두시였던가

빼앗긴 조국을 찾으려
백두산에서 천만고생을 하시고
수령님 뜻을 받들어
건국의 초행길을 걸으시며
첩첩중하를 이겨내시느라
너무도 컸던 그 로고
그 로고로
서른두살이 그만 한생으로 된 어머니의 생이여

그래서
이 좋은 세월에
100돐 장수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어머니생각이 간절해진다는
장군님의 말씀
세월이 갈수록 더해지는
우리의 그리움속에 더더욱 뜨거워라

인생의 춘하추동을
사시절에 비기면
어머니의 짧으신 한생은
봄꽃시절
너무도 애짧으신 한생

하건만
그 짧디짧은 서른두해에
어머니는
천만생을 합쳐도 다하지 못할 그 모든 일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셨으니

어머니의 서른두해의 년세는
이 나라 가장 높은
백두의 절정우에
별처럼 새겨진 서른두해
위대한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인민의 하늘가에 빛내준 서른두해

세월이여
어머니를 잃고 흘러간 50년이여
사신 날보다
돌아가신 날이 더 길어
이제는 어머니 만나뵈온 사람들보다

웁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도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거니

우리 마음속엔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어머니와 떨어져 산 날은 없었어라
흐르는 해와 달속에 더 가까와지는
인민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니시여

어머니는 오늘도 함께 계신다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안고
백전백승의 지략을 펼치는
혁명의 최고사령부에
우리 장군님과 더불어
붉은기 날리는 당중앙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

어머니는 계신다
천리방선의 병사들속에
자강땅의 로동계급속에
감자꽃 피우는 대흥단치녀들속에
밝게 웃는 아이들속에
아 수천만 인민들속에
어머니는 계신다

오 경의를 드리노라
위대한 그 업적앞에
천송이만송이 꽃을 드린들
우리 마음 다 담으랴만
우리 수령님을 길이 받드는 길에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언제나 어머니를 모시고 따를
뜨거운 마음을 담아
삼가 우리의 붉은 꽃송이를 드리노라

오늘도 래일도
어머니를 노래하며
영원히 어머니의 딸로 살
나의 한생
우리의 한생을 놓아드리는데
아, 심장의 붉고붉은 꽃송이여

인민의 꽃바다우에
청청한 서른두살의 생애
백두산의 그 년세로
인민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김정숙어머니는 계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체88. 9. 15)

건국의 기적소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해방직후인 주체34(1945)년 12월 어느날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날 아침 일군들에게 오늘은 청진제철소(오늘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나가서 공장형편도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복구위원회 동무들을 만나 공장 복구문제도 의논해보자고 하시며 떠날 차비를 하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제철소까지는 길이 멀기때문에 자동차를 준비하겠다고 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눈덮인 산밭을 달리던 우리들이 벌써 자동차를 찾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그러시는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마음은 막 안타까왔다.

김정숙동지께서 청진지구에서 활동하시는 나날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공장과 농촌, 어촌과 학교, 가두인민반들에 나가시면서도 언제 한번 차를 타신 일이 없으시였던것이다. 그이의 성품을 잘 아는 일군들은 어쩔수 없어 그냥 따라나섰다.

근 20리길을 걸어 제철소에 이르니 공장일군들이 달려나와 인사를 올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연기 한점 피어오르지 않는 공장구내를 가슴아프신듯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아직 공장이 돌아가게 하지 못한 자책감에 사로잡힌 복구위원회 일군들의 사업보고를 받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소결로직장과 용광로직장을 돌아보시고 제관직장쪽으로 가시다가 한대의 기관차굴뚝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는것을 보시고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공장의 모든것이 숨죽은듯 고요한데 《칙-칙-》하고 하얀 연기를 뿜어대는 기관차가 신비스러운듯 녀사께서는 그리로 다가가시였다. 기관차에는 스무살안팎의 두 청년이 성수가 나서 열성스레 일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이 몹시 사랑스럽고 대견하신듯 따뜻이 인사를 나누시고 기관차를 움직일수 있는가고 상당히 물으시였다.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청년이 이제 증기압만 좀더 올리면 움직일수 있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동무들이 기관차를 운전해본 일이 있는가고 물으시자 그 청년은 직접 운전해보지는 못했지만 운전하는것을 보기도 했고 왜놈때 몰래 기계들을 움직여본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겪은 피눈물나는 지난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해방전에 지금 손질하고있는 기관차에서 조사로 일하였지만 일본놈기관사는 그에게 운전 기술을 배워주기는 고사하고 기계장치들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다. 그 청년은 일본놈밑에서 이처럼 천대와 수모를 당하던 일을 생각하면 분통을 참을수가 없어 자기 손으로 보란듯이 기관차를 몰아볼 결심을 품고 얼마전부터 자기 동무와 함께 기관차를 정비한후 오늘아침에 불을 지켰다는것이였다.

청년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이런 동무들이 바로 새조선의 주인들이라고, 이런 동무들이 있는한 제철소복구는 문제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녀사께서는 어디 기관차를 한번 보자고 하시며 로동자를 앞세우고 몹소 기관차에 오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알른알른한 기계들과 계기들을 살펴보시며 한번 기적소리를 올려보라고 이리시였다.

그는 기쁨에 넘쳐 기적변손잡이를 지그시 잡아당기였다. 《붕-붕-》 바람소리만이 울부짖던 제철소구내에 기적소리가 요란히 울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이젠 기관차를 몰아보라고 하시였다. 청년은 더욱 사기충천하여 시동변을 힘있게 돌려 기관차를 몰아갔다. 제철소구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달려오며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였다.

감격으로 들끓는 군중을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수 기적변을 잡으시고 기적소리를 다시금 높이 올리시였다. 우렁찬 기적소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저 멀리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이윽고 기관차에서 내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두 청년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하시고는 일군들에게 오늘 울린 기적소리는 제철소복구가 시작되었다는것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이날에 높이 올려주신 기적소리,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새 조국 건설로선을 받들고 힘찬 진군이 시작되었다는것을 알리는 건국의 기적소리였으며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된 우리 로동계급의 힘으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안겨주는 승리의 기적소리였다.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새 조선 청년들의 가슴속에 충성의 불씨, 혁신과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신 그 력사의 기적소리는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

수령영생에 바쳐진 신기한 자연현상에 대한 전설적형상

로월호

예로부터 성인이 별세하면 산천초목도 목놓아 운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지자 삼시에 삼천리강토는 눈물의 바다로 변하고 인민들은 초치간에 비통한 마음을 풀길없어 하늘을 우러러 비애를 터뜨렸고 땅을 치며 목놓아 통곡하였다.

민심이 천심이라 우리 인류사에 한번도 있어보지 못한 큰 슬픔과 상실의 아픔으로 인민들이 목놓아 통곡하는데 천지만물도 슬픔에 잠긴듯 유사 이래 처음으로 보는 특이하고 기상천외한 자연현상을 수없이 나타내었다.

옛 신화나 전설속에서나 들어오던 신기하고 기이한 자연의 현상이 실지 사람들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진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은 하늘이 내신분이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의 신념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추모한 나날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심어준 나날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강성대국건설에 일떠설수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때문이었다.

수령중심론의 최고체현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은 생존시와 다름없이 인류의 태양으로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영생하고계시는 것이다.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화폭을 펼쳐나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추모설화문학도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추모설화문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아버지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기원의 숭고한 념원에 대한 문제이다.

설화 《하늘에 피어난 김정일화》는 이러한 사상적내용을 담은 대표작의 하나이다.

《아버이수령님 동상을 배경으로 하늘가에 두필의 붉은 비단필을 펼쳐놓은듯 두층으로 된 노을이 피어나있었다.

그 붉은 노을은 삼시간에 온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붉은 기폭처럼 펼쳐진 붉은 노을 한가운데가 유난스레 빛을 뿜는가싶더니 어느새 불멸의 꽃 김정일화모양의 신비한 구름이 생겨났다.

붉은 꽃잎과 푸른 잎새가 실물인듯 그대로 완연하였다....

붉은 노을을 바탕으로 하늘가에 생겨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서 사방으로 금빛빛발이 찬란히 퍼져나가는것이였다....

이것이 설화에 그려진 붉은 노을속에 피어난 김정일화에 대한 형상이다. 여기에는 수령님께서는 비록 우리곁을 떠나셨으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조국의 앞길은 창창하다는 인민들의 굳은 신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수령영생위업실현에 바쳐진 설화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은 곧 아버지수령님이시라는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철의 신념을 반영한 내용의 작품들이다.

우리 인민들은 아버지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보았으며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장군님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뿌리박혀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는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예지 그대로이고 그 령도력은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혁명의 난국을 타개해나가시는 수령님의 령도 그대로이며 그 풍모는 《이민위천》의 리념으로 숭고한 인덕정치를 베푸시던 수령님의 인민적 풍모 그대로라는것을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잃은 이후시기 더욱더 철석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인민들의 이 신념은 설화 《100일 추도식장에 비낀 쌍무지개》, 《신비한 쌍무지개》, 《쌍무지개가 합쳐지다》 등에 가슴뜨겁게 반영되어있다.

제목에서 보자싶이 이 무지개와 관련한 설화에서는 어찌하여 보기 드문 쌍무지개가 하늘가에 비끼였으며 쌍무지개가 합쳐지게 되였는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주고있다.

설화들에서는 한결같이 하늘가에 피어난 희귀한 쌍무지개현상을 펼쳐보이는데 쌍무지개가 합쳐지는것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은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수령영생위업실현에 바쳐진 설화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끝까지 완성되고야말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내용의 작품들이다.

수령영생은 수령이 이룩한 모든 업적이 그대로 계승될 때에만 이룩될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모든 일을 수령님식으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덜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100프로 계승할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기 위하여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걸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었기에 우리 인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비보앞에서 천백번 용기를 가다듬고 주체혁명위업의 성스러운 한길에 억척같이 일떠설 수 있었다.

설화 《하늘가에 새겨진 <백두산천지>》는 인민들의 이 신념과 의지를 잘 반영하고있다.

《시커먼 먹장구름이 덮인 하늘에서 갑자기 <푸릉, 푸르릉> 하고 천둥소리가 터지었다.

이어 극장의 무대막이 걷히듯 검은 구름이 랑쪽으로 쭉 갈라지면서 푸른 하늘이 펼쳐지었다. 그 푸른 하늘에 백두산천지와 신통히도 똑같은 흰구름과 쇠물이 끓는것처럼 시뻘겋게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올랐다.

붉게 타는 태양의 빛을 받은 백두산천지모양의 구름은 점점 불그스레 물들더니 점차 흩어져 바람에 펄럭이는 붉은 기폭으로 변하였다.》

이것이 신기한 현상이 펼쳐진 대목이다.

여기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상징한것이며 백두산천지모양의 구름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상징한것이다.

인민들은 이렇게 소박한 환상의 수법으로 백두

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현하였다.

설화 《흰룡마 하늘을 날다》에서도 환상적형식에 의거하여 구름모양으로 이루어진 하늘을 날으는 룡마의 기상을 보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강성대국은 반드시 건설될것이며 수령님께서 건설하신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앞날은 창창하게 빛날것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인민들의 신념의 목소리는 영생탑에서 벌어진 자연현상을 보여준 설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상처가 큰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주시었기에 인민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실 충성의 맹세를 다하지 않았던가.

나라의 도처에 세워진 영생탑앞에서 벌어진 신비한 현상을 목격한 인민들의 이 신념의 웨침을 반영한것이 설화 《태양은 빛나다》, 《영생탑을 못떠나는 황새》 등이다.

보다싶이 추모설화문학에서는 소박한 인민적환상을 적절하게 리용하여 아버지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추모설화문학에 반영된 이러한 사상적내용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멸의 진리를 작품창작에 더 잘 구현하기 위하여 창작적 탐구와 사색을 깊이하여야 한다.

명언해설

《군대를 쥐지 못한 당은 위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군대도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힘있는 전투부대로 될수 없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당과 군대는 혼연일체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계급적원수들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생사의 판가름을 동반한다. 혁명과 반혁명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자면 군대를 틀어쥐어야 한다. 당은 군대를 틀어쥐어야 전당, 전민, 전군을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짓부시고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한편 혁명군대는 혁명적당의 령도밑에서만 나라와 민족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를 이룰 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된다.

《조선문학》 지상축전총화가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지난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작가강습을 계기로 《조선문학》 지상축전총화가 진행되었다.

편집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9월 친히 보아주시며 높이 평가해주신 창간호 7호를 해마다 뜻깊게 기념하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하기 위하여 주체79(1990)년부터 《조선문학》 지상축전을 진행하여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문학》 지상축전이 심화되고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문학》 지상축전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지상축전에 당선된 작품들에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메달도안까지 보아주시고 선정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건설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굳게 믿어주시고 우리 작가들과 우리가 써낸 작품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시며 더 좋은 글을 쓸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더 큰 창작성으로 보답하며 《조선문학》 지상축전에 높은 열정을 안고 더 많은 명작들을 가지고 활발히 참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훌륭히 제작완성된 메달과 상장이 당선된 작품들에 수여되었다.

당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주체80(1991)년 7호

○ 평론: 《우리 시대 녀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

김해월(작가동맹중앙위원회 평론가)

○ 시: 《승리》

차영도(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 위원장)

△ 주체81(1992)년 7호

○ 단편소설: 《상봉》

남대현(4.15문학창작단 소설가)

○ 평론: 《누리에 울려 퍼지는 최고사령관찬가》

장용남(최희숙합동제1교원대학 부학장)

○ 시: 《맑은 샘》

리동후(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회 작가)

△ 주체82(1993)년 7호

○ 단편소설: 《등산》

김성관(작가동맹중앙위원회 소설가)

○ 평론: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에 대하여》

김성우(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 시: 《새파란 풀밭》

량덕모(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시인)

△ 주체83(1994)년 7호

○ 단편소설: 《흰 운동화》

김리돈(작가동맹 남포시위원회 소설가)

○ 평론: 《남산의 소나무와 더불어 푸르른 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

리수림(작가동맹 남포시위원회 평론가)

○ 단편: 《특색있는 시형상으로 노래한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

신경애(문학예술종합출판사 편집원)

○ 답시: 《표창에 대한 이야기》

림공식(작가동맹중앙위원회 작가)

△ 주체87(1998)년 7호

○ 단편소설: 《군관신분증》

전인광(조선인민군 작자)

○ 시: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

김봉운(사회안전성출판사 부장)

○ 론설: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

최길상(작가동맹중앙위원회 평론분과 위원장)

△ 주체88(1999)년 7호

○ 단편소설: 《모성의 권리》

김혜영(신천군 백석고등학교 교원)

○ 수기: 《<조선문학>과 나》

장형준(작가동맹중앙위원회 평론가)

○ 시: 《먼길》

한창우(조선인민군출판사 작가)

○ 시: 《우리 사람들》

김석주(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인)

귀국실현 40 뜻을 맞으며

(총련) 정구일

내가 조국땅을 처음 밟은것은 25년전인 주체63(1974)년 7월이었다. 그때로부터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였다.

조국에 올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들을 만나고 느끼는것은 조국의 고마움이다.

나의 아들은 귀국하여 희망대로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영화음악작곡가로, 지휘자로 활약하고있으며 손녀는 평양미술대학에서, 손자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며느리도 미술대학출신이며서 남들이 예술가가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것이 귀국이 실현된 덕분이 아니고 무엇이랴.

조국의 파사로운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아들의 가정을 볼 때면 절로 가슴이 흐뭇해진다.

어찌 내 아들의 가정뿐이라.

귀국한 아들의 친구며 나의 제자들도 조국의 품에 안겨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학들을 졸업하고 사회주의건설,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고있다. 그들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과학자, 기술자도 있으며 작가, 기자, 건축가, 예술인, 체육인도 있다.

실로 귀국이라는 이 두 글자속에는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력사가 압축되어있다.

8.15해방직후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과 감격속에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고향길에 올랐다.

이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항구들에 나가 며칠씩 한지잠을 자며 배를 기다려야 했고 어떤 동포들은 밀선을 타고가기도 했다. 더구나 마이쓰루항에서 떠난 《우끼시마마루》가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의해 폭파되는 바람에 수천명의 우리 동포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또 남조선으로 돌아가 자기 고향을 찾았던 많은 동포들이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타고왔아 갖은 만행을 일삼는 미제의 군정통치하에서 신음하다못해 원쑤의 땅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이리하여 귀국의 길은 얼마 안가서 막히고말았다. 귀국을 하지 못한 100만의 동포들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미제의 사촉하에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은 해방민족이 아니라느니, 무국적자라느니 하며 일본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일삼았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한 《재일 10

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서한교시를 받아안은 우리 재일동포들은 북반부에서 실시되는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에 힘을 얻으면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반동당국은 《조련》과 민청단체들을 강제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가지가지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통찰하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무어주시었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총련과 그 산하조직들에 굳게 뭉쳐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쟁취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갔다.

총련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지부 나까도메분회에서 올린 귀국요구의 불길은 삼시에 일본 각지 우리 동포들이 사는곳마다에도 번져졌으며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선량하고 진보적인 일본인민들이 적극 지지성원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일동포들의 이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고 행복의 길, 인생전환의 길인 공화국으로 가는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었다.

주체48(1959)년 12월 14일 첫 귀국선이 니이가다항에 입항했을 때의 광경을 나는 지금도 잊을수 없었다. 동포들의 열광적인 환영의 도가니속에 나도 서있었다. 그 감격적이고도 력사적인 순간이 40년이 지난 오늘도 나의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그때는 12월, 추운 겨울이었으나 귀국선이 조국을 향해 떠날 때 감격의 열기가 부두에 차넘쳐 추운줄을 몰랐었다.

《잘 가시라.》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동포들이 흘리는 감격의 눈물, 배전과 부두를 잇고 줄줄이 날리는 오색테프들...

당시 나는 교직동 중앙위원장으로서 매 귀국선마다 진행되는 환영환송사업에 참가하였다.

제3차 귀국선때는 권국선앞에서 환영사를 하였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잊었으나 행복의 길, 인생

전환의 길인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재일동포들을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아주시려 귀국선을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감사사를 드리고 귀국동포들을 맞이하러 오신 귀국선 선장동지를 비롯한 선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것을 기억하고있다.

그때 우리 동포들은 8.15해방이 첫번째 해방이라면 귀국의 배길이 열린것은 두번째 해방이다. 세번째 해방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조국통일이다. 조국이 통일될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하곤하였다.

그런데 이 성스러운 사업을 일본반동들은 귀국이 아니라 《귀환》이라 고 비방해나섰고 남조선 괴뢰들은 귀국을 《북송》이라고 헐뜯으며 마치 동포들을 강제송환하는것처럼 떠들어댔다. 지어 《민단》의 악질분자들을 부추겨 귀국의 길을 막아보려고 철길에 엮드리는 등 온갖 방해책동을 다했다.

그러나 남조선에 고향을 둔 많은 동포들이 고향을 찾아 남조선으로 간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귀국이란 단순히 나서자란곳 즉 고향이 있는곳에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귀국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책임져주고 꽃피워주는 진정한 인민정권이 있는곳, 참다운 민족

정신이 살아있는곳으로 간다는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렇기에 내외원썹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근 10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간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세계가 경탄한것처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대이동》이었다.

귀국실현과 함께 총련은 동포들의 조국왕래의 자유, 외국여행의 자유도 일본당국과의 투쟁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가깝고도 멀던 조국땅은 지척인듯 가까워지고 우리 재일동포들은 애국의 배 《만경봉》호, 《삼지연》호, 지금은 《만경봉-92》호를 타고 마음대로 조국에 오고가고있다.

나는 이번에 조국에 와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피해를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으로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모습을 직접 보았다.

귀국실현 40돐을 조국에 와서 회고하니 더더욱 감회 깊어지는 이 시각, 비록 늙고 미력한 몸이지만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국의 룡성번영과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남은 여생을 바쳐나가겠다는것을 결의하게 된다.

(총련 교직동 고문)

놀랄 일이다

(총련)정화수

내 오랜만에
조국을 방문해서 그런가
내가 든 숙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줄 모르네

때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거니와
어쩌면 또 이리도
나를 놀라게 하는지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더니
첫 배로 귀국한 꺾다리
영웅이 되어 나를 찾고
넙마주이 파철장사하던 집 둘째는
박사가 되어 찾아왔네

막로동관에 힘꼴이나 쓰던 돌쇠가
대의원이 되었고
단발머리치녀때 홀로 귀국한 이쁜이는
인민배우 되었다나

머리가 세여선가
밤늦게 와서인가
이름을 대여서야 알아볼수 있은이는
이름난 병원의 원장이라네

놀랄 일이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크게 한몫씩 한다니
내 생각했네
나도 귀국을 했더라면
그쯤은 되었을가고

어버이수령님 배길 열어주시여
어언 40년
설음많은 이국살이 영원히 결별하고
배고동소리 울리며 떠난 그날로부터
얼마나 우리는 몰라보게 달라졌는가

내 이제 조국에 다시 오면
또 얼마나 더 달라질가
또 얼마나 더 놀랄가

자애로운 품-나의 조국

(총련) 랑우직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실현, 그것은 하나의 세계적사변이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본적 없는 역사적사변이었다. 하기에 당시 세상사람들은 이 장거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대이동》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격찬해마지 않았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40년, 그 사변을 맞을 때는 내 30대에 갓 들어선 한창나이였었던만 어언 70객이 되었다.

주체48(1959)년 12월 14일 첫 귀국선이 니이가다항을 떠나던 때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푸른 바다너머 멀리에 조상의 뼈가 묻힌 조국 땅을 두고 우리 얼마나 가고싶어했던가. 그런데 드디어 귀국의 배길이 직통으로 열렸으니 어느때건 갈수 있게 됐다는 생각으로 조국은 지척인듯 마음속에 가깝게 느껴졌다.

년말대목이라 날씨는 쌀쌀했지만 부두는 떠나는 사람, 바라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저마다 얼싸안고 봄비여 추운줄을 전혀 몰랐다.

《내 먼저 간다. 곧 뒤따라오라!》

《뒤일을 거두고 인차 따라가겠다!》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당부와 부락이 끝없이 오고가는속에서 배에 오른 사람도 부두에 남은 사람도 감격과 행복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당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나는 첫 배로 조국의 품에 안기는 학생들과 그의 부모들을 손저어 바래우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었다. 해방직후 밀선이나 쪽배마저 얻지 못하여 일본땅을 떠나지 못했던 그들이 오늘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큰배를 타고 당당하게 조국으로 돌아가고있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

이 감격은 첫 배가 떠난 며칠후 텔레비존에서 보게 된 귀국선을 맞이한 청진항의 뚝어번지는 광경을 통하여 더욱 고조되었다.

수많은 조국인민들의 들끓는 환영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견잡지 못하게 하였다.

귀국선에서 내려 조국땅에 첫발을 디디는 동포들에게 뿌려지는 꽃보라와 오색테프, 부두를 울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선률, 손에 손에 람홍색공화국기들을 들고 웨치는 만세의 합성.

《첫 귀국선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재일동포 여

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역살이에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조국은 동포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확성기에서 울리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가슴을 쳤다.

부두가에서 혈육들이 서로 만나 얼싸안고 흘리는 눈물은 감격적인 상봉의 극치를 이루었다.

《할아버님! 끝내 돌아오셨군요!》

조국의 손자가 울리는 인사였다.

《오나오나.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 은덕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빙빙 돌았다...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실현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제 민족이 사는 제 나라 땅에서 그 땅을 마음껏 밟으며 살고싶은것이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시작된것이 귀국운동이었다.

하지만 내외반동들은 처음부터 귀국실현의 길을 한사코 방해해나섰다.

하기에 일본인민들속에서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우리 재일동포들은 내가 살고있던 오사카에서도 도쿄까지의 근 600키로메터의 거리를 대행진하면서 귀국실현을 호소하고 우리의 정의로운 기개를 세상에 대고 시위했던것이다. 한편 일본인민들속에 들어가 귀국실현을 지지하는 서명운동도 벌렸다.

그때 우리 동포들의 지향은 강렬했다.

《기어이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자!》

청년들과 학생들의 경우는 더 진취적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조국에 가서 마음껏 배우자!》

《우리도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한몫 바치자!》

이렇듯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싸움으로써 드디어 귀국실현의 날을 보게 된것이였다.

...나는 자주 조국을 찾곤한다. 평양에만 해도 귀국한 친척들과 친지들, 제자들, 그들의 자녀들이 많다. 그들은 모두다 자기의 취미와 희망에 따라 과학, 교육, 문학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있다. 그들중에는 나라의 중요직책에서 일하고있는 사람도 있으며 학사, 박사가 되고 영웅이 된 사람들도 있다.

그들모두가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국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귀국실현 40돐, 이는 곧 재일동포운동이 승승장구해온 자랑찬 년대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조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어느때나 마음껏 조국방문의 권리를 누리고있다. 《만경

풍자시

또각난 상투수법

(총련)정화흠

세상천지 사람들아 우스워서 못살겠소
하늘땅이 생겨나서 오랜 세월 지났소만
이날까지 본격없고 들은적도 한번 없는
꼴사납고 렴치없는 저네들의 거동보소

공화국이 쓰아올린 인공위성 발사소리
그 소리에 어떤이는 허리뼈가 부러지고
깜짝 놀라 어떤이는 흥얼흥얼 설미치고
겉을 먹고 어떤이는 똥을 싸고 자빠졌네

중의원이 들썩덜썩 참의원이 옥신각신
총리대신 오부찌는 이불쓰고 오불오불
외무대신 고무라는 뉘를 싫고 고물고물
방위장관 누가가는 기가 막혀 누웠는데

관방장관 노나까가 슬금슬금 노닥인다
어찌하랴 이럴바엔 상투수법 써봄시다
눈 딱감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셈치고
대대손손 써먹어온 생억지를 부리자요

하늘땅이 무너져도 살구멍이 있다더니
얼씨구나 좋을씨구 살아나는 수가 났네
머리좋은 관방장관 더더러쿵 제일일세
천지시간 만물속에 우리 장관 제일이지

이리절고 저리절고 산지사방 전화절어
신문기자 방송기자 오만기자 모아놓고
눈치코치 렴치수치 두루두루 팽개치고
가래뿜는 목소리로 기자회견 하는구려

이리힐끔 저리힐끔 쿨룩쿨룩 하는 소리
인공위성 말도 말라 그런 말은 믿지 말라
사전통보 없었으니 미싸일이 틀림없고
일본령공 거쳤으니 주권침해 분명하다

문명천지 밝은 날에 생억지가 통할소냐
기자들은 어이없어 쓰던 원고 내던지고

봉-92》호는 우리 재일동포들을 조국의 품으로 인도해 주는 무지개가 되어 만경창파우에 다리를 놓아주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아 자기 조국을 떠나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많지만 우리 재일동포들처럼 존엄있고 행복한 사람들은 없노라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이다.

아니 꼬와 비웃으며 자리차며 하는 소리
허튼 수작 듣기 싫소 어서어서 물러나라

모든것이 허사로세 모든것이 파장일세
가보같이 간주해온 금과옥조 상투수법
하늘같이 믿어오던 으뜸가는 상투수법
이렇게도 무정하게 산산조각 날줄이야

돌아와서 생각하니 책임질 일 큰일일세
물에 빠져 죽자하니 조상들께 죄가 되고
목을 매여 죽자하니 처자식이 불쌍토다
어이할고 답답할손 알아줄이 바이없네

무슨 살이 뻥뻥하고 무슨 액이 붙었는고
누워서도 한숨이요 일어나도 한숨이라
독한 소주 꿀꺽꿀꺽 신세타령 중얼중얼
하느님께 비나이다 살려주소 비나이다

서산락일 운명이라 마지막의 발악인가
넋이 빠진 관방장관 흥얼흥얼 미친 소리
《지하시설》 사찰이요 《핵의혹》의 해명이요
《정보위성》 개방이요 《힘에 의한 해결이요》

곰배팔이 꼴값하네 문둥이가 분칠하네
이왕이면 고이 죽지 군소리가 웬말이고
물에 빠진 새앙쥐도 생글생글 웃어대고
삶아놓은 소대가리 히죽히죽 웃고있네

세상천지 인간만사 모든것이 자업자득
헤엄치게 잘한이는 물귀신이 되기 쉽고
나무타기 채주군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생억지를 쓰는자는 생억지로 망하는 법

이날에도 인공위성 지구둘레 돌고돌며
일본땅을 내려보고 꾸짖으며 경고한다
태평양에 침몰하는 난파선이 안되려면
생억지를 그만두고 무릎꿇고 사죄하라

귀향

현성하

저녁해는 뽕연 운무에 싸인 수평선가까이로 기울어지면서 로속에서 꺼낸 둥그런 쇠판같이 점차 불그레 식어들다가 어둑침침한 구름속에 아주 삼켜지고말았다. 여기 일본해구에서 보는 마지막 해지는 모습이다.

일본에서의 마지막해돋이는 오늘아침 니이가다 항에서 맞이했었다. 그 해돋이도 짙은 안개때문에 중낮무렵이나 되어서야 두터운 안개속을 뚫고 희미하게 올려다보이는 쟁반모양의 둥그런 해를 보고 의식했었는데 넘어갈 때엔 또 저 모양으로 침침하게 죽어가며 사라져버린다. 뒤에 두고가는 일본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바로 그 마지막해돋이와 저 마지막 해지는 모습에 그대로 다 체현되어있는듯싶다.

뽕-배고동소리가 울렸다.

선미갑판 란간에 몸을 기대고 서서 멀리로 물러가는 일본땅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박시환에겐 그 고동소리가 불우했던 소년시절의 수년동안과 열일곱살때부터 마흔을 넘어서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몸담고 살아온 저주로운 섬나라와의 영원한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그 어떤 선언처럼 들려왔다.

배는 소리없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는 배가 지나오면서 생긴 물흠이 점점 넓어지면서 서 멀리로 퍼져갔다.

박시환은 깊은 상념속에서 깨어날줄 몰랐다.

×차 귀국단 단장, 가법지 않은 직책으로 하여 그는 남들처럼 깊은 회억의 사색속에서 일본땅을 떠나지 못했다. 총련일군들과의 사업, 《만경봉》호를 물고온 조국일군들과의 사업 그리고 데리고가야 할 귀국동포들과의 사업… 분주하고 또 분주했다. 협의회, 담화, 인제, 오찬… 또다시 협의회, 면담, 만찬…수십년동안 꿈꾸어오던 귀국에 대한 소망이 성취되는것과 동시에 귀국단단장으로 임명되었고, 하여 그는 평생소원이 풀린 력사적인 그 순간의 열렬하고 벅찬 감정을 지금껏 속속들이 음미해볼새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배가 일본해구를 벗어나 공해로 접어드는 지금에야 그럴 시간이 생긴것이였다.

시환은 천천히 갑판우를 거닐며 선수쪽으로 갔다. 방금전에 저녁해가 숨어든 먼 수평선이 점점 검무릿한 어둠속에 묻히면서 배앞으로 소리없이 흘러왔다. 운무에 덮인 저 수평선너머에 그리고 가고싶던 땅-어머니조국이 있는것이다!

시환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멀리 서남쪽으로 향해졌다. 어둠의 장막에 덮인 망망대해너머 거기 어딘가에 그가 떠나는 고향이 있을것이다. 제

주도 부근의 자그마한 섬, 소가 웅크리고 누운것 같다고 하여 우도라고 불리우는 그의 고향섬이...

뽕- 배고동소리가 울렸다. 배는 파도를 헤가르며 기운차게 나갔다.

시환은 눈굽이 축축해지는것을 느꼈다. 솟구치는 눈물로 뿌옇해진 눈앞에 푸른 참대숲 우거져 설렁이고 그윽한 동백꽃향기 차넘치는 고향섬이 자기의 자태를 우뚝이 드러내며 다가왔다.

이러고보면 그의 귀향길은 거기서부터, 그 섬을 탈출하여 일본땅으로 건너오던 주체40(1951)년 정초의 그 차거운 쪽배우에서부터 시작된것이 아니던가?

시환은 짜고 비릿한 바다냄새가 풍겨오는 참대숲속에 까딱않고 엎드려 숨어있었다. 아니, 급히 숨겨둔 물건짝처럼 구겨박혀있었다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실지로 그를 여기 참대숲속에 떨게주면서 그의 형 서운은 말했었다.

《여기 구겨박혀있어. 까딱말고. 소리냈단 야단이야. 해상경찰대놈들한테 붙들렸다면 영낙없이 전쟁대포밥이야.》

그리고는 오늘밤 같이 탈출하게 될 동료들을 만나러 참대숲너머로 사라졌다.

지난해 초겨울 《국방군》에 강제징집되어가던 중 도망쳐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온 뒤로는 감감 무소식이여서 앓는 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들을 가진 젊은 안해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던 그의 형 박시운이 문득 집에 나타난것은 한달전 어느 깊은 밤이였다.

어머니와 젊은 안해의 눈물을 한껏 자아내며 《국방군》으로 끌려갈 땐 황소도 둘러메칠만큼 훌륭한 장사체격에 용모 또한 흠날나위없이 미끈한 갓 스물넷의 그야말로 욕심나는 젊은이였었는데 두달가까이의 방랑생활끝에 돌아온 그는 피골이 상접한데다 더부룩한 머리칼에 수염터가 끼릿끼릿하고 다리까지 절뚝거리는 불구자였다.

깊은 밤 어둠을 타고 바람같이 집에 새여들어온 시운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 어머니와 동생 시환에게 그사이 자기 신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말할념도 없고 밀도끝도 없이 시환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야겠다고 말했다.

《?!》

《그렇지 않다간 시환이도 내 신세를 먼치 못해요.

지금 저 청천강계선까지 올라갔다가 38선이남으로 도루 쫓겨내려온 리승만이네들은 다시 북으

로 올리밀어보겠다고 욱욱하면서 <국방군>장집에 눈이 새빨개 돌아쳐요. 시환이도 이제 서너달후면 장집나이가 되는데 그전에 이놈의 땅을 벗어나야 해요.》

어머니는 탄 사람같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볼뿐 대답을 못했다.

《싫어, 왜놈 쪽발이땅엔 다시 안갈래!》

해방되기전까지 수년동안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받으며 살아온 저주막을 일본땅풍경이 눈앞에 선히 떠올라 시환이는 몸서리틀 치며 돌아앉았다.

《이자식아, 그럼 동족의 가슴에다 총부리를 대겠니?》 형은 욱질하듯 짹 소리쳤다.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다. 널 데리고 빨리 건너오라고... 죽어두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마당엔 나가지 말라는거다.》

지금 일본에 건너가게시는 아버지의 어명이라는 바람에 시환이는 더 말을 못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쓰든달든 가타부타없이 받아들이는것이 그의 집 가풍이었던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도 깊은 한숨을 후-몰아쉬고나서 시운을 조심스레 쳐다보며 물었다.

《언제 가려니?》

《래일밤에요. 아버지와 런계가 있는 배가 우리 섬근처에 와요. 우린 매생이를 타고가서 오르기만 하면 돼요. 값은 아버지가 다 물었대요.》

《요즘 탈출자들때문에 해상경찰대가 행패질이 심한데 일없겠니?》

《죽든살든 결단을 내야지요. 죽더라도 가야 해요.》

시운의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더 다른 말이 없었다. 이것으로 두 아들의 섬탈출은 결정된것이다.

《어머니, 룡철인 어디 갔어요?》

어머니의 승낙을 얻어낸 안도감으로 벌썬 웃고난 시운이 그제서야 밥을 휘둘러보며 물었다.

《너석두, 이제사 그걸 묻니? 제 에미가 업고 제주 본가집으로 건너갔다. 군대기피자가족이라고 놈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전한듯 어둡실린 뽕창너머를 이윽히 바라보던 시운은 어머니한테로 돌아앉으며 《어머니, 나 밥쥬! 배고프군요.》 하고 탄전을 부렸다.

어머니는 얼른 부엌에 내려가더니 강보리밥에 된장보시기, 맹물 한그릇을 엮은 개다리소반을 들고 올라왔다. 상에 다가앉아 숟가락을 들자마자 밥부터 퍼드는 며칠 굶은듯한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가 달래듯이 말했다.

《목멜라. 물부터 마셔라.》

시운이 어머니 말씀대로 물사발을 들어 꿀꺽꿀꺽 소리나게 들이키고 다시금 밥사발에 달라붙자 어머니는 구부리지 못한채 쪽 뺨치고 앉은 그의

한쪽 다리를 떨리는 손으로 쓸어보며 조심히 물었다.

《다리는 왜 이렇게 됐느냐?》

《도망치다가 추격하는 놈들의 총에 맞았어요.》

시운은 숟가락이 휘여들도록 밥을 득뽕 퍼들면서 혼연스레 대꾸했다.

《빠는 다치지 않았느냐?》

《좀 다쳤어요.》

《어디 좀 보자.》

《일없어요.》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려드는 어머니의 손을 슬그머니 밀어내며 시운이 말했다.

《까짓거, 차라리. 잘됐지요 뭐. 이젠 전쟁판에 영영 안나가게 됐으니... 문젠 저 시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시환일 데리고 빨리 건너오라는거예요.》

시운은 이제라도 어머니가 반대해나설가봐서인지 은근히 오금을 박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구실을 하다싶이하는 맏아들의 말에 반대를 못했다. 더우기 그것이 아버지의 결심이라는 바람에 반대할 엄두조차 못했다. 8.15전 열두살짜리 맏이와 다섯살짜리 둘째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도 그러했고 8.15후 고향섬으로 되돌아온것도 전적으로 아버지의 의사와 결심에 따라서였다. 지금도 아버지의 결심이면 다였다. 그에는 시환이도 마찬가지로 더 뻔뻔함을 못하고 형을 따라섰다.

허나 약속된 그날밤 그들형제는 섬을 탈출하지 못하였다. 경찰놈들의 경계가 너무 심해서였다.

참대술에 몸을 숨기고 밤을 꼬박 새웠으나 끝내 헛탕을 친 그들은 하는수없이 괴뢰군정집을 기피하고 여기저기 숨어다니는 몇몇 동료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탈출방도를 모색하였다.

방도는 하나뿐이었다. 해상봉쇄를 뚫고 장사하러 새어들어오는 밀선을 리용하는 길밖에 없었다. 밀선의 선장들이란 다들 목숨우에 돈뭉테기를 놓고 사생결단하는 돈벌레들인지라 목돈만 찢어주면 다였다. 하여 모두들 집의 가산을 죄다 팔아가지고 밀선과 줄을 가진 밀수업자를 하나 내세웠다.

했으나 그것도 놈들의 해상봉쇄때문에 두번, 세번 거퍼 실패하였다. 거둬 당하는 전선에서의 패배로 하여 생긴 구멍을 메꾸느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군대기피자단속에 눈이 시뻘개 날뛰던 시기였다.

다섯번째만에야 섬탈출에 겨우 성공하여 배를 탔으나 그들이 낸 돈이 작다고 일본인선장놈이 배신행위를 하는 바람에 하마트면 해상경찰대놈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질번하였다. 실수하는척하면서 이 군대기피자들을 해상경찰대에 넘겨줌으로써 자기들의 밀수활동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그들한테서 더 많은 돈을 흥정해내려는것이 일거양득을 노린 선장놈의 속심이었다. 다행히 그 눈치를 채고 배에서 뛰어나려 가까스로 섬에 다시 오른 그들은 또다시 수소문을 하던끝에 바로 오늘밤 여섯번째 탈출의 길에 오른것이었다...

시환은 배를 마련해가지고 올 짝패들을 만나러 간 형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전쟁이라는건 왜 있을까? 같은 조선사람들끼리 왜 싸우는걸까? 미국놈들은 무엇때문에 조선땅에 와서 조선사람들끼리 싸움하게 만드는걸까?...

(그렇지만 않으면 이 추운 겨울밤 이렇게 차디찬 섬기슭에 나왔어 떨지 않아도 될것이 아닌가? 어머니결을 떠나 그 밋고미운 쪽발이놈들의 섬나라로 다시 건너가지 않아도 될것 아닌가?)

그는 정말로 바다건너 일본땅으로 다시 가고싶지 않았다.

해방전에는 멋모르고 그저 좋아라 어머니를 따라갔었다. 그럴수밖에... 그때는 려행이라면 무턱대고 좋아라 깡충깡충 뛰는 다섯살짜이 철부지였던것이다.

하나 그렇게 따라간 왜놈의 땅은 얼마나 저주롭고도 서러운곳이었단가?!

《조센놈의 새끼!》

어디가나 듣는, 들어야만 하는것이 멀리서 찬옥지거리였고 어디서나 받는, 또 받아야만 하는것이 천대와 팽대의 눈초리였다.

어머니를 닮아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시환은 그것을 못들은척 못본척 피했지만 아버지를 닮아 정의감이 강하고 울퉁불퉁이 보통아닌 형시운은 그 멀리, 그 천대를 참아내지 못하고 대척해나서군하여 빈번히 싸움을 벌렸다. 그바람에 옷 성한 날이 거의 없었고 얼굴에 상처가 없는 때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나라없는 망국민이고 또 남의 나라에 와 사는 처지에 할수 없는 일이라며 참으라고 울면서 애원하다싶이했으나 아버지는 그러는 어머니를 되려 핀잔하곤했다.

《참긴 어떻게 참아? 미물같은 벌레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럼 어째요? 대든다고 되나요? 이렇게 온통 피칠갑이 되는것밖에.》

그 말 또한 사실이여서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애꿎은 담배만 툭썩툭썩 태우곤하였다.

밤이 되여 네식구가 주련이 누워 잘 때면 아이적부터 초저녁잠이 없었던 시환은 어둠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만가만 주고받는 탄식을 가슴조이며 듣곤하였다.

《허어참, 일본놈들은 우리 조선사람들을 <반도인>이라 해가지고 깔보고 또 거기서는 제주도사람들을 섬놈이라고 천시하고 게다가 제주도사람

들은 또 우리 우도사람들을 소재끼의 후에들이라고 정말로 소취급하듯하길래 훌쩍 떠나왔더니 여기 일본땅에서 받는 모욕도 험치 않구려.》

《그러게 고향으로 돌아가자요. 굶어두 고향에가 굶구 천대를 받아두 고향에 가서...》

간청하듯 절절하게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다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제나름의 생각에 잠긴듯 고르로운 숨소리만이 어둠속에서 울렸다.

시환이도 다섯살적에 떠나본 고향섬을 그려보았다. 푸른 바다, 흰 파도, 푸르른 참대숲, 흰 모래불, 조개캐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해종일 앉아있곤하던 도래굽이의 바위너설, 고기잡이나갔다 돌아오는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안기던 석양비낀 동구길... 그에게는 고향에 대한 모든 추억이 한없이 아릅답고 소중하게만 안겨왔다. 배고픈 추억을 내놓고는... 지어 신발이 없어 맨발로 좁다하게 섬을 돌아다니며 새알을 털어내먹던 일이며 제잡이를 하다 동무들과 싱갱이를 하던 일까지도 더없이 아릅답게만 그려졌다. 가고싶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다시 그 도래굽이 검은 재빛 바위우에 앉아 조개캐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찻찻한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미역이나 갑아봤으면, 정다운 동무들과 함께 고기잡이나간 아버지네들을 기다리며 수평선가에 떠오르는 배들을 하나, 둘 손꼽아헤어봤으면...

《아니- 거기론 다시 안갈테요.》

긴숨을 몰아쉬며 아버지가 숨죽은듯한 고요를 깨뜨렸다.

《여기서 받는 수모는 그래도 남의 땅에 와서 받는 수모니 그런대로 그럭저럭 참을수 있지만 제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남의 놈들한테 받는 수모는 도대체 심장이 뒤집혀서 견딜수 없단 말이요.》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하는수 없다는듯 긴 한숨을 내쉬며 부시력부시력 돌아누웠다.

그날밤에야 시환이는 아버지가 어찌하여 온 일가를 휘둥하여가지고 고향을 떠나왔는가를 어렵것이나마 깨달았다. 어찌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제주도에 건너가면 말을 타고 거들먹거들먹 거리를 돌아치는 왜놈들을 피하듯 뒤꼍목만 찾아다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도로 배를 타고 온 일본놈들이 선창에 웅기중기 모여서있는 아이들을 마치 더러운것이나 보듯이 차갑게 흘려보곤하던 그 경멸에 찬 눈빛에서 반군하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것은 없는자의, 약한자의, 힘센놈한테 통채로 먹히운자의 가련한 운명에 들썩워지는 멀리서 모욕 그것이었다. 바로 그것을 참을수 없어 아버지는 정든 고향을 떠나온것이며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와서 갇은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시환은 어찌하여 쪽발이 왜놈들이 고향 땅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며 돌아치는지 또 왜서 그놈들한테 받는 멸시와 수모를 묵묵히 감수하며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종시 알수 없었다. 그것을 깨닫기에는 시환의 나이가 너무나도 어렸다.

어느날, 그때 벌써 열여섯에 났던 형 시운과 금방 아홉살에 잡혔던 시환은 엉마주르 거리에 나갔다가 왜놈망나니들과 대드리판싸움을 벌렸다. 싸움이라야 시환이네 두 형제와 왜놈 골목망나니 여라문놈이 맞붙은 전혀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이었는데 그나마도 처음 시환이가 공포에 질려 주뭉뚱하는바람에 싸움전반은 형 시운이 모두매를 당한셈이었다.

싸움은 팔소매가 너덜거리는 검은 하오리를 걸치고 길다란 격검채를 찬 골목망나니패들이 엉마를 주어가지고 돌아오는 시환이네 앞을 떡 막아서서는 앞으로도 옆으로도 지어 뒤로도 갈수 없게 빙둘러 싸고돌며 야료를 부리는것으로부터 발단되었다. 망나니들은 비루먹은 개새끼라도 보는듯이 차거운 눈길로 엉마자루를 둘러멘 그들 형제를 내려다보며 빙글빙글 원을 지어 돌았다. 조선놈의 새끼가 엉마자루를 지고다니며 신성한 제국의 거리를 더럽힌다는 뜻이었다.

《비키지 못하겠어.》

형 시운이 엉마자루를 진채 떡 뺨치고 서서 위협했다. 허나 왜놈망나니들은 조선놈의 새끼가 제법이라는듯 알아들을수 없는 왜말로 무어라 씨부렁거리며 능글거릴뿐이었다.

시환은 형의 옆구리에 딱 붙어서 숨을 죽였다. 시운은 그러는 동생의 부들부들 떨리는 팔을 짊어잡다니 《이자식. 떨지 말아.》 하고는 그를 끌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앞을 막아섰던 키가 꺾두룩한놈이 시운의 쏘는듯한 눈총에 기가 질렸는지 주춤주춤 물러섰다.

형은 그러는 놈을 받아넘길듯한 기세로 쏘아보며 그냥 나갔다. 그 서슬에 몇걸음 더 물러서던 놈이 제국의 남아가 식민지반도인의 코흘리개앞에서 후퇴가 뭐냐는듯 떡 뺨치고 서서 무엇이라 고함지르며 격검채를 쭉 뽑아들었다.

격분한 형이 그놈이 빼든 격검채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시환은 《형!》 하고 소리쳤다.

《그놈들이 달려들 때 아무리 뺨이 끌려도 먼저 손을 대지는 말어라.》 하고 일러주곤하던 아버지의 말이 생각난것이였다. 그래야 이른바 《법치국가》인 일본법에 걸려들지 않을수 있기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정의가 이편에 있다해도 두번피해를 면할수 없는것이였다. 어쨌든 칼자루는 그놈들한테 있는것이였다.

했으나 형을 제지하는 시환의 부름과 거의 동시에 욱! 하는 앞의놈의 비명이 들리고 뒤이어 나머지놈들이 욱 물러들어 치고 받고 차는 소리

가 어지럽게 일어났다.

《반도놈이 감히 내지인을 먼저 쳐? 죽여라!》

《목을 쳐라!》

목에 피대를 세워가지고 뉘악 뉘악 고아대는 소리, 퍽 퍽 매질소리...

그속에서도 형은 악을 쓰며 일어나 놈들의 대갈통을 받아넘기군했다. 허나 워낙 수적으로 우세한 놈들인지라 시운은 끝끝내 악에 받친 놈들의 밀에 깔리고야말았다. 놈들의 게다가들이 시운의 머리며 허리, 다리를 사정없이 지리밟고 내리찍었다. 시운은 《이 쪽발이놈들아!》 하고 이새로 내뿔으며 일어서려 모지름을 썼으나 그럴수록 놈들의 못매질만 더욱 세졌다. 어느놈인가 어꾸러진 시운의 잔등에서 그냥 데롱거리는 배낭을 칼로 쪽 찢어던졌다. 어지러운 엉마조각들이 그 무슨 창자처럼 흘러내려 시뻘건 선지피가 점점이 묻은 거리바닥에 뿌려졌다.

《형님! 형!》

뒤전에 밀려나 겁에 질려 소리지르던 시환은 이러다 형이 죽을수도 있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 생각은 시환을 사로잡고있던 공포감을 밀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무서운 일을 막고 형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행동의지를 불러주었다.

시환은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다가 어느놈인가 놓쳐버린 격검채를 보았다. 더 생각할새없이 그것을 집어 들고 달려나가며 형님을 깔고앉은 놈의 뒤통수를 힘껏 후려갈겼다.

으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모로 나동그라지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럽고 야만스러운 모든 행위들이 일시에 멎었다. 다시 달려들려던 놈들은 불길히 황황 이는듯한 눈길로 놈들을 쏘아보며 또다시 천천히 격검채를 쳐드는 시환이를 보고 우뚝 멈춰섰다. 뺨의 눈썹에서나 볼수 있는 살기를 띤 눈들이 점점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듯하더니 와락 흩어져 달아나버렸다.

겁쟁이같은놈들! 어디 또 달려들어봐라!

그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난생처음 느껴보는 찌릿한 패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자 다음 순간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가봐 늘 속을 조이던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이 고향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도리머리를 젖던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 떠오르면서 이제 뒤따라오게 될 예측할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불안으로 속이 한줌만해졌다.

아니나다를가...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형을 부축하고 집으로 돌아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달려든 경찰놈들에 의해 집안은 란장판이 되었고 아버지는 경찰서에 붙잡혀가 두달만에야 반주검이 되어 놓여나왔다.

《잘했다!》

미안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시환의 등을 두드려주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자요, 예?!》

시환이는 울면서 간청했다. 가고싶었다. 거기에 정다운 집이 있어서도, 유년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도, 다정한 동무들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이 저주로운 왜놈의 땅에서 매일매시각 당하게 되는 그 멸시와 천대가 죽기보다 싫어서였다. 그래도, 그래도 고향에 가면...

아버지는 울먹울먹 소리내며 우는 시환이의 머리를 시퍼렇게 멎은 손으로 쓸어주며 저 멀리 서남쪽 푸른 하늘가만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축축히 젖어드는 물기로 번쩍이는 아버지의 눈에는 정든 고향을 두고도 돌아갈수 없는 안타까움과 자기들에게서 고향을 빼앗고 그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빼앗은 원수 왜놈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감정이 짙게 어려있었다.

《거기 간들 나을게 없다. 거기도 이 쪽발이놈들의 세상이거든. 어-헉!》

아버지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씹어삼켰으나 눈가로 흘러내리는 눈물만은 어찌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이태남짓이 흘러... 8.15해방을 맞았다. 일본국민들은 국치를 당했다고 울고불고 야단이였다. 했으나 시환이네를 비롯한 조선사람들은 가슴가득 치밀어오르는 기쁨과 행복, 희망과 환희로 잠들지 못했다. 고향으로 돌아갈수 있게 된것이다. 고향에 가서도 왜놈들의 꼴을 보지 않고 주인으로서 가슴펴고 살수 있게 된것이다.

아버지는 두 아들과 안해를 데리고 고향 우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엔 왜놈들대신 미국놈들이 들어와있었다.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인이 일본놈들로부터 미국놈들로 바뀌었을뿐이었다.

미제가 조작한 5.10망국단선을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도인민봉기가 있는 직후인 주체37(1948)년 봄 아버지는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갈 잡도리를 하였다. 그자신이 인민봉기에 참가했다가 놈들의 검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것이였다.

떠나기전에 아버지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시환이와 아직 애리를 벗지 못한 시환을 무릎가에 앉혀놓고 말하였다.

《듣거라. 나는 놈들의 박해가 무서워 몸을 피하려는것이 아니다. 그까짓 목숨 아까운 생각은 꼬물만치도 없다. 내가 가는것은 이 땅이 또다시 미국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남의 땅으로 된 까닭이다. 그것이 싫다. 제 땅해서 남에게 굽신거리며 종노릇을 할수는 없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우린 제주도사람들이다. 원나라침략자들과 끝까지 싸워 조선사람의 항거정신을 만방에 떨친 삼별초군의 후예들이다.

일본에 가서 자리를 잡거든 연락을 띄우겠다. 곧 따라오너라.》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섬을 떠나가버렸다. 그리고는 일이 여의치 않은 모양 여태 소식이 없었다. 설사 소식이 온다 해도 시환이는 그리 반가울것 같지 않았다. 갖은 수모속에 방황하던 그 싸늘한 거리가 선히 떠오를 때면 몸서리가 오곤 하였다. 침을 뱉고 떠나온 그 저주로운 땅으로는 죽어도 다시 가고싶지 않았다.

그리는중에 전쟁이 터졌다. 인민군대의 남진, 미군의 북상, 다시 인민군대의 재진격...그런속에 아버지의 연락이 왔고 시환은 형 시운에게 이끌려 그렇듯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본땅으로 건너가기 위해 차디찬 어둠속에서 몸을 떨며 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시환아!》

어성을 낮추어 조용히 부르는 소리에 시환은 몸을 도사리며 역시 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형, 나 여기-》

철썩- 철썩- 기슭을 때리는 파도소리사이로 와삭와삭 참대숲을 헤치는 소리가 가까와오더니 푸릿한 달빛에 두셋의 검은 형체가 보였다.

《시환아!》

《응.》

가까이 다가오는것을 보니 맨앞에서 절뚝거리며 오는것이 형 시운이고 뒤의 다른 한사람은 같이 탈출하게 된 형의 동료였다.

《자, 가자!》

셋이서 참대숲을 조심히 헤치며 돌이 오던 반대쪽으로 갔다. 한참 걸어가자 참대숲이 끝나고 벵랑턱 깊숙이까지 바다물이 들어온 자그마한 만이 나졌다. 거기서 시환이네는 같이 탈출하게 된 또 한사람을 만났다. 그는 배를 지키고있었다. 그들이 약속된 밀선까지 타고가야 할 배였다.

섬을 떠나기 앞서 그들 셋은 한자리에 모여있었다. 시환이는 어린아이취급을 해서인지 쑥 빼여진 바위뒤에 숨어서 망을 보라고 했다.

시환은 바위뿔끝에 엮드려 저쪽 참대숲쪽을 살피면서 바람결을 타고 간간이 들려오는 형님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동족의 가슴에 총을 내댈수가 없어 정든 고향을 버리고 간다!》

《가고가다가 상어밥이 될지언정 동족과 싸울수는 없다.》

《참다운 고향의 주인이 되기전엔 돌아오지 않겠다!》

짹짹떨떨하게 울려오는 그들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환은 가슴이 뜨거웠다. 형처럼, 형과 같이 동족의 피를 흘리게 할수 없어 리향을 단행하는 사람들! 저들도 우리 아버지같이 삼별초군의 후손들인것이다.

《자, 이젠 떠날 시간이 됐다. 고향과 작별하자.》

시환의 형 시운이 몸을 일으키자 모두들 일어

나 어둠속에 묻힌 섬을 바라보고 섰다. 그다음 천천히 고개를 숙여 묵묵히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섬 우도에 작별인사들을 했다.

시환이도 그들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마음속으로 작별인사를 했다.

《어머니, 혼자서 고생 많으시겠어요.

제주에 가계시는 형수님, 안녕히 계시랴요.

통철아, 이 삼촌을 기다려라. 내 널 데리러 꼭 오마!》

눈앞이 콕 흐려지고 목이 콕 메였다.

《잘 있거라, 우도야! 나를 낳아준 섬아! 언제든 저 내 다시 꼭 오마. 어디 가서든지 널...》

갑자기 저쪽 참대숲부근에서 흰빛이 번쩍하는 바람에 시환이는 숨을 딱 죽이고 그쪽을 주시했다. 이어 호곡- 호각소리, 어지러운 발자국소리... 《경찰이다.》

시환은 형님들쪽에 대고 낮게 소리쳤다.

《냄새를 맡았구나, 개자식들.》

누군가 분한듯이 내뿔었다.

《안되겠어, 다들 배로!》

시운형이 동료들을 배로 떠밀면서 소리쳤다.

《시환아, 너도 어서!》

시환이는 나는듯이 배있는데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호각소리와 발자국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형두 타자!》

배에 오르려던 시환이가 형의 팔을 잡아끌었다.

《내 걱정을 말고 어서!》

동생을 배로 와락 떠밀치고난 형이 소리쳤다.

《빨리 바다로! 약속된 시간을 놓치면 다야.》

그리고는 돌파서서 벼랑우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형!》

배에서 훌쩍 뛰어내린 시환은 곧추 형한테로 달려가 옷자락을 와락 붙잡았다.

《내가 저놈들을 달고 갈게 형은 배를 타고 가!

응, 형은 저놈들한테 붙잡혔다간 죽어!》

《이놈아, 난 죽으면 다지만 넌... 안돼!》

와락 바다쪽으로 밀쳤다. 콕 미끄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며 바위우로 오르는 형의 바지가랭이를 콕 붙잡았다.

《형!》

《이놈아! 미국놈들의 총알받이가 되고싶어 이래, 응, 이 망할자식같으니!》

파귀에서 불이 번쩍 일고 배허벅을 걷어채우는 감을 느끼는 순간 뒤로 벌렁 넘어지며 철썩- 바다에 떨어졌다. 벼랑밑에 있던 동료들이 그를 배에 끌어올렸다.

땅-

돌연한 총소리에 바다물에 흠뻑 젖은 머리칼을 쓸어들리며 얼굴을 쳐들자 벌이 한벌 덜린 밤하늘을 배경으로 높직한 너럭바위우에 거연히 일어

섰던 형님이 한손을 뒤통수에 대고 몸을 뒤로 젖히더니 천천히 넘어졌다.

《형님!》

검질린 시환의 외마디 부름소리와 함께 철썩-하고 형님이 바다에 떨어졌다.

《시운이!》

배옆에 떨어진 형한테로 동료들이 손을 내밀며 소리쳤다. 했으나 형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솟구치더니 한손을 쳐들어 힘겹게 앞으로 내저으며 《시환아! 아버지를 꼭 찾아... 가져라.》 한마디 웨치고는 다시금 물속에 잠겨들었다.... 그것이 시운형님과과의 마지막작별이었다.

갑판우에도 선실에도 온통 불, 불천지였다.

귀국의 길에 오를 동포들의 마음을 더욱 밝게 해주려고 조국동지들이 울긋불긋한 장식등을 가득 매달고 온데다 총련조직에서 조국으로 떠나가는 동포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불꽃장식을 더 해붙이다나니 마치 하나의 커다란 불섬이 떠오르는 듯한 감을 자아냈다.

일본땅을 떠난 뒤의 첫 저녁식사들을 마치자 모두들 불빛이 환한 갑판에 나와 휘황한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며 출렁이는 바다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조국으로 간다는 생각에 모두들 기분들이 봉-뜯겼이었다.

시환은 둘씩, 셋씩 혹은 한가죽 통채로 나와 늑실대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이며 지금 무슨 생각을 안고 조국으로 가고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다들 하나같이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고향을 떠나 현해탄을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오고싶어 오지 않았고 살고싶어 살지 않은 땅, 저주하면서도 갈곳이 없어, 조국이 없어 정붙지 않는 일본땅에서 눈물을 머금고 살아오던 저들이 오늘은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께서 계시는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저렇듯 기쁨에 넘쳐 울고 웃으며 가고있는것이다.

사람들속에서 한쌍의 젊은 부부와 예닐곱살쯤 났을 그들의 딸애가 시환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단장선생님.》

딸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인이 인사를 하였다.

그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보였다. 총련 오사까본부에서 추천해보낸 동포가족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귀국하게 된것이 기뻐서인지 젊은 부부와 딸애의 얼굴엔 다함없는 행복의 미소가 넘쳤다.

《단장큰아버진 혼자 가시나요?》

딸애가 물었다.

《오, 우린 셋이란다. 나하구 통철이 할머니하구 통철이 작은 어머니, 이렇게.》

《통철인 누구나요?》

《우리 조카란다.》
 《나처럼 여자아이는 없나요?》
 《있지. 룡실이랴구.》
 《그애들은 왜 안데리구 가나요?》 의아쩍은듯 처녀애는 눈이 울통해서 다시 물었다.
 시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애들은 조국에 먼저 보냈단다. 벌써 몇년 전에… 지금 학원에서 공부 하지.》
 《그래요?》
 이번에는 젊은 부부가 놀라운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놀라울수밖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일본땅에 그냥 남아있으면서 애들만 조국에 먼저 보내여 학원에서 공부를 시킨다니… 시환이 그것을 결심했을 때 그의 어머니와 안해 또한 얼마나 놀라와했던가.

그것은 시환이 8.15전에 겪었던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결심이였다.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뿌리깊은 배척의식에 물젖은 일본인망나니들이 일곱살난 시환의 딸 룡실에게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욕을 가한것이 그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로 되였다.

그날은 룡실이 생일날이여서 그애 어머니는 딸에게 자기 손으로 고운 치마저고리를 해입혔다. 아롱아롱한 색동저고리에 밑단에 흰줄을 두른 까만 주름치마였다.

그 옷을 입고 너무나 좋아 캣중캣중 뛰며 거리에 나갔던 그애가 발기발기 찢어지고 흙탕물에 뒹어진 옷을 들고 엉엉 울면서 돌아온것은 불과 한시간뒤였다. 조선계집이 일본거리 한복판에 조선치마저고리를 버젓이 입고 나왔다며 길가던 일본인망나니들이 달려붙어 칼로 치마를 발기발기 찢어놓고서도 성차지 않아 저고리를 강제로 벗겨 진탕에 구겨박아버린것이였다.

마침 학교에서 돌아와 왕왕 울면서 하는 4촌동생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룡철이(그애 아버지는 그날밤 경찰놈들의 총에 맞아 잘못되고 후날 그애 할머니가 일본으로 건너올 때 그를 데리고 건너왔다.)가 《개새끼들!》 하고 이발을 뿌드득 갈더니 가방을 휙 집어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 룡철아!》

그애 삼촌어머니가 다급히 불렀으나 집앞 굽인 돌이를 지나 이미 놓여난 살갗이 달음박질하기 시작한 그애를 붙들어낼수가 없었다.

룡철이는 골목을 예돌아 거리로 나서자 잡화점 간판들이 다닥다닥 나붙은 좁다란 상점거리를 지나 일본인학교쪽으로 뚫다 달렸다.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상점거리에서 새까만 하오리를 입고 히히닥거리며 지나가는 두세놈의 일본인망나니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생각이 난것이였다.

《히히, 고놈의 계집애, 썩꼬만게 벌써 창피를

알아? 새다리같은 녀적다리를 감추느라 폴짝 주저앉는걸 봤지?》

《저고릴 벗기니까 젖가슴을 가리워. 제법!》

《조금만 더 큰 계집이면 깔고앉아 욕을 보이는 건데…》

우연히 지나치면서 흘려들은 말이여서 속으로 울컥하는것을 참고 왔는데 집에 와서 룡실의 정상을 보는 순간 그놈들이 우리 룡실을?!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때린것이였다.

룡철이는 숨이 차게 달리면서 내뿔었다.

《개새끼들! 어디 죽어봐라!》

제 아버지의 사나운 뺨통머리를 그대로 넘겨받은 그애였다. 게다가 아버지없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다니니 자위의식이 남달리 강했다.

학교에 거의 이르러 그놈들을 따라잡은 룡철이는 다짜고짜 그놈들앞을 뚝 가로막고서는 웬일인가 해서 눈을 흘뜨는 세놈중 가운데놈의 상판으로 날아들면서 힘껏 골반이를 했다. 그리고는 한걸음 물러섰다가 재차 돌입해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선놈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휙 돌아서서 겁에 질려 어- 어- 소리지르며 뒤걸음치는 나머지놈의 멱살을 잡아 공중걸이로 길바닥에 힘껏 돌려메쳐 태절해버렸다. 세놈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일격에 나자빠졌다. 룡철은 나가너부리진 놈들을 차례차례로 짓밟아주며 부르짖었다.

《이 쪽발이새끼들! 조선사람 맛 좀 봐라!》

지나가던 조선사람들은 까닭을 모르면서도 내심 통쾌한 웃음을 짓고서서 바라보았고 일본인들은 룡철이의 성난 사자같은 모습앞에 기겁을 했는지 옆에 다가설념을 못하고 달아나버렸다.

한 십오분가량 지나 경찰들이 달려와 무작정 룡철이를 묶어갔다. 그의 삼촌어머니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룡철이가 경찰차에 실려간 뒤였다.

그 사건을 놓고 온 시내가 벽적 끓었다.

일본깡패들은 조선인불량청년의 폭행사건이라며 조선사람들을 곳곳에서 위협하며 란동을 부렸고 조선사람들은 조선인소녀에 대한 폭행으로부터 유발된 사건이라며 억울했다. 일부 조선사람들은 그 복수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고 그 피해가 저희들에게도 미칠가봐 불안속에 몸을 웅크렸다. 도시의 공기는 당겨놓은 활시위같이 한껏 팽팽해졌다.

신발생산을 위한 상업거래때문에 오사카로 러행갔다 오는 길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순간 시환은 해방전 자기와 형이 맞다들었던 사건과 너무나 류사한데 놀라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번져질것인가 은근히 걱정했다. 정의가 누구에게 있든 조선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불리하게 판결되곤하는것이 일본법이였다. 게다가 그는 일본땅에 누구하나 도와줄 가까운 혈붙이나 친척도 없는

혈혈단신이였다. 또 그는 같은 조선사람들끼리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다투는것이 싫어 정치에 관여안한다며 《민단》이나 총련에도 들지 않고있었다.

이런 때 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좋으련만...(시환의 아버지는 몇년전 나라가 통일된 다음 고향섬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시환은 집에 도착하자 려장을 풀 사이도 없이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가 경찰서장방에 들어서니 기고만장한 자세로 서있는 서장앞에 웬 사람 둘이 서서 고개를 수그린채 무엇인가 빌고있었다.

시환이를 데리고 간 당직경찰이 일본애들을 때려눕힌 조선소년의 보호자라고 말하자 서장의 눈에서는 단박에 비수같이 선뜩한 불씨가 튀겨났다.

《네놈 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눈빛이였다. 하지만 계집애의 입술같이 알팍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조용했다. 허나 그속에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선뜩하게 하는 차갑고 뽕뽕한것이 깔려있었다.

《방금 <민단>간부들이 와서 이번 사건이 조선인들에 대한 더 큰 폭행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달라고 정식 사죄를 했지만 그건 전적으로 폭행자의 보호자인 당신한테 달렸소. 그러니 신문,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는것이 좋겠소. 그래야 우리 일본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힐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경찰측에서도 미성소년의 순간적인 과격한 행동으로 너그럽게 보아줄 용의가 있소.》

《사죄를 하다니?》

시환은 자기를 쳐다보는 서장앞의 두사람을 바라보며 조선말로 물었다.

《아니, 폭행은 일본아이들이 먼저 했는데 무슨 사죄를 한다는거요?》

《여보!》

허리를 굽히고 섰던 두사람이 일순간 도끼눈이 되어 시환을 쳐다보더니 그중 한사람이 시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여기가 일본땅이라는걸 잊었소?》

《일본땅이지만 망나니들의 세상은 아니요. 그런데 불법무도한 망나니들한테 사죄라니. 여기 일본땅에는 법도 없단 말이요?!》

《아, 그러지 말고 자중하는게 좋소. 공연히 굽어 부스럼이라구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구... <민단>중앙에서도 신호가 있었소. 괜히 불집을 터뜨리지 말고 소동을 가라앉히구 조용히 처리하라우.》

《<민단>중앙이구 뭐구 나한테 상관없소. 이젠 내 문제요. 내 일에 빠치지 마시오!》

시환은 격분을 누를길 없어 자신을 자제 못하고 부르짖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구쳤는지 자기자신도 알수가 없었다. 사실 경찰서로 오면

서도 이같이 웨칠 의기는 없었다.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사는 처지에 웨쳐왔잖아 손해만 볼것이기엔 적당히 타결하리라 마음먹고온 그였다. 했는데 머리를 숙이고 사죄요 뭐요 하는 이들의 꼴을 보자 그만에야 속이 울컥 치밀어오르면서 그런 의기가 생겨난것이였다. 명색이 한나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해외조직의 대표라는 자들이 저 모양이니...

문득 어릴적 형을 죽이려드는 일본인망나니들의 대갈통을 후려갈기던 생각이 났다. 그때 경찰서에 끌려가 못매질을 당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자기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었다. 《잘했다.》

자기도 역시 조카녀석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렇게 칭찬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항거외에 다른 길은 없단말인가? 해방전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도, 아니, 그럴수는 없다. 우리는 어제날의 《조선정》, 식민지반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우리를 지켜주고 옹호해줄 조국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왜서인지 억이 막히고 속이 불시에 텅 빈듯 허전해났다. 시환은 휘청거려지는 몸을 가까스로 다잡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오. 그러나 사죄만은 절대 안되오. 할수 없소.》

가뜩이나 작은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시환을 노려보던 서장이 제탄에 큰 자제력을 발휘한다는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푹푹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오면 우린 그애를 재판에 넘기는수밖에 없소. 또 그 후파에 대해서도 우린 책임질수 없소.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서장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시환은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아니, 죽어도 사죄만은 할수 없소.》

더는 참을수 없다는듯 서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칙소- 건방진놈.》

쓰거운 벌레라도 씹어뺨듯하는 서장의 목소리가 울리는것과 동시에 문이 열리더니 당직경찰이 들어섰다. 그는 상관이 붉으락푸르락해진 서장의 거동을 살피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총련분회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 일때문에 온것 같습니다.》

당직경찰이 시환이를 힐끗 쳐다보며 보고했다.

《보나마나 사죄하러 왔겠지.》

《아니- 우린 항의하러 왔소.》

류창한 일본말로 받으며 들어선것은 펍 년로한 나이의 총련분회장과 총련조직에 들라고 시환이한테 몇번 찾아온적 있는 분회의 젊은 일군이였다.

《총련분회장이요. 합의할 문제가 있어서 왔소.》
분회장이 나지막하나 위엄있는 어조로 말하며
서장의 책상우에 두툼한 봉투를 꺼내놓았다. 결
봉에 쓴 《항의문》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
다.

《보시오.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구류된 조선인
소년을 즉시 내놓을것. 둘째, 조선인소녀를 모욕
하고 폭행한 일본인망나니들을 엄중히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것.
셋째, 지방행정당국이 조선사람들에게 정식 사죄
할것.》

만일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조직으로서 법적투쟁
을 전개할것이요.》

경찰서장의 낮빛이 거뭇게 질리더니 점점 피기
가 가셔지는듯 하얘졌다. 시환은 속이 탁 트이는
감을 느끼며 경건한 마음으로 총련일군들을 바라
보았다.

《예또, 그 조선인소년으로 말한다면 일본인학
생을 세명씩이나 란폭하게 구타하였고 또...》

서장이 자기를 수습하고 총련분회장에게 말하
였다. 그러나 벌써 그 말은 맥이 없었고 죄를 지
은놈이 하는 구차스런 자기변명같은것이였다.

총련분회장의 얼굴빛이 근엄해지더니 더욱 날
카로운 어조로 들이댔다.

《그것은 구타가 아니라 조선민족을 모욕한 망
나니들에 대한 응징이고 징벌이요.》

지금 이 시각 총련중앙은 같은 항의내용을 가
지고 당신네 법무성 장관에게로 갔습니다. 또 조
국에서는 일본정부의 반동적이고 민족배타적인
정책으로 하여 빚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온 세상에 공포할것입니다.

시급히 대책을 취하지 않고 그 망나니들을 계
속 비호두둔한다면 당신들한테 더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것을 경고하오.》

말을 마친 두사람은 엄숙하게 돌아섰다. 얼굴
이 하얗게 질린 경찰서장이 뭐라고 중얼거리며
영겁결에 따라섰다. 한옆으로 밀려나 웅색하게
서있던 《민단》계 두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난처
한 눈길로 바라보며 서장의 뒤를 따랐다.

시환은 금시 눈물이라도 왈각 쏟아질듯한 감격
에 몸을 떨며 한동안 그자리에 서있었다. 부르르
떨리는 자기의 살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든든
한 뼈가 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온몸에 가량할수 없는 힘이 쭉 뻗었
다.

(그래, 저것이 바로 조국이다! 아버지가 한생토
록 바라시던 조국이... 내가 그토록 안기고싶던
조국이...)

와락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총련분회일군들
은 벌써 없고 빈손을 툭툭 털며 마당을 가로질러
오던 서장이 시환을 힐끔 쳐다보더니 바보같이
혜식은 웃음을 벌쭉 웃었다. 그리고 마당 한구석

에 엉겨주춤 서있는 《민단》계 두 대표를 보더니
으흠! 하고 위세를 돋구며 안으로 들어갔다. 《민
단》계 두사람은 이제 와서 태도를 변경하여 총련
일군들처럼 당장 소년을 내놓고 사죄하라고 으름
장을 놓을수도, 그렇다고 대변에 주눅이 들어버
린 하급경찰관나부랭이에게 다시 낮추 불기두 뿔
하여 허둥거리다가 황망히 마당밖으로 나가버렸
다.

《삼촌!》

등뒤에서 울리는 소리에 시환은 책 돌아섰다.
금방 닫기는 문앞에 그의 형 시운의 아들-조카
룡철이가 벌썩벌썩 웃으며 서있었다.

《장하다. 룡철아! 네가 이겼다!》

시환은 달려가 룡철이를 와락 그러안고 조카에
의 잔등을 두드리주며 큰소리로 웨쳤다.

룡철의 아버지-시운형님도 살아있었더라면 그
렇게 했으리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 젖어왔
다.

이런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하는 애잡잘
한 생각으로 눈곱이 핑 젖어들었다.

시환은 룡철이를 옆에 짝 끼고 머리를 들어 푸
른 창공을 감격에 넘쳐 바라보며 보무당당히 경
찰서마당을 걸어나왔다.

《여보, 무슨 생각을 하시우?》

누군가의 목소리에 시환은 자기의 생각에서 깨
여났다. 돌아보니 네온등빛을 얼굴에 함뿔 담은
안해가 서있었다.

《어- 애들 생각을 했어.》

《애들 생각이요?!》

《응, 그애들을 조국에 보낸지도 벌써 몇년 잘
되었지, 아마?》

《5년째외다.》 안해가 깊은 회억에 잠긴 목소리
로 천천히 조용조용 말했다.

《왜놈망나니들을 혼썰낸 우리 룡철이가 총련조
직의 투쟁으로 풀려난 다음 당신은 곧 총련조직
에 들었고 다음해 귀국선으로 그애들을 먼저 조
국에 보내지 않았나요. 애들이 다 크기전에 조국
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랬었다. 사실 그것은 쉽게 내린 결심이 아니
였다.

왜놈망나니들한테 되게 속이 놀란 딸 룡실이
가 그후 자꾸만 이사를 가자고 조를 때마다 시환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되새겨보며 생각이 깊었었
다.

(나도 그때 이 저주로운 왜놈의 땅에 단 하루
도 더는 살고싶지 않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향
에 가자고 졸랐었지. 그러나 그때 아버지께겐 날
데리고 갈곳이 없었다. 조국을 빼앗겨 고향마저
빼앗긴 식민지망국노였던 아버지, 해방의 기쁨
을 안고 고향섬을 찾아갔었던만 끝끝내 그 고향
을 떠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아버지... 아버지는
한생토록 자기를 품어주고 보살펴줄 진정한 고향
향을, 조국을 찾아 몸부림쳤건만 끝내 그토록 가

고싶어했던 고향섬에 유골마저 묻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고향이, 조국이 있다.

김일성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저 공화국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내 자식들이 안겨살 참다운 내 고향, 진정한 내 조국이 아니겠는가?!

고향이란 뭔가? 사람에게 고향이란 어딘가? 단순히 나서자란 곳인가?

아니다. 인간본연의 권리,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고향인 것이다.

보내자. 그리고 나도 가자!

가되... 애들만 먼저 보내고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참다운 삶의 권리를 안겨준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좀더 일을 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기자!

그렇게 되어 룡철이와 룡실이 먼저 조국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아이, 저기 어머님도 나오셨군요!》

안해의 맑은 목소리에 시환은 고개를 들었다.

가슴앞에 차그마한 흰 나무함을 드리운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정하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 나무함속엔 아버지와 시운형님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우도를 아주 떠나올 때 어머니는 맏아들을 홀로 두고갈 수 없다면서 손자에 룡철이와 함께 그 애 아버지 유골을 파가지고 왔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의 유골과 함께 안고 귀국의 길에 오를 것이었다.

이제 한을 품고 세상을 하직한 저 유골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고향땅에 묻어줄 날은 과연 언제 일것인가?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시환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참다운 귀향의 길을 앞당기기 위하여...

뿡- 배고동소리가 기운차게 울렸다.

거대한 산악같은 《만경봉》호는 파도를 헤가르며 북쪽을 향해 점점 속도를 높였다. 사방 어둠에 묻힌 밤이지만 시환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시환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섬 우도가 있는 쪽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잘 있느냐, 고향섬 우도야! 내 기어이 너를 다시 찾아가마. 그날이... 그날이 멀지 않았다!

뿡- 배고동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그가 떠나온 고향섬 우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배가 그리로 가고 있다고 시환은 믿었다. 아버지와 시운형님도 함께...

조국은 말했네

(총련) 김신현

찬바람 헤쳐 파도를 헤쳐
저 멀리 바라보이는 조국으로
달린다, 달린다 우리 《만경봉-92》호
드디어 달았네 우리 《만경봉-92》호
원산항부두에

그립던 조국
그립던 땅에
첫발을 딛는 순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 구호가 우리 걸음 멈춰세웠네

평양으로 가는 길
빠스타고 마식령고개 넘을 때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 목소리가
우리를 맞아주었네

길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환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모내는 들판의 농장원들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 구호가 선 눈썹에서 모자를 휘저었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보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는 조국
조국의 걸음을 우리는 보았네

우리는 알았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험한 길을 걸어도
웃으며 가야 한다는 것을

조국은 말했네
가는 앞길 험난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웃으며 가라고
웃으며 가면 승리라
최후의 승리가 축복해준다고

그립던 조국
그립던 땅에
첫발을 딛는 순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 구호가 우리를 맞아주었네
이 구호가 우리 받은 첫인사였네

(조선대학교 문학부)

소나무무늬 상감자기

강귀미

력사박물관에 들어서는것은 어찌보면 사색의 문안으로 들어서는것인듯도 하다. 고대로부터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유적유물들사이를 걷는다면 공기조차도 먼 옛시절의것으로 느껴져 여러가지 상념을 불러일으킨다.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가. 여러가지 무늬와 형태의 저 질그릇이며 도자기들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가. 그것이 먼 후날에 력사유물이 되어 길이 전해질 인류의 재보로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었을가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력사박물관에 들어선 나의 상념은 중세도 근세도 아닌 불과 20~30년전에서 머물러 떠날수 없었다.

그것은 어느 한 진렬장에 있는 상감수법으로 소나무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꽃병-고려청자기 때문이었다.

우리 조국의 높고 푸른 가을하늘과 같이 깨끗하고 은은한 비색의 바탕에 새겨진 소나무무늬.

《12세기중엽의 고려청자기(소나무무늬 상감자기) 애국동포 조달근기증》...

나는 도자기 전문가도 애호가도 아니였으나 그 앞을 떠날수 없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새로 전시되였다는 그 고려청자기를 나는 두번째로 보게 된다는것, 더욱 놀랍게는 그 고려청자기를 사회주의조국에 기증한 애국동포 조달근이도 내가 알고있는 사람이라는때문이었다.

소나무무늬 고려청자기, 조달근...

×

나는 사회주의조국으로 귀국하기전까지 일본의 효고현 고베에서 살았다.

조달근도 바로 그곳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 근처였다.

우리는 그를 이름으로보다 별명으로 더 잘 알고있었는데 그의 별명인즉은 《각쟁이조령감》이었다. 그 린근에서는 조달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각쟁이조령감》이라면 일본사람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어떤 축들은 그를 《고리오령감》이라고까지 불렀다.

조달근령감은 어깨가 짝 버그러지고 세모진 작은 눈과 반백이 된 교수머리가 톡톡치 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고베 나가다구의 오오하시라는 다리옆에 맞붙은 판자집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음식점이름은 간판에 조선글로 씌여져있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도야지》라고 하였다. 그래서 《도야지》음식점이라고들 불렀는데 판자집거리의 맨 첫집이었다.

땅값이 하도 비싸서 다리에 지탱하여 《2층집》을 판자로 대강 지어놓은 《도야지》음식점의 지상은 손님칸이요, 지하는 살림칸이었다. 땅위로 솟구쳐있는 손님칸에는 햇빛이 비쳐들었지만 지하인 살림칸에서는 일년내내 햇빛구경을 할수 없었다.

이처럼 초라한 음식점이었건만 생각외로 항상 손님들로 흥성거려 수입도 꽤 많았다.

이 음식점의 요리가지수는 한가지뿐이었다. 이름처럼 폭 삶은 돼지고기를 알뜰하게 썰어담은 접시를 초장과 함께 가져다주었다. 술은 탁주와 소주, 정주 등 청하는대로 있었다. 그런데 《각쟁이령감》이라는 별명에 비하면 식탁에 오르는 접시에는 언제나 돼지고기가 제법 무독히 담겨있어 손님들을 흐뭇하게 하였다. 조령감은 그것으로 보면 별명과는 달리 청렴한 사람인듯했다. 아마 이 점이 여기 음식점으로 손님들을 이끌었던것 같다.

또한 《도야지》음식점은 초장맛이 각별하여서 손님들을 끌었다. 맵고 달콤하고 새콤한가 하면 마늘, 파 냄새가 향긋한데다 깨가루가 다문다문 박혀져 그 맛은 어쨌든 별맛이었다.

다리위로 지나가는 덜커덩, 덜커덩거리는 전차 소리는 소란스러워도 《도야지》음식점에서 돼지고기를 초장에 찍어먹으며 한잔하는 기분은 이루 말할수 없었던듯싶었다.

그러기에 지난날에는 마늘냄새라면 십리밖으로 달아나던 일본사람들까지도 그 초장맛에 혹해서 많이 찾아오곤하였다.

《조상, 이 초장맛은 죽여주는구만. 조선사람들의 입맛은 묘하단 말이요.》

어지간히 취기가 돈 일본사람인 단골손님의 말이였다.

그럴 때면 조령감은 대답대신 세모진 눈을 가느스름하게 찌프려 눈웃음을 짓곤했다.

사실 그 초장의 묘리는 조령감의 안사람인 강씨만이 알고있었다.

그러면 조령감에게 왜 각쟁이라는 별명이 붙었

는가 하는것이다.

그는 새벽마다 도살장에 가서 돼지고기를 넘쳐 반군했다. 그럴 때면 주인측과 끝날줄 모르는 싱갱이질을 벌린다.

《조포 마깨떼구레. (좀 값을 낮추어주소.)》

주인측은 물론 안된다고 딱 잡아편다.

한동안 싱갱이질을 하다가 주인측이 좀 늦게 해줄 때에는 조령감입가에 느슨한 웃음이 피어나지만 그냥 꺾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입에서 《빌어먹을 왜놈새끼!》 하고 조선말옥이 마구 튀어나간다. 조선말을 모르는 주인은 눈만 꺾어버리지만 그것은 조령감의 알바가 아니다.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조령감은 물러서지 않는데 나중에는 고기가 그사이 생긴한 맛을 잃었기에 값을 깎아야 한다고 들이댄다. 아마 조령감이 한푼이라도 깎지 안고 가져온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을것이다.

그래서 돼지도살장에서부터 그는 《깍쟁이령감》으로 소문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깍쟁이령감》의 별명은 그 이유에서만이 아니었다.

《저 령감 번 돈은 어디에다 쑤서박고 살림이 저 모양이야?》

사람들의 뒤소리는 근거없는 소리가 아니었다.

조령감네 지하의 살림방에는 새것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방갈래는 다 낡아빠져 모서리를 감싼 천들이 닳아 버짚까지 군데군데 드러나있었다. 또한 가구라고는 거무칙칙한 양복장밖에 없고 그나마 손잡이 하나는 떨어져나가 강씨는 옷을 한번 찾을 때마다 문짝을 여느라고 애틀 먹군했다. 방안에는 벽시계 하나가 똑딱거렸는데 어느 년도에 생산된것인지 모르는 낡은 시계였다. 조령감이 전당포에서 주인도 찾아가지 않고 사가는 사람도 없어 굴러다니던것을 아주 헐값으로 사온것이였다. 그 시계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1시간 앞당겨 종을 치는 버릇이 있었다. 그 덕에 조령감은 새벽 5시면 여섯번 치는 종소리를 듣고 남먼저 일어나 하루 작업준비를 했다. 그래서 조령감은 그 시계를 끔찍이 여기고 시계가 죽을세라 제때에 태엽을 주기때문에 사온 때로부터 한번도 댄은적이 없었다.

조령감의 마누라인 강씨는 천성이 순해서 령감 말에는 무조건 복종밖에 몰랐다. 령감이 무섭게 깍쟁이를 부려도 강씨의 유순한 눈에는 언제 한번 불평의 빛이 비낀적이 없었고 두툼한 입술은 항시 다물어져있었다. 새각시때에는 달덩이 같다고들 했었지만 고달픈 이국살이에 속절없이 곱슬어보이는 녀인이였다. 그러다가 《도야지》 음식점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수건을 머리에 푹 쓰고 지하의 부뚜막에만 들어박혀 말없이 돼지고기를 삶아내고 소문난 초장을 만드는데 전념해버렸다.

조령감에게는 세남매의 자식들이 있었다.

아들은 수범, 딸딸은 숙희, 막내는 덕희.

《영자》, 《순자》... 와 같은 일본식 이름과는 달리 순 조선식이름이였다.

손님칸의 접대는 딸딸 숙희가 도맡아했다. 숙희는 어머니를 닮아 얼굴이 해맑고 곱살하였으나 어딘지 아버지를 닮은데도 있어 머리칼이 곱슬 곱슬한게 무척 이악했다. 몸매는 늘씬하고 나무랄데 없었다. 숙희는 그래서인지 류행복에 대하여 상당히 신경을 썼다. 류행복을 요란하게 차려입고 이따금 찾아오는 동무들을 보면 그의 마음은 봉-뜨군했다.

어느날 저녁, 숙희는 일을 끝내고 돈계산을 하고있는 아버지의 등뒤로 다가가 목을 그리안으며 응석부리듯 졸랐다.

《아버지, 그 돈에서 몇장만 좀 주세요. 요즘에 짧은 치마가 류행이래요. 나도 입고싶어요.》

그러나 조령감은 돈을 녹쓴 자그마한 철계에 넣고 자물쇠를 채운 다음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길게 입었다, 짧게 입었다 도섭도 많다. 그 도섭에 어떻게 다 따라가겠니. 길지도 않게, 짧지도 않게 적당한 길이로 입어라. 그게 더 좋으니라.》

그후부터 숙희는 류행복과는 아예 담을 쌓고 언제나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칸에서만 맴돌았다.

그는 돼지고기를 얹게 맵시있게 저며내는 재간이 있어서 조령감을 기쁘게 하였고 그 일을 맡아하였다.

막내딸 덕희는 조령감의 귀염둥이였다. 덕희는 날씬한 언니와는 달리 몸이 통통하고 복스럽게 생겼다.

나는 그와 같은반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그의 집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조령감은 막내동이 덕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만큼 귀여워했고 사랑했다. 그러나 돈문제에 들어서는 덕희 역시 레외가 되지 않았다.

졸업을 앞두고 우리가 시고꾸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였다.

조령감은 딸에게 용돈으로 5백엔밖에 주지 않았다.

《어머닌 글썽 좀더 주었으면 하는데 아버진 들은척도 않고 <그거면 된다!> 하고 딱 자르는게 아니겠니.》라고 덕희는 나에게 말했었다.

그러다보니 덕희는 심드렁해서 집을 나섰고 3일후 수학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의 인상도 말이 아니였다.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덕희는 어푸러져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울었다고 한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나무로 짠 인형이 하나 쥐여져있었다.

눈물에 흠뻑 젖은 얼굴을 들고 덕희는 항의하듯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너무해요. 다른 동무들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느라고 법석대는데 나는 이 쪼꼬마한 인형밖에 못샀어요.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강씨는 호-하고 한숨을 쉬었다.

하루 판매금을 회계해보느라고 주산알을 텅기고있던 조령감은 안경너머로 그런 딸을 넋지시 바라보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집에는 그따위 인형이나 선물이 필요없다. 그저 앉지 않고 갔다왔으니 됐다.》였다. 그리고는 시무룩해있는 딸애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것으로 그쳤다.

아들 수범은 자그마한 철공소에서 몇년째 일하고있었다.

그도 이제는 나이가 스물여덟이어서 사랑하는 처녀가 생긴 눈치였다. 강씨가 빨래를 하려고 옷을 주머니를 뒤지는데 처녀의 사진이 나왔던것이다. 가운데 가리마를 끈게 탄 청초하고 얌전한 모습은 대번에 강씨의 마음에 흠뻑 들었다.

그러나 이 일은 맹랑하게 되어버렸다. 처녀의 어머니가 총각쪽을 두루 알아보다가 그집 아버지가 《각쟁이령감》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것이였다.

《딸을 고이 길러 그런 집에 시집을 보냈다가 굶겨죽이겠다.》

이렇게 되어 그들의 사랑은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그후부터 수범은 얼굴이 꺼매서 다녔다.

이 일을 알게 된 강씨는 시집와서 처음으로령감에게 대들었다.

《당신은 번 돈을 손톱에 끼웠다가 <저승>에 가지고 가실려우?》

그러나 조령감은 혼연히 대답했다.

《돈보고 딸을 시집보내려는 그런 집은 나도 싫소.》

아들의 혼사문제는 이렇게 락착짓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지만 총각처녀는 견우직녀처럼 서로 잊지 못해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조령감이 그렇게 《각쟁이령감》이면서도 상상외로 총련분회일에는 열성인것이였다.

이따금 벌어지는 시위투쟁에 그는 항상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그런 날이면 《도야지》음식점의 문을 닫아매고 《미군철수》, 《조국통일》이라고 쓴 머리띠를 머리에 질끈 동이고 대렬의 앞장에서 걸어갔다. 피약벌이 쟁글쟁글 내려쪼이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목이 쉬도록 구호를 크게 웨치는 사람이 다름아닌 조달군령감이였다.

대렬뒤에서 동포들은 저마다 수군거렸다.

《저걸 보우. 어디 돈밖에 모르는 사람갈소?

얼마나 장해보이오.》

《그러게말이지. 속은 트인 령감이요.》

그러나 그 칭찬은 며칠후에 완전히 뒤집어져버렸으니 총련분회에서 조직한 분회사업을 위한 일을 외면해버린때문이였다.

《난 요즘 영업이 시원치 않아서... 그리 알아주슈.》

홍성거리는 음식점을 두고 영업이 시원치 않다고 발뺌을 하는데는 모두들 아연해져서 아무말도 못했다. 그후에 자금을 뭉는 사업이 있을 때도 같았다. 마침내는 그럴 때마다 《도야지》음식점에는 들리지 않게 쫓까지 되었다. 그러나 조령감은 돈을 내는 사업을 제외한 다른 분회사업에서는 빠지는적이 없었고 열성적이였다. 그러니 《각쟁이조령감》으로 소문이 날수밖에 없었다.

덕희가 한번은 동무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꼴하게 갖추어 진 가구들과 골동품들을 보고와서 조령감에게 우리 집에도 그런걸 한가지라도 사놓자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조령감은 《뭐? 이게 어떻게 한푼한푼 번 돈이라고 그런데 쓴다는거냐? 쓸개빠진놈들이나 그따위것에 돈을 쓰래라!》하고 꺾 소리지르더라는것이였다. 그리고보면 그는 가정안에서나 가정밖에서나 조금도 다를바없는 《각쟁이조령감》이였다...

그런데 조령감이 생명처럼 여기던 돈케가 텅빈 철함이 되어 나딩구는 《비상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내가 사회주의조국으로 귀국하기 며칠 전이였다.

그때 우리 집은 귀국신청을 내고 승인을 기다리고있었다.

거리에 나갔던 나는 사색이 되어 달려오는 덕희와 마주쳤다.

《큰일났어! 우리 집이 도, 도적맞았어!》

《뭐?!》

《돈케를 다 털어갔어!》

나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달려가보았다.

사실이였다.

언제나 깊숙이 어디엔가에 감추어두곤하였을 돈케가 방바닥에 덩실하게 놓여있었다. 돈케의 자물쇠구멍에는 조령감이 제혼자만 간수하고 다녔다는 열쇠가 꽂혀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속은 텅 비여있었다.

그런데 더 큰 사고는 좀체로 집을 떠나지 않던 조령감도 없어진것이였다.

《어머니랑은 다 어데 갔니?》

《아버지 찾으러 나갔어!》

나와 덕희도 판자집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를 불러댔다. 그러나 저녁녘까지 조령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더 그러고만 있을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나는 다음날에 덕희에게서 그후의 이야기를 들었다.

퇴근한 아들까지 합쳐 네식구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듯 귀중하게 다루어졌던 철괘, 지금은 버림을 받은듯 아무렇게나 나뒹굴고있는 돈괘를 가운데 놓고 우두커니 앉아서 어쩔바를 모르고 있었다.

밤 8시가 넘었을 때 조령감이 나타났다.

그는 무엇인가 크지 않은 나무상자 하나를 신 주모시듯 소중히 안고 들어왔다.

놀라운것은 1년가야 별로 웃는 일이 없었던 조령감이 빙글빙글 웃고있는것이였다.

그렇듯 환하게 웃고있는 그의 얼굴을 처음 보는 가족들은 어안이 빙벙해졌다.

덕희가 먼저 아버지에게 울상이 되어 부르짖었다.

《아버지, 돈괘안의 돈이 몽땅 없어졌어요!》

그러나 조령감은 희색이 만연한채 《그 돈은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상자를 조심스럽게 상우에 올려놓았다,

온 식구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다.

돈을 왜 저기에 옮겨넣었을까. 아니면 무엇인가 굉장히 값진것을 사온것일까.

그들은 숨을 죽이고 초조하게 상자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조령감이 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상자안에는 별로 크지도 않은 꽃병 하나밖에 없었다.

식구들은 아연해졌다.

강씨는 《어이구 이게 뭐유?》 하고는 령감의 얼굴을 뻘히 쳐다보기만 했다.

수범이와 숙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골동품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아버지, 이건 왜 샀어요?!》

숙희는 놀란 나머지 한동안 멍청해있다가 웨치다싶이 물었다.

이제까지 녹거리골동품이라도 하나 사자면 천 길만길 뛰던 조령감이었던것이다.

그런데 7~8년동안 밤낮으로 뻘뻘하게 일하여 번 돈을 다 바쳐 골동품을 사오다니...

혹시 실성한것이 아닐까.

강씨와 수범이, 숙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조령감을 쳐다보기만 했다.

덕희만은 텅 비어버린 돈괘가 너무나 분하여 《아버지는 뭐야요?!》 하고 울먹거렸다.

그러나 조령감은 꽃병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싱글거리기만 하였다.

그러더니 이윽고 정색해서 말하는것이였다.

《내 이것을 사느라고 너희들의 허리띠까지 조

이면서 돈을 모아왔다. 이래봐도 이 꽃병은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려자기다. 이것은 골동품이 아니라 우리 조선민족의 귀중한 보물이지.

내가 이것을 사려고 마음먹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령감은 눈물이 그렇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령감의 고향은 전라도 어느 고을이였다.

그의 가정은 대대로 내려오며 도자기를 구워온 집안이였다.

그러나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내려덮이자 조령감의 할아버지는 《나라를 잃었는데 도자기는 해서 뭘하겠느냐.》라고 통탄하며 도자기를 구워내던 가마터를 부셔버렸다. 그리고 조상대대로 가보처럼 간직해오던 도자기들을 땅속에 깊이 파묻어버리고는 나라잃은 백성의 한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령감의 아버지는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든 왜놈들이 도자기를 내놓으라고 하자 선친의 뜻을 이어 단호히 거부해나섰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조선의 녀이 깃든 도자기를 단 하나도 넘겨줄수 없다!》

조각달이 쓸쓸히 걸려있는 그날밤에 그는 뒤뜰안에 묻혀있던 도자기들을 파내어 도끼로 까부셔버렸다.

《나라가 없는데 숨기면 어디다 더 숨긴단 말이냐.》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다음날, 조령감의 아버지는 경찰놈에게 잡혀갔고 그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민족수난사가 낳은 비화의 한토막이였다.

바로 이러한 가정에서 조령감은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려서부터 도자기라는 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서는듯했다.

자기 대부터는 도자기와 절대로 인연을 가지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런데 운명은 그를 다시 도자기와 이어지게 하였으니 그것은 주체44(1955)년이였다.

그때 그는 교배바닥에서 《얼음배달원》을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가정들에 전기랭장고가 아직 쓰이지 못할 때여서 《얼음랭장고》에 얼음을 팔아주는 상점이 있었고 배달원이 있었다.

조달근이 종일 얼음을 나르고나면 나중에는 하늘도 노랗게 보였다.

그가 자전거에 얼음을 싣고 잘사는 한 일본집에 갔던적이 있었다.

갈구리에 얼음 한덩이를 껴들고 대문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주인을 찾았다.

안주인인듯한 젊은 일본녀자가 나와서 말하였다.

《방으로 들어와서 랭장고에 얼음을 넣어주세요.》

위낙 굵신거리기를 싫어하는 조달근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여러 방들을 거쳐 부엌으로 들어가서 랭장고에 얼음을 넣어주었다.

그가 얼음값을 받으려고 복도에 버티고 서있는데 무엇인가 별다른것이 시야에 얼른 들어왔다.

눈여겨보니 활짝 열려진 방안의 장시벽장을 거의다 차지하고 걸려있는 가파나(왜놈 긴칼)였다.

순간 조달근은 온몸의 피가 머리우로 치솟아오르는감을 느꼈다. 그 칼이 바로 그의 가정을 란도질해버린 칼처럼만 보였다.

(왜놈의 칼!)

그러나 그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지 못한 안주인은 조달근이 가파나에 매혹된줄 알고 코등으로 미끄러져내려오는 안경을 손으로 추켜올리며 신이 나서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았다.

《저 가파나가 참 훌륭하지요? 우리 사무라이가 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예요. 요즘은 이 주변에서는 물론이고 다른곳에 가도 이런 칼을 구경하지 못할거예요.》

그러나 그때 조달근은 이미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길은 긴칼밑에 웅송그리고있는 듯한 꽃병에 쏠려있었던것이다. 크지 않은 꽃병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조로운 하얀색 왜자기가 아니었다. 비색이 명롱한 독특한 무늬의 꽃병, 고려자기였다. 틀림없는 고려청자기였다.

조달근은 저도 모르게 장식장앞으로 다가가 고려청자기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다사한 안주인은 더 신이 나서 말하였다.

《그것은 유명한 조선의 고려청자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반도에서 경찰을 할적에 손에 넣은거랍니다. 참 좋지요?》

조달근의 두눈에서는 불이 황황 일었다. 조선사람의 피가 얼마나 들었을지 모르는 가파나밑에 웅송그리고있는 듯한 고려청자기...

아무리 자랑해도 한마디의 반응도 없는데 제깎에 싱겨워진 안주인이 입을 다물어버리고 얼음값을 치르었을 때야 그는 장식장앞에서 물러났다.

그 집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오는 조달근의 심리는 복잡하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어느덧 자신의 지나온 인생행로가 삼삼히 떠올랐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강제징용으로 혹가이도의 탄광에 끌려갔었고 그곳에서 고역에 시달리다못해 몇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죽음의 고역장에도 백두산바람이 불어왔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쳐부신다는 소식은 조달근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살아야 한다. 살아도 억세게 살아가야 한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도 보고 왜놈들이 망하는 꼴도 꼭 보아야 한다.)

드디어 조국은 해방되었다.

조국해방의 소식을 들은 그날 조달근은 그 감격이 너무도 커서 온종일 울며 웃었고 웃으며 울었다.

눈을 감지 못한채 땅속에 묻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역땅 이름없는 탄광 오소리굴에 파묻힐번한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주신 분, 그이는 바로 민족의 영웅,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하여 그는 총련이 조직되었을 때 선참으로 들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으로 일본땅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가고있다.

그런데 아직도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여있는 고려청자기가 왜놈의 가파나밑에서 골동품으로, 장식품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조달근에게는 그 고려청자기가 자기에게 왜놈의 가파나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듯했다.

며칠동안 그의 머리속에서는 도자기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드디어 어느 하루 그는 일을 끝내고 그 일본집에 찾아가 바깥주인을 만났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 도자기를 나에게 파시오.》

흰바탕에 얼룩얼룩한 무늬가 난 유까다(일본의 여름 민족옷)를 입고 상앞에 앉아 차를 훌쩍훌쩍 마시던 주인이 조달근을 어처구니없는듯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비웃는 투로 말했다.

《얼음이나 날라다주는 당신이 저 비싼 도자기를 엄두나 낼수 있겠소?》

조달근은 그를 마주 쏘아보며 《값이 얼마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열손가락을 짝 펴보이었다.

《하구만엔(100만엔)!》

어떤 골동품수집가가 진귀한 도자기앞에서 가격을 물어보았다가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입을 하-벌렸다는 값이었다.

그때 당시로서는 100만엔이라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다.

(남의 나라 보물을 훔쳐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

아먹겠다는거지? 좋다, 내 기어코, 설사 천만엔이라도 해도 저 도자기를 되찾으리라.)

조달근은 그 주인놈에게 오금박듯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나는 조선사람이요. 그러니 저 도자기는 반드시 내가 사야겠소. 돈이 마련되는 즉시로 올테니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팔지 말아야겠소. 약속할수 있소?》

그의 말이 하도 위압적이어서 주인놈은 조달근을 쳐다보기만 하다가 마침내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해가 뉘엿뉘엿 질무렵 왜놈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조달근의 마음은 후련하였다.

민족의 재능과 슬기가 깃든 고려청자기를 벌써 자기 가슴에 안고있는 심정이었다.

그후 그는 얼음배달원을 그만두고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도야지》라는 자그마한 음식점을 차렸다. 그리고 한푼두푼 돈을 모으기에 전념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그 왜놈집에 고려자기가 그냥 있는지 알아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가면서 친지들과 가족들, 이웃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는 한푼두푼 쌓여 백만엔으로 가까와가는 돈에서 기쁨을 느꼈고 즐거움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날 습관처럼 그 왜놈의 집에 들렀던 그는 깜짝 놀랄 소식에 접하였다.

왜놈이 주식투기에 전 재산을 밀어넣었다가 주가의 폭락으로 완전히 파산되어 빈털털이가 되었고 집과 재산을 경매에 붙이게 되었다는 소식이였다.

그렇게 되면 고려자기도 팔려가게 될것이였다.

조달근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다. 돈궜을 다 털었으나 80만엔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여기저기를 다니며 겨우 20만엔을 변통하여 백만엔을 채웠다.

이렇게 그는 자기 집의 돈 전부에다 20만엔의 빚까지 내여서 고려자기를 자기 손에 넣었다.

그의 재산정도를 알고있는 주위의 일본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정신이 돈것 같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달근은 기쁘기만 하였다.

무엇보다도 왜놈의 가파나마일에 웅송그리고 놓여있던 고려자기를 《해방》시킨것이 기뻐다.

그 환희에 휩싸여 도자기가 깨여질세라 소중히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조령감이였다...

이 사연을 들은 강씨는 남편 조령감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비싼것이어서 앞으로의 살림을 생각하고 한숨을 지었다. 자식들 또한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

동은 되었지만 역시 엄청나게 비싼값이고 빚까지 졌다는데에 어두운 낯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조령감이 너무도 기뻐하는것이어서 누구도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

이날밤, 조령감은 고려자기를 앞에 놓고 술을 한잔두잔 마시면서 줄곧 웃었으며 《옹헤야》 흥타령까지 불렀다 한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조령감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나친 흥분과 감정변화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준상싶다. 조령감은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밤새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조문을 갔었다. 그때 나는 조령감의 집재산전부에 빚까지 내여 사왔다는 고려자기를 보았다. 소나무무늬의 상감자기였다.

은은하고 깨끗한 비색의 자기는 왜서인지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눈물을 자아냈다.

그것은 꽃병의 아름다움에서보다 저세상사람이 된 조령감의 모습과 돈없이 사는 못사는 세상에서 빚만 안고 나갔은 그 집 식구들의 가궁한 처지를 생각하는데서 오는 아픔이였고 눈물이였다.

저 크지 않은 꽃병에 왜 조령감은 자기 집의 모든것과 고통스러운 래일(빚진 생활이란 고달픈 것이다.)까지 바쳤을가...

그때 나는 그것을 이해할수 없었다.

며칠후 우리 가정은 니이가다로 떠났고 뒤이어 귀국선에 올랐다.

우리가 조령감의 집에 대하여 들은 마지막소식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것을 알게 되자 빚반이군과 골동품수집가, 골동품장사군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고려자기가 12세기경의 진품이라는것이 판명되어 수집가들과 장사군들이 부르는 가격이 150만엔으로까지 올랐다는것이였다.

(그러면 덕희네는 빚도 물고 생활도 괜찮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나는 그때 생각하였다.

그후 나는 사회주의조국에 와서도 때때로 조령감과 도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것은 우리 사회주의조국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국보로 취급하는가를 알게 된때문이였다.

그때야야 나는 조령감이 왜 전재산을 다 기울이고 빚까지 내여 그 고려청자기를 사들였는지를 이해하게 되였다. 그리고 조령감이 만일 유언을 남길수 있었다라면 그 도자기를 인간의 존엄을 지닌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준 사회주의조국에 기증하라고 하였으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는 망국노의 슬픔을 가장 뼈아프게 체험한

재일동포 1세였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인 수범이, 숙희, 덕희 그들은 2세들이었다.

황금만능의 세상, 음으로 양으로 민족동화정책이 가해지는 일본땅에서 그들이 과연 1세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나갈수 있었을까.

텅 빈 돈궤와 빗문서, 그 옆에 놓인 고가의 고려자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유혹이 아닐까. 돈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일본땅에서...

하여 나는 때때로 조령감의 온 심혼이 깃든 소나무무늬의 상감자기, 고려청자기가 지금은 어느 부유한 일본인의 집을 장식하고있을까 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곤하였었다....

그런데 그 소나무무늬의 상감자기-고려청자기가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의 력사박물관 진렬장안에 놓여있는것이 아닌가.

《애국동포 조달근기증》

나는 이것이 조령감의 자식들인 수범이, 숙희, 덕희가 아니면 그들의 자식들에 의해 조국에 오게 되었으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았다.

그때 해설원의 목소리가 나의 귀속으로 흘러들었다.

《이 고려청자기는 애국동포 조달근의 손자 조창준동포가 이번에 조국방문단으로 오면서 가지고와 조국에 기증한것입니다.》

《!...》

아, 그들은 돈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이국땅에서 온갖 가난과 수모를 씹어삼키면서도 1세의 애국의 녀이 깃든 이 고려청자기를 곳곳이 지켜냈고 기어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게 하였구나! 한갓 골동품이 아니라 민족의 재부로 되게 하였구나!

진렬대에 놓인 자그마한 꽃병, 크지는 않으나 여기에는 먼 이국땅에서 온갖 풍파속에서도 우리 민족-**김일성**민족의 민족성과 주체성을 곳곳이 지켜나가고있는 해외동포 2세, 3세들의 당당한 모습이 어려있었다!

나는 조령감의 손자를 어서 만나보고싶어 조국방문단성원들이 묵고있다는-《고려호텔》로 향했다.

그 마음 고마워

(총련)김윤호

내 바다넘어 이국땅에 살면서
멀리 집을 떠나 맞는 생일도 많았더라

그럴 때면
생일을 잊고 홀로 밤을 지새운 일도
한두번이 아니 었거니

아니면
문득 생각이 나서
주막집의 문을 두드린 일도 수했어라

그러나 내 나라, 내 조국은
어찌면 이리도 다심한가
내 시를 짓느라고 펜을 다그치던
이른아침
꽃다발을 안고
내가 든 숙소에 찾아온
관리원아주머니들
의아해하는 나를 보고
오늘이 내 생일이라네

꽃다발을 안겨주고
생일을 축하하는
그들을 마주볼수 없었네
눈물이 고여 눈물이 고여
자기의 생일처럼 기뻐해주는
그들의 마음이 고마워

이제는 칠순고개를 바라보는
늙은이의 적은 눈물이
꽃잎을 적시고
조국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
고맙다는 인사 하나 못했거니

그 꽃다발 그리 크지는 못해도
그 마음 꽃보다도 아름답더라
나는 그날밤
그윽한 꽃향기속에서
좋은 잠, 좋은 꿈
조국의 꽃마음을 꿈꾸었다네

영원히 나는 그 품에

- 김인서로인을 대신하여 -

진춘근

내 딸들아
나는 지금
울고있다
웃고있다
한장 신문에 실려온
너희들의 편지를 보며

40년세월을 넘어 날아 온
너희들의 어릴적 그 목소리가
이 가슴 울려서만 아니다
그처럼 못내 그리던 고향소식
어머님소식때문만이 아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두고
그리도 애써오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
오늘은 또다시 너희들과 함께
위문단과 의료단까지 보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 은정에 젖어드는 이 마음

기쁨에 끓는 이 눈물이나
행복에 넘치는 이 웃음이다
한일없이 옥중에서
백발이 된 이 몸을
조국의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믿음 너무도 뜨거워

불판우에 올라서서도 한 겨울의 얼음우에서도

교훈시

오히려 굳세지고 억세여지던 이 마음
고문과 전향의 총칼도 이기던 심장이
한순간에 녹아 눈물을 못이어나니
크나큰 그 사랑에 목메어나니

오, 그 사랑 안고 그려본다
애타게 나를 부르다 눈감으신
내 어머니의 넓이
이 아들을 안아주시려 다가서는 그 모습을
꿈에도 못잊는 너희 어머니와 너희들 앞세우고
내게로 다가서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민족의 원쑤
극악한 반동들이 그 모든것 가로막아도
내 설사 너희를 만나는 날도
통일의 그날도 보지 못한채 쓰러진대도
그렇게는 생각지 말아다오
어딘지 모를곳에 외로이 누워있다고...
환희의 대오에 내 자리 비어있다고...

살아온 80평생처럼
여생의 나날도 그이의 사랑을 지켜
나는 언제나 흔들릴줄 모르리
량심과 의리를 지킨 삶
신념과 의지로 이어온 생명
나는 벌써 그이의 품에 안겼단다
나는 영원히 그이를 높이 모실
통일된 삼천리에 너희들과 함께 살고있단다

부모와 자식

량덕모

부모는 자식의 원예사
자식은 그앞의 파일나무

×

아픈 때로 키운 자식 효자되여도
곱게만 키운 자식 불효자된다

×

잔소리같은 부모의 말도

자식의 운명엔 보약

×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자식
나라의 대들보에 칼을 박는다

×

영웅을 키운 부모 역시 영웅이고
역적을 키운 부모 역시 역적이다

노래가 준 걸음

정영종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된지 얼마 안되는터여서 나의 친한 동무들은 거개가 군인들속에 있다. 그래서 여가가 생기면 그네들에게 먼저 달려가게 된다. 그것은 거의 명절같이 들뜨고 행복스러우면서도 애석에 가까운 야릇한 심정에 이끌리는 걸음이기도 하다.

며칠전 저녁에도 그런 기회가 생겨 내가 복무하던 군부대 예술선진대 작곡가인 박동무네 집을 찾아갔었다. 크지 않은 체격에 얼굴 역시 갱뿔하여 외양은 별로 볼나윈 없지만 음악이라면 온몸을 성냥처럼 확 태우는 친구이다. 아마 내가 나타나면 《왜, 또 옛집생활에 그리워 좀이 쑤시던게지.》하며 능청스레 빙글거릴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내 대답도 늘 준비되어있다.

《천만에, 자매예술의 새 성과를 공개할게 없다면 난 즉시 돌아가겠네. 바쁘니까.》

이쯤되면 매번 내가 그에게 못이기는체하며 끌려들어가는것으로 일이 락착을 보군한다. 대단한 열독자이기도 한 그가 문학세계의 동향보고를 놓칠리 만무였으니가.

그런데... 그 전례가 완전히 뒤집혔다. 내가 문지방도 미처 못넘고 쫓겨난것이였다.

《가주게, 제발! 오늘은 날 방해말라구. 후에... 후에 봅세!》

내쪽은 보지도 않고 책상가득 널린 오선지들을 벌컥거리며 짜증조로 내뱉은 그의 첫말이였다. 군인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하여 부대에서는 세계 《마라손너왕》인 정성옥영웅을 초청했는데 오늘밤중으로 축하공연편곡을 끝내야 한다는것이였다.

예상외의 푸대접에 몹시 노여웠던 나는 오선지에 씌여진 《환영한다 정성옥》이라는 가요제목을 띄여보고는 그만 기막힌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잘하누만, 잘해. 새로 작곡하는것도 아니고 온 나라를 들었다놓은 노래를 그대로 옮겨놓는것때문에 콩콩 갑자르다니. 그러고도 뭐 작곡가동지?!》

심술긋은 내 비양이 편치 않은 그의 심사를 덧드린 모양이였다. 그는 얼굴이 벌개서 벌컥 화를 냈다.

《자네도 그 소린가? 내 아까 성악지도원이 빨리 합관하자고 보채길래 통을 났네만 생각들이 얼빠하단 말야. 그래 정성옥선수가 돌아온지 언젠데 그따위 무책임한 소릴 해. 응? 지금 온 나

라가 어떤 걸음을 하고있는지 정말 모르겠나. 못보고있나말일세?!》

언제 움켜쥐였는지 모를 오선지를 내 코앞에다 위태롭게 흔들어대며 소리지르는 그의 거동에 나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덩돌해진 내 눈에서 자기의 본격이 좀 지나쳤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그는 이마를 찌프리며 군기침을 깃었다. 그러면서도 말은 여전히 언짢게 했다.

《자네 군복을 벗더니만 감각이 무더졌군. 그래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한 마라손선수에게 그를 환영하는 노래까지 안겨주신걸 자넨 어떻게 생각했나?》

《그야... 류례가 드문 은정이고 특정한 축복이지.》

《그게 단가?》

《?!...》

그는 비웃듯 나를 흘겨보며 손을 뺄 내리그었다.

《한심하군. 이보라구. 이 노랜 그저 단순한 환영가가 아니야. 처음엔 물론 그랬지. 하지만 지금에 와선 이 노래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새로운 리듬, 새로운 속도를 가진 전투적호소로 울리기 시작했네!》

나는 놀랍게 그를 마주보았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어떤 흥분이 온몸을 서서히 휘감기 시작했다.

노래란 불리울것을 전제로 짓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라고 강요할수는 없다. 오직 사람들의 사상정신적지향이며 미적정서에 공감과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만이 긴 생명력을 지닌 심장의 선물로 남아 두고두고 울리는 법이다.

하다면 제7차 세계록상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기상, 투지를 과시한 정성옥선수에게 바쳐진 노래는?... 강산을 뒤흔든 뜨거운 환영의 메아리로만 그 울림이 그쳤던가? 아니다!

나의 머리속에는 편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 한구절이 우렁이 떠올랐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노래에 떠받들려왔고 노래속에 승리해온 우리 혁명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중시하시며 우리들을 노래의 재부를 마음껏 누리는 인민으로 되게 해주셨다.

하여 우리에게는 노래가 많다. 조국과 혁명의 참의미를 깨우쳐주는, 신념과 투쟁의기를 버려주는, 생활과 인생, 미래를 아름답게 보게 해주는…

언젠가 저 박동무가 작곡가를 희망하게 된데 대하여 이런 말로 표현한것도 그런 의미에서일것이다.

《병사에겐 2대무기가 있네. 그 하나는 총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이지.》

이제는 가요 《환영한다 정성옥》을 위대한 장군님의 《류레가 드문 은정이고 특정한 축복》으로만 단순히 생각한 나를 저 성급한 친구가 비웃은 리유도, 그 노래에서 어떤 새로운 리듬과 속도를 포착하려고 모태기는 그의 고심도 리해되었다.

돌이켜보면 준엄하고 시련 많았던 우리 혁명의 행로에는 매 시대마다 자기의 엄숙한 과제가 있었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인 투사의 전형-기수들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들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 담아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주시었다.

30년대의 기수는 수령결사옹위의 화신 오중흙7련대장이었다. 그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노래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의 장중하고 격동적인 선율속에 살아 우리들에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인 혁명의 수뇌부를 성세되어 지키라고 불같이 호소하고있다.

50년대의 기수는 육탄영웅의 전형 리수복이다. 그는 오늘도 《영웅의 그 나이 열여덟이였네》의 은은하고 비장한 선율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바치는것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라고 속삭여주고있다.

하다면 20세기를 총화하는 력사적인, 시각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로 더욱 빛내여주신 정성옥영웅은?!…

나의 마음속에서는 절로 그 노래선율이 친근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장군님 그리며 달려온
장하다 우리의 정성옥

민족의 장한 딸은 그렇게 달렸었다. 원썬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을 이끌고 인민을 이끄시여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진군길을 열어나가는 아버지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러 그리며 충효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은 정성옥, 장군님의 강철의 담력과 배짱에서 산악같은 힘을 얻고 장군님의 억척같은 걸음에 심장의 박동도 보폭도 맞추어 승리의 결승테프를 끊은 정성옥!

박동무의 말이 옳았다. 우리 조선의 장한 딸 정성옥영웅에 대한 찬탄과 축하의 우렁찬 환호는 이제는 잦아들었다. 허나 심장들이 대신 더 높이 웨치기 시작했다.

내가 아침에 옥류교에서 목격한 한 어린애의 행동이 그것이라. 출근길에 오른 어머니의 손목을 꼭 잡은채 한뼘밖에 안될 양증스런 다리로 걸음길을 쿵쿵 울리며 《장하다 정성옥! 마라손녀왕…》 하며 달음박질하던 그애, 어머니의 걸음이 자기의 뽀박질보다 늦는다며 《씨-엄마, 빨리 빨리요!-》 하고 보채던 투정어린 랑랑한 목소리…그 모습에 지나치던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에 병싹병싹 웃음꽃을 피웠었지. 자기들의 걸음 역시 절로 빨라진다는것을 흐뭇하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온 나라가 정성옥영웅의 걸음을 닮아가고있다. 그 걸음은 오늘도 최전연고지며 동해의 대공업지구머를 쉬임없이 견고걸으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마련해주시는 장군님을 삼가 우러러 그리며 따르는 걸음이어서 전에 없이 역세고 드팀없다.

그 걸음은 장군님 태워주신 준마에 높이 올라 구보로 내달리는 걸음이어서 류달리 씩씩하고 질풍같다.

그 걸음은 장군님 안아오시는 빛나는 승리의 미래를 확신하는 걸음이어서 그리도 경쾌하고 활기롭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성옥선수들이 력사적시대의 기수로 내세워 노래로 찬미해주신 그 선물의 힘이 아니겠는가.

찌르는듯한 어떤 시선을 얼굴에 감촉하고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박동무가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고있었다.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래 생각해냈나. 응?!》

《그런것 같네. 자네가 찾는 그 새로운 리듬과 속도가 내 머리속에서 울리기 시작했거든.》

나의 열띤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난 친구는 불쑥 내 어깨를 와살스레 떠밀며 부르짖었다.

《됐어! 이젠 더이상 여기서 어정거리지 말고 가주게. 사의표시는 후에… 후에 합세!》

음악가특유의 소란스러운 열정을 번뜩이는 눈빛으로 먼저 드러내며 박동무는 책상앞으로 달려가 오선지를 쭉 펼쳤다.

나는 노여움없이 후련히 웃으며 밖에 나섰다. 친구의 강권이 아니더라도 더이상 《어성거릴》 생각이 없어진 나였다. 무엇이든 하지 않고는, 그것도 이제 당장 손에 펜을 잡지 않고는 못건딜 충동이 밤길을 걷는 나의 걸음을 다급하고 흥겹게 만들고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가요 《환영한다 정성옥》의 선율에 이끌린때문일것이다.

끝나지 않은 병사시절

림병순

철산영예군인제약공장 지배인 심준섭은 보다 사색을 많이 하는 일꾼이다. 그에게는 언제나 호주머니에 넣고다니는 보풀이 인 자그마한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는 별의별 문제들이 다 적혀있었다. 현장에서 생산지휘를 한다는가 공장구내를 돌아보다가도 적고 사무실에 앉아 텔레비존을 보든가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떠오르면 걸음을 멈추고 수첩에 적어넣는것을 잊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간부의 절대적인 표징입니다.》

그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끝까지 관철해나갈 하나의 일념으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다.

그 생각들은 마치 채에 치듯 그의 사색을 거쳐 더욱 무르익혀진다. 적어놓고 사색을 오래하면 반드시 좋은 방도들이 생겨날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마지막까지 열매를 거두어들이자면 남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것을 그는 오랜 체험을 통하여 알고있었다.

공장구내가 온통 포장되어 약초건조장으로 변한것도 日주를 개발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효능 높은 약을 마음대로 생산하게 된것도 지배인의 수첩에 적혀진 생각으로부터 시작된것이였다.

오늘도 심준섭지배인은 메탄가스화공사에서 전투지휘를 하다가 물약작업반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생각이 떠올라 수첩을 꺼내들고 무엇인가 적어넣더니 현장문을 나섰다.

읍거리를 굽어보듯 우뚝 솟은 오봉산마루가 석양을 받아 온통 주홍색으로 채색되였다.

그는 잠시 정문밖을 살피다 두손으로 얼굴을 씻어내리였다. 이마가 류달리 높고 아래턱이 빠른 가름한 얼굴, 약간 깊이 박힌 두눈에는 피로가 함뿍 어리였다.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 참가하여 앞가슴에 금별메달을 달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침식을 하면서 전투지휘를 하고있었다.

그는 발그스레하게 부풀어오른 나무아지에 눈길이 미치자 다가가서 한손으로 가지를 휘여잡았다. 어느덧 잎눈이 뽕조름한것이 미구에 움이 틀모양이였다. 종업원들에게 약용식물들을 현물로 인식시키고 70리나 떨어져있는 백정보 원료기지의 제철적변화를 여기서 보고 제철에 잎을 따든가 꽃을 채집하자고 한가지씩 화단과 공장주변에 심어놓은 약용나무였다. 머지 않아 나무밑에서

는 약초들이 땅을 헤치고 머리를 솟굴것이다.

알약작업반의 출입문이 활짝 열리더니 손구력을 든 녀인들이 왁자그르 떠들면서 밖으로 밀려나와 정문으로 향하였다.

예술소조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구내에 울리면서 경쾌한 정서를 자아냈다.

심준섭지배인은 그 정서에 도취되어 구내길을 천천히 걸어가다 연구실앞의 대형유화판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리수복영웅이 적의 화구를 막는 그림이였다. 유화판을 세운지도 몇해가 지나갔다. 그러나 영웅의 녀트로 가슴불태우며 《고난의 행군》을 헤쳐오던 그 나날의 감회는 커다란 화폭속에 깊이 어려 지워지지 않았다. 그 행군길에서 자력갱생기지들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고 사람들의 모습도 변모된것이다. 그 나날이 있어 오늘의 강행군을 웃으며 걸어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실로 고난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던 그 나날들은 오늘을 받쳐올린 초석처럼 그의 가슴에 굳건히 자리잡혀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그들은 병사였다

유난스레 바람이 불면서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였다.

두사람이 지배인실에 마주앉아 하염없이 담배연기만 빨아올리고있었다. 한사람은 자재지도원 정호민이였고 한사람은 심준섭지배인이였다.

책상우에 놓여있는 재털이에는 담배꽂초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지배인동지,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겠습니까?》

정호민은 벌써 몇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심준섭은 말없이 담배연기만을 날리였다. 그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호민은 알고있었다. 일단 결심이 생기면 누가 뭐라해도 동요없이 내미는 성미였다.

《어려울겁니다. 우리 손으로 日주를 개발한다는것은 백정보 원료기지를 꾸리는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심준섭은 고통에 이지러진듯싶은 정호민의 얼굴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한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처음이였다. 성격이 쾌활하고 아는것도 많아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오락회에 섞이면 노래도 잘 부르거니와 시

《어머니》도 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보선수》란 별명을 붙이었는데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는 못되었지만 후보선수의 자격만은 인정한데서 생겨난것이었다. 그런것만큼 맨손으로 공장건물을 일떠세우고 전국 각지의 계약공장들과 기계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설계를 펴오고 설비들을 현대화하는데서 지배인이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그의 남다른 수고가 깃들어있었다. 그 나날에 심준섭이와 고락을 같이한 사람은 생산지도원과 함께 자재지도원인 정호민이었다.

《그리고 우리 동무들이 이제는 지칠대로 지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을 하였습니까? 남들처럼 몸이 성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허 참 동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듯하네그려.》

심준섭은 입가에 허구픈 미소를 지었다.

《알아도 잘 아는 지배인동지가 이러니 답답해서 그러지요.》

그 말에 심준섭은 약간 미간을 찌프리고 정호민을 물끄러미 마주보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호민이만은 자기의 결심을 지지해주리라고 믿었다. 그래서인지 지금 심준섭의 심정은 소중한것을 잃어버린 때와 같이 허우룩하였다.

《힘들겁니다. 산판을 두지고 나무모를 심는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양식장을 만든다 해도 변두조개에서 비주를 얻어낼수 있다는 과학적인 담보야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정호민은 시름겹게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상한손을 굽어보았다. 명랑하던 그의 모습이란 찾아볼수 없었다. 세월이 그토록 변모시켰는가? 아니면 자재지도원이란 분주한 직무가?...

심준섭지배인은 며칠밤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 공장구내를 서성이었다.

정세는 나날이 첨예화되고있었다. 방공에서는 매일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전연시찰소식을 보도하였다. 안변천년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위훈의 소식은 그로 하여금 조금도 마음의 안정을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는 약재를 가지고 계획을 수행하였다고 만족하였던 자신이 송구스러웠다.

(비록 나이는 많고 불편한 몸이지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병사시절처럼 살아가리라.)

그는 이렇게 자신을 타일렀고 영예군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하였다. 영예군인들은 군인선서를 한 지난날의 병사들이었다. 영예군인이란 고귀한 칭호는 바로 영원한 병사라는 긍지가 있어 더욱 빛나는것이었다.

심준섭지배인은 이런 생각으로 약해지는 마음을 달래였고 한가지 결심이 생기자 이튿날 자재지도원을 불러 오늘중으로 세멘트와 자갈을 보장할 긴급과제를 주었다.

정호민은 좀 난처해하는 기색이었다.

《지배인이 주는 긴급과제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해야 하오.》

심준섭은 다소 엄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명령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소. 동무도 명령을 흥정해본적은 없겠지?》

정호민은 지금 지배인이 병사시절을 상기시키고있음을 느끼자 멧적은 표정으로 뒤더수기를 굵적이더니 도대체 그걸 어데다 쓰려고 그러는가고 물어보았다.

《구내에 대형유화판을 세우자는거요.》

정호민은 느닷없이 대형유화판이라는 말에 눈을 치켜올리었다.

《왜 놀라오?》

《너무 뜻밖이여서... 그러니 영예군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자는겁니까?》

심준섭지배인은 대답대신 입가에 능긋이 미소를 지었다.

《영웅이 남긴 시도 새겨넣어야지 않습니까?》

《글세... 동무가 유화판앞에서 영웅의 시를 한번 본때있게 읊으면 좋으련만...》

정호민은 말없이 열적은 웃음을 지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드디어 대형유화판이 완공되었다.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이 앞을 다투어 유화판앞으로 모여들었다.

영예군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화폭의 중심에 놓인 영웅의 비장한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심준섭지배인은 뒤전에 서서 영예군인들의 기색을 살피다 이윽고 그물을 향해 몸을 돌리었다.

《동무들, 이 유화판을 보면서 지난날의 병사시절을 생각합시다. 병사란 가장 준엄한 시기에 총대로 수령을 보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병사시절은 끝난것이 아닙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를 향해 소리없는 총포란을 쏘아대고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영예군인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연설도 아니였고 하소연도 아니였다. 부탁하듯 말하는 지배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울리자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때 누구인가 유화판앞에서 영웅이 남긴 시를 읊었다. 한손을 높이 쳐들고 류창하게 시랑송을 하고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정호민이었다.

신념은 강철보다 억세다

조국은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어려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던것이다. 사람들은 피눈물이 고이며 명이 진 아픈 가슴을 달랠사이도 없이 묵묵히 행군대오에 발걸음을 맞추고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장군님의 중하를 덜어드리고 힘과 고무를 드릴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심준섭지배인의 드림없는 결심인 동시에 영예군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백정보 원로기지를 꾸리는 일이 끝나자 곧 8주 개발전투에 달라붙었으나 몇달이 지나도록 실패만을 거듭하고있었다.

심준섭지배인은 온몸에 감탕칠을 하고 하루종일 전투원들과 함께 양식장의 바닥흙을 파올리다가 밤에 집에 가서 누우면 척추에 변형이 생긴 부상자리가 쑤서나서 앓음소리를 하였다.

전투원들도 어지간히 지치여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지배인은 공장에 들여보내려고 등을 떠밀었으나 한사코 전투장에서 떠날수 없다고 우겨대는 바람에 어찌는수가 없었다. 두길이를 넘는 바닥흙을 파내자니 작업량이 보통이 아니었다. 더구나 생산을 보장하면서 전투를 벌리고있으니만큼 서식장이 언제 완공될지 앞이 묘연하였다.

오늘도 그는 아침부터 전투현장에 나와 흙짐을 져나르고있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은 후줄근해졌고 신발이며 바지가랭이는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다.

전투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흙짐을 지고 찰떡같이 달라붙는 감탕발을 헤치는 그들의 발걸음은 쇠덩이를 매단듯 무거웠다. 전투가 시작되어 얼마동안 울려나오던 노래소리는 점차 사라져버리었다. 휴식이 선포되면 웃음대신 질통을 벗어 베고 눕거나 풀밭에 누워버리기가 일쑤였다. 점심이나 푸짐하게 먹고나면 힘을 돋우고 기세를 올릴수 있겠지만 그럴 형편도 못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기어이 8주를 개발해야 한다는 하나의 의지로 마음을 다잡고 자신들을 지탱해나가고있는 전투원들이었다.

그 모습에 힘을 얻고 심준섭은 매일 그들과 함께 뛰고있지만 좀처럼 일자리가 나지 않는것이 제일 안타까웠다.

그는 흙짐을 부리고 전투원들을 둘러보았다. 전투원들의 사기를 부쩍 끌어올릴 방도가 없겠는가? 무겁게 지리누르는 흙짐을 추스르고 힘겹게 걸음을 떼면서 줄곧 이런 생각에 골몰하였지만 실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채를 메고 앞에서 달리는것으로 전투원들의 기세를 끌어올리기에는 일이 지나치게 고되다는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며칠동안 폭 쉬면서 피곤을 풀고 다시 계속할것인가?

그러나 심준섭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부정하듯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면 오히려 탕개가 풀릴수도 있거니와 전투원들이 그러는걸 바라지 않을 것이었다.

(날씨가 차지기전에 양식장을 완공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늑가에 올라서는데 누군가가 지배인의 팔소매를 잡아당기었다. 생산지도원이었다.

《아니? 왜 그러나?》

생산지도원은 다짜고짜 그의 어깨에서 질통을 벗기더니 휴계실로 이끌었다. 그동안 공장에 남아서 생산지휘를 하였는데 갑자기 전투현장에 달려나온것이 수상하였다.

《이제는 나하고 교대를 하자구.》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글쎄 그렇게 하자구. 그러다간 아예 쓰러지고 말거네. 부상자리가 도진다면? 내가 다 아네.》

지도원이 강경하게 나오자 심준섭은 히죽이 미소를 지었다. 분명 누구한테서 무슨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너무 걱정말게. 지배인이 여기서 물려서면 전투가 어떻게 되겠나? 전투장엔 내가 있어야 하네.》

생산지도원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고집을 꺾을수 없으리라고 짐작은 하였지만 그렇다고 보고있을수만 없으니 어찌면 좋을지 알수가 없었다. 심준섭의 부상이 어떤것이라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은 생산지도원 하나뿐이었다.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부상이어서 지배인은 극력 감추고있었지만 수십년간 함께 일하고있는 생산지도원의 눈만은 숨길수가 없었던것이다.

《지금 전투원들은 모두 지쳤네. 하지만 누구도 전투장에서 물러설 생각은 안한단 말일세. 그런데 지배인더러 물려서라구? 허참, 그걸 말이라고 하나?》

심준섭은 주먹으로 생산지도원의 어깨를 가볍게 옥박지르고나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여 그에게 권하였다.

생산지도원은 담배를 받아 불을 붙이고 연거퍼 연기를 빨아들이었다.

그들은 직무상의 상하관계에 구애되지 않고 각별히 자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는 지배인이 일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결함에 대하여 꺼리낌없이 충고를 주는것을 잊지 않았으며 심준섭은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있었다.

《전투원들이라고 다 그런건 아니네.》

그 말에 심준섭은 담배불을 불이다말고 생산지도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생산지도원은 두볼이 마주 불도록 한껏 담배연기를 들이빨더니 요즘 정호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아는가고 물어보는것이였다.

그동안 정호민이 양식장건설장에 나와 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을 하고있었다.

《그 사람이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하고있네. 허. 참, 믿던 나무에 줄이 쏜다더니...》

심준섭은 묵묵히 담배연기만 날리었다. 처음 듣는 소리여서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자재사업을 맡고 동분서주하면서 남모르는 어려운 걸음을 많이 하였었다. 아무리 힘든 과제를 주어도 그는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노력이나 열성에

비해 실수률이 적은것은 사실이였으나 심준섭은 그것을 탓하지 않고 사업에서 더 숙련되기만을 기다리였었다.

《영예군인공장에 있으면 고생밖에 할것이 없나? 그래서 아마 가정불화까지 생긴다는가 보네.》

정호민의 안해는 제대군인으로서 입이 무겁고 아무리 어려운 작업이 맡겨져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있는 녀자였다.

《그 사람이 그동안 올라타박을 넘겨다보았거든. 색동저고리를 입고 남과 같이 춤을 출 생각을 하고있었던 말일세.》

레사롭게 하는 말이였으나 그 말이 던지는 여운은 결코 레사로운것이 아니였다.

이튿날 심준섭지배인은 전투현장에 휴식을 선포하고 일찌기 공장으로 나가 생산현장을 돌아보고나서 정호민을 방으로 불렀다.

지배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예민하게 감촉하자 정호민은 문가에서 잠시 주춤거리였다.

《앉게.》

심준섭은 그가 자리에 앉자 담배를 꺼내물고 깊이 연기를 빨아올리더니 요즘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한단데 그게 사실인가고 물어보았다. 원래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가 예도는것을 싫어하는 성미였다.

《사실입니다.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나섰습니

다.》

정호민이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좋은 자리라고? 먹을일이 있다는건가?》

《뭐 딱히 그런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보아 저한테는 적당하다고 보는거지요.》

심준섭지배인은 실망하여 담배연기를 지퍼 빨아올리였다. 어딘가 모르게 헤실헤실하는것이 눈에 거슬렸으나 그래도 좋은 점을 높이 사서 앞으로 양식장을 책임지우자고까지 생각했던것이 허망하기 그지없었다.

지배인은 배반당한 억울한 심정을 누를길이 없었다. 전투가 힘들고 앞이 내다보이지 않으니 그러는것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헤쳐나갈 의지의 탕개가 풀린것이다.

이렇게 단정한 지배인의 눈길은 더한층 예리해졌다.

《이러자구 동무는 유화관앞에서 시를 읊었소? 영웅의 넋을 회롱했는가 말이요?》

《지배인동지, 그건 너무합니다. 저도 공장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량심껏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력갱생모범단위로까지 되었지요. 그런데 끝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제는 지쳤단 말입니다.》

정호민은 격정을 목새기지 못하고 꺼리낌없이 항변을 들이대였다.

《량심? 좋을 때는 열성을 부리고 어려워지면 등을 돌려대는것도 량심인가? 지금 작업장에서는 힘들어 쓰러지면서도 전투장에서 떠나지 않고있소. 그 동무들은 동무보다 몇갑절 더 불편한 사람들ियो. 변절이 뭐 다른건가?》

《아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 가야겠습니다.》

정호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차마 그대로는 돌아갈수 없는듯 또다시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심준섭지배인은 이미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있었다.

얼마후 그는 전투현장으로 나왔다. 조용한 날에 파헤친 늪안의 토질도 확인하고 시료도 뜨자고 왔지만 웬일인지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호민이 일으킨 파문때문이었다. 믿던 사람한테서 당한 배반이어서인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는 늪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깊이 파헤친 바닥들을 이리저리 살피였다. 어지간히 작업이 진척되었지만 2정보나 되는 넓은 늪이다보니 작업량은 아직 많았다. 양식장을 꾸린다고 해도 연구성과를 생산에 도입할 때까지는 헤아릴수 없는 고심과 실패를 예견하여야만 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개발을 시작한것이 아니였다. 지금 인민들은 효능높은 고가약을 많이 요구하고있지만 비주가 없어서 제한된 량밖에 생산하지 못하고있었다. 금값과 맛먹는 귀중한 약재인것만큼 국가에서도 요구하는데로 다 수입해올수는 없었다. 고가약이표가 적다고 개발을 외면할수가 없었다.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면 자력갱생기지를 꾸려놓았다고 뻔뻔하게 말할수가 없었다.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이윽고 빈 배낭을 진채 삽을 들고 늪안으로 들어섰다. 부상을 입은 허리가 말뚝을 부리려는지 움직일 때마다 뜨끔거리였다. 그런데다 감탕이 무릎까지 달라붙어 다리를 옮겨놓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한가운데로 들어가 삽으로 발밑의 감탕을 퍼서 토질을 확인한 다음 그것을 비닐주머니에 싸서 배낭안에 집어넣었다. 몇번이나 자리를 옮기며 그 작업을 하다보니 기운도 다 빠져버리였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그는 충격적으로 입술을 감싸물고 손에 힘을 주었다. 감탕속에 깊이 박힌 삽을 끌어올리느라 힘을 주는 순간 척추가 몽둥이에 얻어맞는 듯한 아픔과 함께 그는 몸의 중심을 잃고 비칠거리더니 신음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버리였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허리를 움직일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심준섭지배인은 바닥에 몸을 붙이고 누웠다. 좀 안정하고 일어날 심산이었다. 그러다보니 옷과 팔다리는 온통 감탕으로 매달릴되어 정상이 처참하였다. 그래도 얼마동안

이라도 그대로 누워서 안정할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없으니 편락할 길도 없었다.

한시간이 넘도록 반듯이 누워서 높이 들린 하늘을 바라보며 정처없는 상념속에 잠겨있는데 늑대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건 뭐요? 그게 뭐 풀밭인가 생각하나?》

생산지도원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심준섭은 절로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구원자를 만났다는 기쁨에서라기보다 그가 곁에 있다는 기쁨때문이었다.

《아니, 지도원동무.》

심준섭이 간신히 한손을 들어 가까이 오라고 시늉을 하자 생산지도원은 신을 신은채 허둥지둥 늑안으로 들어왔다.

《왜 그러나?》

《...허리가... 날 좀...》

심준섭이 손을 허우적이었다. 그러자 생산지도원이 조심히 지배인을 안아일으키었다.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심준섭의 입에서는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새나왔다.

《내 미타해서 찾아왔다니... 그런데 이렇게 쓰러져있을줄이야... 이러다 아예 쓰러지는게 아닌가?》

지배인을 업고 힘겹게 발을 옮겨놓을 때마다 잔등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좀 참게.》

어느덧 생산지도원의 습벽이는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떨어져내리었다.

늑가에 지배인을 눕혀놓고 상처를 보려고 옷자락을 헤치자 심준섭은 굳이 만류하며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내 여기서 안정할테니 자넨 뜨던 시료를 마저 떠주게.》

그리고나서 재료를 떠야 할 장소들을 가리키었다.

《사람도...》

생산지도원은 하는수없이 삼을 집어 들고 다시 늑안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웃으며 가자

그때로부터 한달이 훨씬 더 지나서였다.

드디어 양식장이 완공되어 기술준비실에서는 양식할 조개에 이식수술이 시작되었다. 이 일대의 늑이나 진펄에서 자라고있는것이다. 종업원들은 거기에서 비주를 얻어 낼수 있다는 기대로 하여 하루일이 끝나면 모두 늑으로 나갔다.

그날도 심준섭지배인은 노동자들과 함께 늑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호민네 집쪽으로 걸음을 돌리었다. 낮에 기술준비실에 나갔다가 뜻밖에 조개를 잡아가지고 찾아온 정호민네 두 아이

를 만났던것이다. 자기는 몸이 아파서 늑에 나가지 못하지만 대신 아이들을 시켜서라도 자기한테 맡겨진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안해의 소행이 너무 고맙고 대견스러워 심준섭은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던것이다. 공장을 떠나가버린 남편으로 하여 얼굴에 그늘이 덮이고 더한층 과묵해진 안해였다.

그런데다 옮겨간 직장에서 또 나와 새 직업을 구한다고 떠다니고있는 남편이고보면 그 마음이 오죽 괴로울것인가?...

골목길로 걸어가는 심준섭지배인은 목은 상처가 쭈셔나듯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다. 정호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것이 마치 자기의 실책으로 여겨지면서 그를 붙잡아놓지 못한 자책감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가 어려운 시기에 대오의 탈락자가 되고있다는 리유로 하여 후회심이 앞섰다. 남편이 그 모양이니 살림도 말이 아닐것이었다.

심준섭은 집들이 촘촘히 붙어있는 골목길로 얼마간 더 걸어가서 나지막한 널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윽고 토방으로 다가서던 심준섭지배인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뚝 걸음을 멈추고 귀를 강구었다. 녀인의 흐느끼는 소리에 이어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새나왔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

채롱채롱한 노래속에 녀인의 흐느끼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지배인은 눈길을 떨구고 그대로 한자리에 서있다가 노래소리가 그치자 나직이 주인을 찾았다.

인차 방문이 열리었다.

그 순간 심준섭은 놀라 방안을 둘러보았다.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두리반우에 띄이며 조개볶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찬그릇들이 차려져있었다.

아이들은 상에 빙 둘러앉아 울고있는 어머니를 지켜보고있었다.

지배인을 알아보자 아이들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반기며 방안으로 이끌었다.

《지배인아저씨, 오늘이 우리 엄마 생일이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준섭은 입술을 벌린채 아이들을 마주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생일만은 꼭꼭 차려주거든요.》

그 소리에 안해는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더 싫게 흐느끼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지배인은 아이들한테로 시선을 돌리었다.

《너희들이 참 용쿠나.》

《우리 엄마는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지

않나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그저 우리들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지. 너희들도 모두...》

그는 말끝을 얼버무리었다.

이들을 이끌어야 할 아버지만은 대오밖에서 시대의 엄혹한 흐름을 관망하고있는것인가?... 우리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옛날처럼 이야기할 그때에 가서 아버지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수가 있을것인가?

심준섭은 할 말이 없었다. 이들앞에서 위안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을것인가? 그저 정호민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뼈아픈 자책만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이튿날 아침 심준섭지배인은 출장을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공장에 나오자 급히 참모성원들을 자기방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사람들이 모여오자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놓고 몇가지 사업들을 포치하였다. 日주 개발장에 남아서 양식장을 관리할 성원들을 알려주고 공무반장은 오늘중으로 모든 설비들에 수동장치를 할 준비를 갖추라는 과업을 주었다.

뜻밖에 받는 과업이어서 본인은 말할것 없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지배인의 기색만을 살피었다.

《앞으로 메탄가스를 얻어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필요한 전력을 얻을수 있겠는데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공무반장의 의견이었다.

물론 메탄가스화공사를 하고 발전기를 만들면 많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교차생산만 잘하면 모든 설비들을 다 돌릴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전기가 없다고 기대를 멈출수는 없었다.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다고 그것을 합리화할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전기가 모자란다고 한시도 생산을 중단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있는 행군길에 더 어려운 시련이 가로놓일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생산을 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지금 지배인이 무엇을 요구하고있는지 모르지 않았다. 한키로와 트시의 전력도 한그람의 휘발유도 없는 그런 엄혹한 정황을 녀두에 두고있는것이였다.

《우리가 자력갱생모범단위라고 하지만 아직 할일이 많습니다. 더 어려운 정황을 예견하여 자력갱생기지들을 계속 보강하여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참고 웃으며 헤쳐나가는 그런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우리의 행군길에서 탈락자가 생길수 있다는걸 명심합시다.》

그것으로 사업포치가 끝났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사무실에서 나가자 심준섭지배인은 팔목시계를 보더니 길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신의주에 가 있다는 정호민을 찾아갈 결심이었다.

《기어이 떠나겠나?》

생산지도원이 묻는 말이었다.

《떠나야지. 가서 초탈을 안기면서라도 데려와야겠소. 그 사람도 어려운 시기에 부끄럼없이 살도록 도와주자면 데려와야 하오.》

믿음이 부족하여 등지고 떠난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심준섭은 신념을 저버린 그 사람에게 또 다시 신념을 안겨주려고 떠나는것이다.

생산지도원은 지배인의 그 뜨거운 마음에 감심되어 그저 고개만 끄덕이었다. 어디에 가서라도 심준섭은 반드시 정호민을 데리고 올것이다.

심준섭지배인은 방에서 나오자 곧 정호민을 찾아 길을 떠났다...

정문밖에서 들려오는 프락포르의 동음소리에 심준섭지배인은 회상에서 깨어나 바빠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런결차대신 커다란 철판우에 육중한 돌짐을 끌며 프락포르가 힘겹게 다가왔다.

목에 호각을 걸고 앞에서 프락포르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옷자락을 풀어헤치고 긴장한 눈길로 철판의 이동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연방 운전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정호민이었다.

프락포르가 공장구내에 들어서자 퇴근하던 녀인들이 모여들어 왁자 웃고 떠들었다.

《아니, 저게 뭐예요?》

《연자들이구만. 아직까지 저런 연자들이 남아있었구만...》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녀인들이 의아하여 정호민에게 물었으나 그는 빙그레 웃으며 심준섭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아니, 아주먼닌 떡방아라도 찧어볼 생각이 아니요? 이걸 분쇄기를 대신할거워다.》

《어이구. <후보선수>가 또 희떠운 소리를 한다. 당장 발전기에서 전기를 얻겠는데 그런 소리...》

그러자 구내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정호민은 진창에 빠져 흙덩이처럼 된 신발을 벗어 툭툭 털며 또다시 너스레를 부리었다.

《이건 신념의 돌이웨다. 아무리 어려운 정황에 부닥쳐도 기어이 분쇄기를 돌린다는 지배인동지의 배심에서 생각해낸거란 말이요.》

심준섭지배인은 턱을 들고 꺾꺾 소리내어 웃었다. 비유도 그럴듯하거니와 정호민의 너스레를 떠는 모양이 더 우스웠던것이다. 그것은 병사시절의 정호민의 모습이였다.

나는 이 나날에 자랐다 외 1편

김충기

나는 그때 철이 없었다
우리 장군님 온밤 차를 달리시여
농장에 오셨던 이른새벽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거니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다

죄책감에 머리들수 없던 그날부터
나는 새벽잠을 잊었다
강원도 내 고향을 무릉도원으로 꾸리시려
장군님 철령을 넘으시던 그 새벽에
거름지계를 지고 밭으로 나갔고

스스로 정한 책임량을 다하기전에는
늦도록 발머리를 떠나지 못했다
전선길 이어가시는 그 로고를 생각하며
감자포기에 더운 눈물 떨구었다
입술깨물며 발이랑을 타고넘었다

뛰는것도 성차지 않던 그 나날
걸음걸음 피를 뚫이던 생각
풍족치 못한 쌀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면
우리 장군님 자주 끼니를 번지시라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그 심중 얼마나 뜨겁고 절박했으면

이제는 쪽잠마저 잊으셨으랴

자식위해 머리흰 부모의 고생
머리흰 그날에 알며 철든다더라
하지만 나는 갓서른에
천만부모도 감당 못할 장군님 로고
눈물겨운 그 세계를 알았노라

나는 이 나날에 자랐다
말로는 다할수 없는 충효
다름아닌 쌀임을 절감하며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이는 그 쌀을 두고
장군님과 운명의 숨결을 같이해온 나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의 이삭이 되고픈
그 하나의 소원안고 나의 키는 자랐노라
아버이 한몸에 실린 천만가지 짐중에서
쌀집만은 덜어드리려 내 어깨는 넓어졌노라

아, 나는 이 나날에 자랐다
행복한 철부지로 받아온 사랑
그 사랑에 갇든 어버이로고를 생각하며
참된 충효를 간직한 장군님의 자식으로
갓서른에 나는 철이 들었다

소중한 한해

구보로 달려온 자옥우에
한해가 저무니
더더욱 소중한 추억
자옥자옥 되짚어 뜨거운 마음

돌아보면
눈내리던 정초의 그 아침
거름을 저울리던 그 언덕이 보이고
해불을 추켜들고 언땅을 밀어가던
토지정리의 그밤도 보여오누나

생각난다
완공된 발전소 언제우에서
누군가 읊던 자작시 한 구절이
감자꽃 춤추는 전야에서
군민이 함께 부르던 그 2중창도

정녕 이 한해
조국의 산야 강물의 굽이굽이

얼마나 큰 자옥 남기고
우리 잠시 발걸음 멈추었느냐

물결 출렁이는 언제밀에
이랑이랑 기름진 대지에
그 자옥은 묻히고
세월의 눈비에 씻겼어도

이 나날에 불탄 우리의 심장은
굽이굽이 휘황한 불빛으로 빛나고
이 나날에 부른 우리의 노래는
이삭의 설레임으로 넘쳤나니

가장 어려운 날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불러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그 자옥 따르며
걸음걸음 보폭이 넓어지고
숨결이 높아진 이 한해

아, 소중한!
조국과 함께
인민과 함께
내가 자란 이 한해
강성대국건설의 이 한해!

이 한해
우리 걸어온 자욱은 보이지 않아도
강성부흥의 래일로 달리는

조국의 큰걸음 받들어 빛나고있거니

세월이 흘러 한생이 저무는 그날에도
이 가슴에 지지 않을 소중한 한해
래일을 위해 빛내인 오늘을 두고
말하리 먼 후날에도 말하리
-나는 강성대국건설의 나날에 자랐다고
그 나날에 한생이 성장했다고

문은 열려져있다

송재하

낮이나
밤이나
여기 푸르른 보통강기슭
전승기념탑문은 열려져있다

적순양함을 향해
한몸이 어뢰되어 달려나간
그 애젊은 해병을 기다려서인가
평양하늘을 지켜
한줄기 검은 연기로 사라져버린
그날의 비행기의 동음소리
오늘도 들려와서인가

찬눈 내리는
정이월 이른새벽에도
이 문은 열려져있고
환희의 축포가 오르는
전승절 그밤에도
이 문은 열려져있고...

어찌보면
전사한 아들의 소식을 듣고도
수십년세월 하루같이
아들을 기다리고기다려온
이 나라 어머니들의 그 품만 갈아

승엄히 우러르니
저 펄럭이는 붉은 기발아래
총잡고 서있는 두 병사는

영웅들을 맞이하러 나온
최고사령부 명예위병들인듯

그래서 붉은 꽃을 들고
문으로 들어서는 걸음걸음들
쉬이 못웁기는것인가
문을 나서는 가슴가슴들
뜨거운 생각으로 고동치고...

아 하늘끝에 있어도
세월의 한끝에 있어도
모두 찾아
크나큰 한몸에 안아주는
어머니조국이여

어려운 날
제 한몸 사린 역적들에게는
한치 뱃을 땅조차 주지 않았어도
피를 바친 아들들은
이 땅을 제집 프락처럼 뱃으라고
빛장을 지르지 않았거니

문은 열려져있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그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삶을 바쳐야 하는지
말없이 심장속에 새겨주며-

고향과 영웅

송병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생의 뿌리를 둔 고향이 있다. 고향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버릴수 없는 한없이 소중한 정다운곳이다. 그래서인지 영웅들은 류달리 고향을 사랑했다. 리수복영웅이 그랬고 김광철영웅이 그랬다. 그것은 모를지기 고향이 사람들을 위훈으로 떠밀어주는 어머니 품이기때문이라.

민족의 장한 딸 정성옥영웅도 마라손경기의 출발선에 나섰을 때 문득 떠오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딸답게, 조국의 딸답게 경기에서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당부하던 고향의 어머니와 스승들, 동창생들의 얼굴이었다고 했다. 그는 비장한 마음을 안고 결사의 의지로 달리고 또 달려 끝내 우리 민족의 정신과 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고 세계륙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에서 세계패권을 쥐게 되었던것이다.

나는 지금도 정성옥영웅이 고향의 품에 안겼을 때 모교인 해주체육대학 교직원학생집회에서 한 말이 생생히 떠오른다.

《제가 여자마라손경기에서 세계패권을 쥐게 된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은 다름아닌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이었으며 다른 나라 선수들이 지닐수 없는 그 마음은 결코 저절로 생긴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첫걸음마를 댄 여기 정든 고향에서 싹트고 꽃피나 드넓지 않는 신념으로 깊이 간직된것이였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세계를 경탄시킨 기적은 바로 장군님에 대한

충효심으로부터 일어났으며 그것은 고향땅에서 싹트고 키워진것이였다. 참으로 정성옥영웅에게 있어서 고향은 한시도 떼어놓을수 없는 살붙이였다. 아홉살 인민학교시절부터 달리기를 한 고향의 광석천가, 룡상소조에 망라되어 달리고달리던

수양산 굽이굽이, 다정한 선생님과 함께 목란꽃 나무를 심으며 이 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장군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다지던 교정... 바로 고향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효심을 키우고 무적필승의 힘을 키우는 요람이였다.

그래서인가 고향의 딸 정성옥영웅을 맞이하는 해주땅은 뜨거운 열광에 넘쳐있었고 눈물없이 볼수 없는 화폭이 펼쳐졌다. 기다리고기다리던 정

성옥영웅이 고향의 품에 안겼을 때였다. 친지들, 이웃들, 스승들, 동창생들 그리고 그를 모르던 해주사람들도 마치 제 딸이 돌아온것처럼 뜨겁게 안아주고 다정히 불러주며 걱정엔 넘친 눈물을 흘렸다. 정성옥영웅이 무개차를 타고 꽃속에 묻힌 거리를 헤쳐오고있을 때였다. 문득 환호하는 군중속에서 《성옥아, 성옥아, 나야 나!》하는 짹짹한 처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군중의 환호에 꽃다발을 흔들며 답례하던 정성옥영웅이 피곳 몸을 돌려 목소리 임자를 정신없이 찾았다. 드디어 군중속에서 그 누군가를 발견한 그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면서 《응, 알아, 이따 만나자.》 하고 소리친다. 아마 동창생 아니면 하급생이라. 감격의 화폭은 정성옥영웅이 살던 살림집앞거리에서 또다시 펼쳐졌다. 깨끗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들이 차를 막아나섰다.

《성옥아, 어디 손이라도 잡아보자. 네가 영웅이 되어왔구나.》

《성옥아, 어디 보자. 이게 금메달이냐? 그렇게 두 착실하더니...》

할머니들은 말을 더 못하고 눈물에 젖은 얼굴에 반가운 웃음을 피운다. 정성옥영웅과 이웃에 사는 로인들인것 같았다.

《옥실이 할머니, 손금이 할머니도 나오셨구만요. 모두들 고마워요.》

영웅도 끝내 목이 갈려 눈곱이 젖어들뿐이였다.

이처럼 고향과 영웅의 상봉은 혈붙이들의 상봉이였다. 나는 세차게 사품치는 걱정을 누르며 생각에 잠기였다. 이름없던 저 소박하고 조용한 처녀가 영웅이 되어 돌아오니 고향땅은 그 얼마나 궁지롭고 환희에 넘친 고장으로 되였는가.

그러나 생각하여보면 영웅이 태어났다고 하여 고향이 절로 유명해지는것은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시기에도 비록 영웅들이 결전장에서 살아돌아오지 못해도 고향땅에 영웅의 반신상도 세워주시고 그의 모교에 영웅의 이름도 달아주시며 고향과 함께 영생하도록 해주시였다.

이번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고 돌아온 세계 《마라손녀

왕》인 정성옥영웅을 해주땅으로 보내시여 고향사람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도록 해주시었다. 평범한 노동자의 딸을 한품에 안으시여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품들여 세계적인 마라손강자로 키워주시고도 그 영광은 고향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우리 장군님!

정녕 영웅과 고향을 함께 내세우고 온 세상에 자랑하여주시는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장군님이 계시기에 영웅이 있고

조국이 있다. 고향이 빛나야 조국도 빛난다. 향토애가 있을 때 조국애도 있고 수령에 대한 충효

심도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영웅의 이름과 더불어 이 땅의 고향들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므로써 우리 조국을 《제2의 정성옥》, 《제3의 정성옥》이가 무성하는 숲처럼 자라나는,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으로 건설하시려는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평범한 사람들도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이 되고 이 땅의 고향들은 더욱 기쁘지고 풍만해지며 가장 긍지로운 고장으로 찬란하게 빛날것이다. 하여 우리 조국은 세계 만방에 **김일성**민족의 기개와 강성대국의 위용을 떨칠것이다.

그 품에서 나는 행복해

박경심

내 알고싶었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내 사는 이 땅은 정말로 좋은지
세계를
나는 다 보고싶었네 일주하고싶었네

너 얼마나 달리고달렸더냐 철부지마음아
소설의 주인공들을 벗어나
동화속 환상수레도 타고서
내 못가본 나라가 없네
내 못만나본 인민이 없네

엄마새 품을 떠나 첫 나래 저어가는 아기새처럼
천리글쭈우에 만장의 폐지우에
시작된 나의 려행, 책속의 려행
지금도 그 길은 끝나지 않았네
내 아직 세계를 다 보지 못했고
내 아직 세계를 다 알지 못했으리

허나 나는 아네
이제 어느때건 려행을 들고
온 누리를 메주밟듯 편답하고
가장 살기 좋은 황금의 나라 골라
그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여도
나는 고르지 못하리라는것을
나는 갈수도 없으리라는것을

그 어디에 또 있으랴
날 안아 껴먹여준
어머니 그 모습으로 정답고

밤마다 날 지켜 잠못들던
어머니 그 숨결로 따뜻한
내 조국의 품

나는 그대의 살불이, 그대의 피불이
그대 품에 태어나 그대만을 따름은
달리는 될수 없는 나의 운명
세상천지는 넓고넓어도
나의 심장 말기고 살 품은
세상에 오직 그대 하나뿐

떠나선 뿌리 끊긴 나무처럼 나는 시들리
날 품어주는 조국의 크나큰 사랑이 없고
나 또한 바치고 또 바치고싶은
내 사랑이 없는 그런 땅은
나에게 어디 가나 사막이리 동토대이리

조국은 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였어라
조국은 광막한 세계의 심장!
나에게 조국이 마를줄 모르는 샘이라면
세계는 다만 그 샘터!
나에게 세계가 가없는 하늘이라면
조국은 그 하늘에서 빛발치는 태양!

창공에 나래펼친 아기새
엄마새 품을 찾아 다시 돌아올수 없어도
이 몸은 세상 한끝에 갔다가도
사선을 넘어서도 돌아오리니
아 조국아 살아도 죽어도
그대의 품에서 나는 행복해

백년을 부를 노래

지경일

소나무숲속의 정자주변은 오락회로 떠들썩했다.

아이들은 이제 한달후면 있게 될 중학교졸업을 기념하여 마을어른들과 함께 공원에 금잔디를 심고있었다. 그러다가 노래판이 벌어졌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저마다 끼여들었다.

올해 예순여섯인 동사무장(그는 전쟁로병이었다.)도 아이들의 청에 못이겨 숨이 차 헉헉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아바인 언제 그 노래를 다 배워두셨소?》

《그러게말입니다.》

로인이 새로 나온 민요풍의 노래를 부르고났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아, 자네들은 매일 텔레비강 보지 않나?》

동사무장은 이마로 흘러내린 검누룩한 머리칼을 울리쓸며 슬쩍 받아넘겼다.

《체, 할아버지가 노렐 잘하신다더니 그저 그렇구나 뭐.》

한 아이가 어리광조로 말했다.

그 말에 외파로 앉아서 싱글싱글 웃고있는 제대군인을 바라보던 로인의 눈길은 알릴듯말듯하게 흐려졌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목소리도 누긋해졌다.

《하긴 노래라는건 좀 복잡해. 그건... 그건...》

하며 들고있던 담배를 뽁뽁 빨았다. 뒤를 달아야겠는데 마음에 드는 말마디가 잘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불쑥 《그저 애착이지 뭐. 뭔가 바치는거말이야.》 하는것이였다. 어딘가 좀 엄청난감이 드는 그 말에 웃는 사람들을 따라 로인도 그냥 웃어버리고말았다.

...웃고 떠드는 속에서 처녀는 즐겁기만 하였다.

정자주변에 금잔디를 입히는 일을 맡기해낸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판이 커졌다. 게다가 벌써 두번이나 지명되어 노래를 불렀다.

스물세살잡힌 수학교원 송정화는 학급애들을 무척 사랑했다. 1년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온 그에게 학교에서는 남편을 따라 조동되어간 교원을 대신하여 졸업학년의 학급을 맡겨주었다. 처음에는 두근거리는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교원이 되어 돌아온 자기의 졸업생에 대한 모교의 은근한 기대어린 눈길속에서 학급앞에 나섰다.

집에서 막내인 정화에게는 학생들이 친동생처럼 여겨졌다. 교원생활의 첫해가 지났다. 그애들이 이제는 초소로, 공장으로 또 대학으로 떠나게 되였다.

그는 행복했다. 마치 이 모든것이 태어날 때부

터 이미 자신의것으로 마련되어있을것처럼 생각되였다. 정화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가슴이 더욱 부풀어올랐다. 자신의 어제날과 오늘, 앞날의 모든것이 지금의 저 노래소리에 다 담겨져있는것 같았다.

《...선생님 차렷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화는 흠칫 눈을 깜빡이며 머리를 들었다. 제생각에 취해있다가 학급반장이 지명하는 소리를 얼핏 들었던것이다. 애두, 또?!

《아저씨가 먼저 일어나라요... 빨리요... 일어나라요.》

학생들은 마음껏 웨쳐댔다.

(?)

마을사람들이 정화와 제대군인을 번갈아보며 웃었다.

《혼성2중창이 좋지.》

《어- 팬찮아.》

그제야 정화는 제대군인에게 다시 눈길이 갔다. 동사무장과 함께 애송나무들을 가지고 온 총각, 작업할 때에도 말 한마디 없이 늘 동사무장옆에서 일하던 제대병사, 그는 오락회가 시작될 때에는 싱글싱글 웃으며 보기만 했었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끼여들 때에도 슬며시 물러나 정자에 올라가 앉아있었다. 흰 돌기등을 쓸어보기도 하고 처마모양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웅벽우에 높이 자라오른 소나무를 묵묵히 쳐다보기도 했는데 그때의 눈빛은 끝없는 애수에 흐려지기도 하고 어떤 끓어오르는 걱정으로 번쩍이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때문일까. 무척 과묵한 편인데.

하긴 정화도 평양에서 대학다닐 때 여기 소나무숲을 생각하곤했다.

새벽공부를 하려 모란봉숲속에 올라가 골개물감도는 바위우에 앉으면 동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공부를 하던 이 소나무숲의 시원한 그늘이며 그 끝을 불에 살짝 가져다대면 간지럽히듯 찌르던 바늘잎사귀들, 신발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라오른 폭신한 잔디밭이 얼핏얼핏 떠오르곤 하였다. 그래서 방학으로 집에 올 때마다 한번은 꼭 와보곤했었다. 그러니 몇년동안 떠나있다가 온 사람이야 오죽할까. 참, 아까 동사무장할아버지가 그랬지, 오늘오후 렬차로 다시 부대에 간다구. 그러니 제대된게 아닌거구나 뭐.

사람들이 너무 추겨대는 바람에 성화는 하는수없이 끌려일어났다.

선생님의 붉어진 얼굴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

었다.

선생님이 일어났다며 아이들이 제대병사에게 더 매달렸다. 했으나 그의 얼굴은 벌개졌다. 몸둘 바를 모르며 말 한마디도 못한다.

정화는 속으로 웃음이 났다. 무슨 남자가 저렇가, 군사복무까지 한 사람이...

《자, 시원한 단물이다.》

공원관리소에 갔던 동사무장이 지함을 안고 돌아왔다.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우르르 그를 둘러쌌다.

학급반장이 장난기어린 웃음을 짓고 툭 내쫓는다.

《할아버지- 욕하랴요.》

《누굴?》

《노렐 듣기만 하는데요 뭐.》

덩달아 다른 애들도 벽적거렸다.

《뽕혔는데두 안해요... 웃기만 하구...》

그제야 동사무장이 짐짓 엄한 티를 내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누가 오락회대장 말을 안들어?》

《우리 선생님과 군대아저씨가 뽕혔는데요 뭐.》

《선생님은 나셨는데 군대아저씨 뽕 뽕쳐요.》

아이들이 승기가 나서 뿔었다.

어른들이 더 크게 웃었다.

《욕하랴요. 일어나게 하랴요...》

그러자 로인의 입가에서 《노래하는건 좀 복잡해.》 하고 말하던 때처럼 또다시 허구픈 표정이 퍼져오른다.

《우리 다른 사람걸...》

이 말에 오히려 로인이 더 물렸다.

《그럼... 내가 대신 부르지.》

이젠 늙었어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팔팔한 동사무장의 성미를 마을사람들은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오락회관이 어성버성해졌다. 아이들도 어리뻗해졌다.

동사무장은 홀로 앉아서 쓸쓸하게 미소짓는 병사를 왜서인지 난처한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병사는 잠시 머리를 숙이고있더니 힘겹게 일어섰다. 무거운 걸음으로 정자를 향해 걸어갔다.

정화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이때 병사의 뒤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머리를 끄덕이던 동사무장의 갈린 목소리가 가까스로 울렸다,

《저 아저씨는... 영예군인이다. 영영 노래를...》

×

교실 창문으로는 남석산우에서 피어오른 첫 저녁노을이 붉게 흘러들었다. 서커히늘로 붉은 갈

매기무리마냥 구름들이 날아갔다.

《...학생동무들, 미안합니다. 공원에서 동무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이 병사를 용서하십시오.》

편지를 읽는 정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면서 들던 학생들의 시선이 지금은 교원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맨뒤에 앉아있는 동사무장의 시선도 교실 정면벽의 한점을 지긋게 붙잡고있었다.

예순살을 훨씬 넘겼으나 로인의 머리칼은 그닥 센축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검누룩한 머리칼 한 오리한오리가 그자신이 역에 병사를 바래워주러 갔다가 가져온 편지의 사연을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보태고있는것 같았다.

《...사실 동무들이 졸업을 기념하여 소나무숲의 정자를 더 잘 꾸린다기에 갔었습니다. 저도 군대에 나갈 때 동사무장아저씨와 저의 아버지하고 정자주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있는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그 어떤 알수 없는 힘에 끌려 고향생각을 하곤합니다. 나는 집을 생각할 때마다 맨먼저 떠오르는 부모님들의 얼굴과 함께 그곳 소나무숲의 나무들도 그려보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던김에 무엇인가 하고싶어 갔었는데 노래청을 받을줄이야, 기뻐합니다. ...동무들의 명랑한 웃음속에서 울리던 그 노래들이 지금도 귀가에서 울립니다. 동무들의 밝은 목소리가 부러웠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원래 노래를 좋아합니다. 복무의 나날에도 정말 실컷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무들의 오락회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지켜 고향을 떠나는 이 시각, 그 죄스러움을 털어보자고 소나무숲속에서 흘러간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을 더듬으며 이 글을 써보냅니다.

영원한 병사의 노래로 알고 받아주십시오...》

처녀는 낮에 받았던 충격까지 되살아나며 옥치밀어오르는 감정을 어쩔수 없었다. 아, 노래를 부르지 못해 당황해하던 병사.

학생들의 마음은 정화의 하얀 볼우로 방울져내리는 눈물속에 모여들고있었다.

《어릴 때의 이야기.》 하고 정화는 마음속으로 속삭여보았다.

처녀는 미처 가늠할새 없이 복받쳐오르는 감회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약간 넘어질사한 글자들의 모양조차 그자신의 유년시절과도 어울려있는 소나무숲-병사의 이야기속으로 그를 재촉하는것 같았다.

정화는 편지를 읽으면서 귀가에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타고 점점 병사의 추억속에 깊이 빠져들고말았다.

그리하여 마음은 마을로 뻗어간 모래길을 걷고 있는 그들-아버지와 아들의 뒤를 따라가고있었다.

... 노을이 비긴 8월의 저녁이었다.

도예술단 성악배우였던 어머니가 료양소에 가 있던 때 학부형모임에서 중해의 최우등성적증을 받아오는 아버지의 기분은 여느때없이 좋았다. 인민학교에 다니는 이래동안 공부에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중해였다.

《선생님 이름이 뭐라구?》

《아니, 넌 철룡이도 이기지 못하냐?》

중해는 이렇게 말을 건네는 아버지를 흘끔흘끔 올려다보았다. 좁으면서도 기름한 얼굴에 웃음이 어려있었다. 조만해서 웃지 않는 아버지였다.

어쨌든 오늘 저녁밥은 제시간에 먹게 되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있어 혼자몸으로 중해를 돌보며 공장에 다니는 아버지, 항상 출근시간에는 바깥고 공장일로 하여 사위가 어둡혀서야 돌아오곤 하는 아버지, 그래서 저녁이면 다른 집보다 늦게 밥을 하느라 정말 제시간에 잠자리를 펴는 때가 드물었다. 그런데 오늘은...

제철소의 압연분공장을 넘어온 바다바람이 집집의 지붕을 어루만지고있었다. 마을의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의 애릿애릿한 잎사귀들이 알릴듯말듯하게 흐느적거린다.

《보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앞쪽의 먼 하늘을 가리켰다.

제철소사택지구와 평양으로 뻗은 도로를 넘어 논벌과 철도역을 지나면 남석산이 있었다. 그 남석산너머 하늘에서 불길같은 노을이 퍼져오른다.

아들의 눈에는 어리둥절한 빛이 돌았다.

《하늘이 저렇게 달아오르면 래일 날씨가 좋다고 했다.》 아버지가 일러주었다.

달아오르면 왜 좋을가?

순간 중해의 눈앞에 황금빛으로 보이는 소나무우듬지가 병곳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숲》?!...

《숲》은 마을에서 5리도 못되게 떨어져있는 체육경기장뒤에 있었다.

중해가 유치원 높은반때였다. 체육경기장에서는 전승절을 맞으며 제철소적인 운동회가 있었다.

온 제철소 마을이 다 모여 명절 하루를 떠들썩하게 보냈다. 그날 저녁은 운동회가 끝나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때 중해의 아버지와 동사무장아저씨는 누가 먼저 그랬는지 경기장뒤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가는것이였다.

중해도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잔디가 드문드문 돌아난 길을 따라 《숲》속에 들어갔다. 그의 눈앞에는 중간에는 가지 한대 없다가 맨 윗부분에서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짙 가지들이 뻗어나간 소나무들의 무리가 나타났다. 싱그러운 솔향기바람이 가볍게 인다. 바늘잎사귀들이 무겁게 인 가지들사이로 푸르른 하늘이 《숲》속을 엿보고있었다.

다.

《여전하군.》 동사무장아저씨가 얼굴에 넓은 미소를 띠우며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그래.》 아버지의 어조에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열렬한 기쁨같은 그런것이 있었다.

습습한 나무잎냄새가 가득찬 《숲》속에서 그들의 눈빛은 운동회를 구경하던 때처럼 밝고 그윽한것으로 차넘쳤다.

《아, 이거지?!》 아버지가 《숲》입구에 서있는 소나무들중의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 석대는 내거야... 저쪽거지 뭐.》

《그렇단가?》 아버지는 동사무장아저씨가 가리키는 나무들쪽에 다가갔다. 나무를 주먹으로 툭툭 쳐보고는 머리를 들어 하늘가에 짝 퍼져간 나무우듬지를 감회깊은 눈길로 올려다보는것이였다.

《제법 몰라보겠는걸.》

《스물다섯해가 적나?》

동사무장이 뒤집을 진 손을 풀며 대꾸했다.

《숲》속에 붙어드는 저녁바람에 나무잎사귀들이 서로 가볍게 맞부벼지며 설레인다. 그 소리는 《숲》에 가득찼다.

중해는 아버지와 동사무장아저씨가 이곳과 무슨 인연이 있다는것을 감촉할수 있었다.

동사무장아저씨가 웅벽우에 있는 소나무를 손을 들어 가리키며 아버지에게 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벌써부터 그 나무를 보고있었다. 아버지의 눈길은 다른 소나무들을 거느린듯이 웅벽우에 높이 서있는 소나무에서 떠날줄 모른다.

《<명철의 노래>는 여전하군.》

《<명철의 노래>?!... 어참.》

동사무장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그려진다.

《그래, <노래>지... <명철의 노래>라!》

중해는 아버지와 동사무장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명철의 노래》? 무슨 소리인가? 나무를 보고 노래라니?

《숲》속은 중해의 마음에 꼭 들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곳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걸 몰랐을가 하고 중해는 생각했다.

마치 전혀 딴 세계에 들어온듯한 감조차 들었다.

그후에도 아버지는 중해를 데리고 일요일이나 명절날 그리고 새벽산보를 할 때면 종종 《숲》으로 가곤하였다. 그럴 때면 의례히 웅벽우에 있는 소나무를 한참씩 바라보곤하였고 그 주변에서 솔방울이나 나무가지를 손수 집어서 중해의 말랑말랑한 손에 쥐여주곤하였다.

어느날 《숲》에서 중해는 아버지에게 왜 저 소나무를 《명철의 노래》라고 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을 벌스름하게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얼굴에 뜻밖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어리는

것이였다.

《그래?! 음… 이제 다 알게 될 때가 있다.》

그리고는 더 다른 말이 없이 중해의 등을 두드리주는것이였다.

아들은 어린 생각에도 그러는 아버지가 이상스럽게 여겨졌다. 그러나 기뻐다. 아버지는 중해가 착한 일을 했을 때마다 등을 두드리주곤했으니까.

그리하여 중해는 《숲》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사실 《숲》이라는 이름도 언제인가 중해가 동사무장아저씨(그는 아버지의 친구였다.)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단것이였다. 옷방벽에 한상의 풍경화가 걸려있었다. 그런데 그림속에 있는 웅벽이며 소나무들, 나무들사이로 난 풀잎사귀들에 거의 가리워져있는 길이 그곳의 풍경과 비슷해보였다. 밤색액틀속에서 조용히 중해를 내려다보고있는 그림은 그대로 아름다운 숲의 모습이였다. 그리하여 《숲》에로의 중해의 걸음은 더 잦아졌다.

새벽에 은행나무길을 따라가느라 소나무 《숲》 입구가 보인다. 그쯤되면 솔향기가 슬며시 코를 찌른다. 담쟁이덩굴이 기어오른 웅벽뒤에서 소나무들이 짹짹 자라올랐다. 그앞에 아버지와 동사무장아저씨가 《명철의 노래》라고 하던 소나무가 서있었다. 웅벽우에 있는 그 나무를 키가 작은 단풍, 드릅, 방울, 정향나무들이 서로 팔을 껴잡은것처럼 가지들을 엮갈아 뻗쳐들고 포곤히 둘러싸고있었다. 그 주변의 소나무들사이에는 자주색, 연황색, 담청색, 노란색의 이름모를 들꽃들이 무리져 피어있었다. 오미자덩굴들이 들꽃더미를 넘어 《숲》 가운데로 분수처럼 휘늘어져내렸다. 웅벽에 기대여 책을 보다가 싫증이 나면 폭신한 잔디우에 퍼터버리고 앉을수 있었다. 겨울이면 《숲》으로 오는 길에 숨이불처럼 눈이 두툼하게 덮인다. 그러면 중해는 거기에 첫발자국을 찍었다. 《숲》속에 내린 눈으로는 눈사람도 몇개 만들수 있었다. 가을에는 신발바닥만한 락엽들을 골라 밟으며 바삭바삭하는 소리를 실컷 들었다.

그런데 어느때나 《숲》속이 좋은것은 나무잎설레임소리였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들어 오는 그저 소리가 아니였다. 중해에게는 그것이 《숲》의 숨결로, 그 어떤 노래처럼 여겨졌다. 《숲》은 사철 울리는 나무잎설레임소리로 자기만이 안고있는 그 어떤 끝없는 사연의 노래를 간절히 외우는것 같기도 하였다.

중해는 저녁노을이 소나무우듬지에 질 때면 집으로 돌아오곤하였다.

다음날 새벽이였다.

중해는 아버지가 가마뚜껑을 들었다놓는 소리에 잠을 깼다.

책장우에 있는 라디오에서 《애국가》의 선율이 가늘게 흘러나오고있었다. 그러니 이제 좀더 있

으면 아버지가 소리칠것이다. 《시간이 됐다.》 하고. 아버지는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애국가》가 나울쥬이면 바로 그렇게 중해를 깨우곤했다. 새벽공부를 하라는것이다.

조금만 더 누워있었으면… 그때 난데없이 《숲》속의 새소리가 들린다. 환각이였다. 버쩍 정신이 들었다.

대충 운동복을 걸치고 대문을 나섰다. 은행나무길을 한절반 왔을 때에 벌써 새소리가 울려왔다. 시큼한 솔향기도 풍겨온다. 온 《숲》이 푸르스름한 안개속에 묻혀있었다. 야, 이 향기, 이 안개, 귀를 간지럽히는 새울음소리가 나무우듬지들에 가득찼다. 소나무들을 안고있는 이 아담한 《요람》이 마치 새와 더불어 노래하고 생각하는듯하였다.

중해는 뜻밖에도 세멘트웅벽우에 한사람이 앉아있는것을 보았다. 누굴까. 그 사람은 《명철의 노래》에 기대고 앉아서 하늘을 메운 소나무우듬지들을 올려다보고있었다. 눈가에는 어렴풋한 미소가 어려있고 중해는 조용히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사람이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동사무장아저씨였다. 그도 중해를 보자의아해하였다. 《네가 어떻게?》

중해는 《놀러.》 하고 대답하다가 제풀에 주춤거렸다. 새벽에 놀러 왔다면 별나게 생각할텐데.

《그래… 여기야 놀 재미가 있지.》

동사무장아저씨는 소나무를 더듬어보며 혼자소리처럼 한마디 했다. 마치 소나무에 대고 속삭이는것 같았다.

그는 《숲》속에 하염없는 미소를 보내고있었다.

문득 중해의 얼굴에 슬며시 웃음이 피여났다. 인민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생각키웠던것이다.

… 그날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한 축하모임을 마련했었다. 모임이 끝날무렵이였다. 초대석에 있던 동사무장아저씨가 교장에게 신입생들의 노래를 듣자고 제의했다. 그러자 마을사람들과 교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볼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아이들의 주눅이 드는 모양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얼른 나와야지. 누가 용감한가 보자.》

동사무장아저씨의 웨치는듯한 목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더 긴장시켰다.

그때였다. 신입생들중에서도 키가 작은축에 속하는 중해가 주석단계단을 구르며 올라가 마이크대를 턱 잡았다. 사람들은 놀라운 나머지 열렬한 박수로 그를 도와주었다.

배우인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중해의 류별나게 맑은 소리는 사람들에게 백설같은 구름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파아란 아침하늘을 연상케 했다.

중해는 노래를 부르고나서 엉뚱한 청을 하여 더 큰 박수를 받았다.

《동사무장아저씨도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노래청을 받고 스스럼없이 무대에 나서는 동사무장을 존경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전쟁때 늘 부르던건데》 하며 그는 걸걸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소리로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불렀었다...

중해에게는 동사무장아저씨가 그날처럼, 아이들을 향해 노래부르던 때처럼 미소하고있는것 같았다.

《여기야 좋지... 이제 더 멋있게 될게다.》

그는 웅벽에서 훌쩍 내려서며 중해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중해에게는 그 말이 어떤 칭찬처럼 들렸다.

파르스름하던 공기가 해빛을 받아 맑아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해는 잠깐씩 멈춰서곤 하였다. 소나무가지가 손에 들려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늘모양의 파아란 잎사귀들이 춤추듯이 흔들거렸다. 그는 손가락사이에 나무가지를 끼우고 찬찬히 잎들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어떻게 할가... 마을에들에게 자기의 《숲》을 알려주고싶었던것이다. 아저씨까지 좋다고 한 《숲》을 자랑하고싶은 마음이 부쩍 커졌다. 저쯤 앞에서는 동사무장아저씨가 걸어가고있었다.

《작문을 쓰면!》

학교에 나가자마자 중해는 《숲》에 대한 글짓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한테 이런 자랑이 있다는걸 알게 될거구, 부러워할거야. 모두 와보겠지.

그런데 휴식참에 교원실로 내려가다가 끝내 돌아서고말았다. 정말 모두 놀려 오겠다면 어떻게 할가... 하여 중해의 《숲》에는 누구도 찾아올수 없었다.

여름방학이 되었다. 중해는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네가 있는 농촌으로 갔다.

《거긴 할아버지 고향이다...》 아버지는 렬차칸에서 설명해주었다.

할아버지네 집은 중해에게 호기심을 불러넣었다. 집옆에 있는 우리에서는 몸통이에 검은 얼룩점이 덮인 돼지들이 꿀꿀거리고 두리를 그물로 막은 닭우리에서는 빨간 벼을 단 머리를 열성스레 떨며 닭들이 무리져 물려다녔다. 부엌과 매방마다 나들문이 있는것이 마음에 들었다. 문을 열면 키를 넘는 강냉이대들이 바람결에 와스스설레이는 강냉이밭부터 보였다. 채철소 굴뚝부터 보이는 자기네 집과는 전혀 달랐다. 새벽이면 밭에서 떠도는 짙은 안개가 할아버지네 집 지붕에까지 기어오르곤하였다. 할아버지는 문지방에서서 짧은 수염이 뽀죽뽀죽 돋은 입 주변을 손등으로 쓱쓱 문대며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곤하였다. 그럴 때면 영낙없이 《허어.》하는 외마디소리를 기분 좋게 내곤했다. 중해는 낮동안은 내내 마당 한가운데 세운 다락에 올라가있었다. 바다처럼

럼 기가 질릴 정도로 펼쳐져있는 강냉이밭은 서늘한 바람을 실어다주었다. 풀색바다위에 뜬 배처럼 여겨지는 다락이었다. 중해는 그우에서 발으로 나간 할아버지를 기다리곤하였다.

할아버지는 저녁이면 마당에 매끈한 돛자리를 펴주었다. 어느날 저녁에는 거기에 화로를 내다놓았다. 훌쩍 패인 거뭇한 두불을 잔뜩 불구며 새벽안개를 바라볼 때보다 좀더 숨차게 《허어, 허어》하고 불을 살렸다.

《도시에서 언제 이런걸 먹어보겠냐.》 할아버지는 감자를 구워주며 말했다.

중해는 할아버지의 구운 감자를 맛있게 먹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다시 다락에 올라갈 생각을 하며...

하루는 할머니가 중해에게 말했다.

《옛을 달여줄게.》

그날저녁부터 방바닥이 무섭게 뜨거워났다. 집에 당장 불이라도 달릴것 같았다.

아궁앞에 붙어앉아 불을 때던 할머니가 다음날 저녁 가마에서 누런 물을 한사발 퍼주었다.

김발이 물물 서러오르는 그 물이 어찌나 단지 중해는 잇달아 찬물을 한사발 들이켰다.

《이게 어디 옛이나요?》

그러자 모두들 웃었다.

《그건 옛이 되기전의거야.》 할아버지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꺼질꺼칠한 손바닥으로 잔등을 쓸어주었다.

《할아버지네 집이 너희 집보다 좋지?》

할머니가 사발을 받아주며 넌지시 물었다.

《어떠냐?》

《응, 좋아요.》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할아버지는 《허어.》하고 외마디소리를 흡족하게 뽐냈이었다. 그리고는 어떤 알지 못할 노래를 입속에서 흥얼흥얼 굴리는것이였다.

...차창으로는 낮선 산이며 집이며 사람들이 연거퍼 지나갔다. 차칸나들문이 열릴 때마다 쇠바퀴소리가 크게 들리곤했다. 중해는 이따금씩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집이 그리워졌던것이다. 그새 얼마나 달라졌을가.

렬차는 바다가를 달리고있었다. 온 바다가 어깨를 들썩이며 차창앞으로 다가오는것 같았다. 창가에서 밑으로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바다가의 백사장까지 밀려올라온 파도가 흰 거품을 뿌리며 반짝반짝 부서지고있었다.

《아?!》 중해는 불쑥 일어섰다.

과학잡지를 보던 아버지도 창가로 머리를 돌렸다.

차창밖으로 아카시아나무언덕이 지나가고있었다.

《뭐냐?》

《저거요, 저거.》

《아카시아나무말이냐?》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응대하고는 다시 잡지를 들었다.

다음순간 중해는… 우울해졌다. 그제서야 자기가 마을의 《숲》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아버지네 집에 가있는 동안 《숲》이 한번도 생각나지 않은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소나무가 싱긋한 향기로 속삭이는곳, 가시잎들이 훑날려 내려앉은 떨기나무, 제철소마을의 아침을 노래하는 이름모를 새들의 《무대》, 한낮이면 활짝 핀 비비추에서 일어나는 자지색불길, 더더욱 영글은 해빛의 감미로움, 아리송한 꿈 그때 중해의 머리속에서는 왜서인지 서글픈 생각이 피곳 지나갔다. 할아버지네는 그냥 거기서만 살겠지? 일없어, 할아버지는 감자도 잘 구우시구 할머닌 또 엿을 잘 만드시는데 뭐.

…중해는 학교에 방학숙제장을 바치고는 곧장 《숲》으로 갔다.

목덜미를 파고드는 산산한 바람조차 《숲》의 싱그러운 냄새를 실어다주었다.

하지만… 입이 짹 벌어졌다.

《숲》의 입구며 그 앞의 공지에 일판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길을 닦기도 하고 세멘트몰탈을 이기기도 하였다. 울퉁불퉁하던 옹벽도 매끈하게 미장되었고 지금은 그우에 무슨 부각무늬를 붙이고있었다. 옹벽옆에는 자그마한 정각무늬를 붙이고있었다. 옹벽옆에는 자그마한 정자까지 아담하게 세워졌다. 벌써 정자의 지붕에 기와를 씌우고있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납작한 차돌들을 그 좁하게 깔아놓았다. 그 가까이 코끼리모양처럼 보이는 벽체 두개가 나란히 세워졌는데 거기서 동사무장아저씨가 사람들과 함께 한창 미장을 하고있었다. 아이들은 정자에 올라가서 작업장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큰애들은 어른들의 일을 돕기도 했다.

중해는 마을쪽에서 경기장뒤를 돌아 화물자동차가 오는것을 보았다. 차가 작업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적재함에 썩은 방수포를 벗기고 세멘트를 부리우기 시작했다. 중해는 세멘트먼지를 피해 저편으로 가는 운전수에게 달려갔다.

《여기다 뭘 만드나요?》

《만드는거야 많지.》

《왜 만드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난 싫은데…》

중해는 정든 자기의 《숲》이 줄지에 없어지는 것만 같았다.

운전수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싫다니? 공원이 건설되는게 싫단 말이냐?》

《공원이요?! … 본래보다 더 잘돼요?》

그는 중해의 코등을 살짝 튕겨주며 《그럼! 더 멋있지.》 하고는 가버렸다.

《숲》속에 어둠이 물려들었다.

일은 저녁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옹벽앞에 불을 피웠다. 《숲》에서 삭정이 몇가치를 주어다가 장난삼아 피우던것인데 동사무장이 잘한다고 취주는 바람에 모닥불을 큼직하게 만들었다. 중해는 집에서 장작까지 가져왔다. 불주변이 제법 훈훈해졌다.

작업이 끝나자 사람들은 불무지에 둘러앉았다.

동사무장아저씨는 작업장을 한바퀴 돌고 맨 나중에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옹벽우에 있는 소나무주변에서 주은 마른 나무가지들이 들려있었다. 모닥불은 활활 타올랐다.

불송이들이 휘감쳐오른 맨우의 잔가지들이 서서히 구부러지다가 불씨를 날리며 맥없이 끊어져 나간다. 그 토막들은 불송이를 하나씩 이고 불무지속에 떨어져 들어간다. 잔가지들을 얼마나 많이 주어다 불을 땀는지 빨갛게 단 토막들이 밑에 무드기 쌓였다.

사람들은 가벼운 바람결에 일어나는 불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였다.

《거 좋군.》

아이들도 어른들의 째에 끼여앉았다.

동사무장아저씨가 누군가 불을 붙여준 담배를 받으며 입을 열었다. 《요새 여기를 꾸리느라 니…》 모두들 동사무장아저씨에게 눈길을 돌렸다.

《숲》속은 깊은 고요속에 잠겼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한 친구가 생각나는군.》

여전히 불길은 좋았다. 그통에 불빛이 미치지 않는 《숲》저쪽이 좀 어둡게 느껴진다. 그러나 불길에서 일어나는 나지막한 소리속에는 다정함과 은은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어떤 부름이 있었다.

《김명철이라구 우리 제철소마을 사람이었는데…노래를 잘 불렀어. 하두 노랫 잘해서 음악대학에까지 가게 됐었으니까. 우린 조국해방전쟁 전기간 포련대 정찰수로 같은 분대에 있었지.》

그의 얼굴에는 끝없는 추억의 빛이 드리워있었다.

《우리 부대는 전선동부의 중심에서 좌측으로 좀 떨어져 위치한 335고지를 차지하고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정말 싸움이 치열했다. 고지에는 우리 방어선에서 적들쪽으로 쑥 빠져져나게 솟아있는 벼랑이 하나 있었지. 거기서 내려다보면 적들의 진지나 우리 진지가 한눈에 굽어보일 정도로 벼랑이 높았어. 벼랑우에는 소나무가 무성하고. 부대에서는 그 소나무벼랑에 전방포사격지휘소를 두고 놈들에게 되젠 골탕을 먹였지. 그래 그것들이 벼랑을 타고갔으려고 별짓을 다했

는데 우리가 어디 순순히 내줘? 마지막에는 벼랑에 대고 포사격을 냅다 해대더군. 아무리 어쩌두 점령하긴 틀렸으니까 벼랑우의 소나무라도 싹 없애버리자구말이야. 결국 벼랑을 한벌 짝 덮었던 소나무들이 거의 다 불타버리구말았어.

어느날 벼랑으로 올라오는 적들과 한차례 치르구 휴식할 때였다. 포격에 파괴된 지휘소를 복구하고 저마다 담배를 한대씩 붙여두는데 그날따라 명철이가 노래두 안부르고 가만 앉아있지 않겠니? 전투휴식참이면 늘 노렐 했는데... 오죽 노래를 좋아했으면 분대동무들이 그를 보구 <노래인생>이라고 했겠나. 헌데 그날 이상하게 침묵을 지키고있었네. 내가 왜 그러는가구 물어보는데두 아무말없이 그냥 포격에 꺾어져서 흰 살이 드러난채로 사방 널려진 소나무토막들을 바라보기만 하더군. 그러다가 밀도끝도 없이 <중흥이, 아무래두 여기가 비슷해.> 하더군. 그는 분대가 소나무 벼랑에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그곳이 자꾸 우리 마을 여기 숲하구 비슷하다는거야. <정말 그렇게 보여? 에이, 자꾸 그렇다구 생각하니까 비슷해보이겠지 뭐.>

난 여느때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데 가만 보니 명철의 눈이 축축하게 젖어있지 않겠나.

<집생각이 나서 그래.> 하면서 슬그머니 머리를 떨구더군. 나는 명철이가 <집생각이 난다>구 하는 말이 무슨 소린가를 잘 알고있었다.

우리가 군복입구 마을을 떠날 때 동사무장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며칠전 놈들의 폭격에 나무들이 엉망이 된 여기서 아들을 바래워주었다. 어머니는 소나무림이 제철소마을의 자랑이라며 늘 돌보곤했었지... 가지가 부러지구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을 손질하다가 군복입은 명철의 모습을 보고

어찌나 대견해하던지... 사실 저 중해의 아버지랑 우리 동무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바로 여기 소나무숲에서 음악대학에 가는 명철이를 위해

송별식 겸 오락회를 하자고 그의 어머니와 약속했었어. 헌데 우리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터질줄이야... 대학생복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전쟁을 이긴 다음에 대학에 가도 된다고 몸성히 잘 싸우라고, 이제 전쟁이 끝나 너희들이 돌아올 때면 이 어머니인 여기 소나무숲이랑 마을을 다시 잘 꾸려놓고 맞아주겠다고, 그때 전승축하 겸 명철이 대학입학축하연을 본래계획대로 이 숲속에서 멋있게 하자고 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과 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구 숨치고말았다. 우리가 군대에 나온지 1년만에 놈들의 폭격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명철인 <우리 마을 나무들두 여기처럼 됐겠지? 전쟁이 끝나 집에 가면 어머니대신 내가 소나무를 많이 심겠어.> 하구 말했네. 그리고는 웃주머니에서 정치부중대장이 갖다준 <전호숙의 나의 노래>악보종이를 꺼냈어.

명철이가 들여다보는 악보에 눈물이, 그의 눈물이 툭 떨어졌어.》

동사무장은 잠시 말을 끊고 그때까지 들고있던 주어온 나무가지로 불무지속을 한번 쭉서주었다. 그러자 조금 숙어들었던 불길이 확 퍼져오르고...인츰 그가 쥐고있는 가지에도 불이 당졌다.

《그런데... 다음날이 전승날이었는데... 그... 그 전승날 새벽전투에서... 헉... 전사하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고향에 돌아갈 그날, 바루 여기에 소나무를 심을 그날을 그리며 부르던 <전호숙의 나의 노래>악보를 군복주머니에서 다시 꺼내보지도 못하구... 정말 억이 막히더군... 전쟁이 끝난 마을에 돌아온 나는 중해의 아버지와 함께 명철이를 생각하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래워준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다.》

동사무장은 가까스로 병글썩 웃으며 턱으로 웅벽을 가리켰다.

《그때 우리가 명철의 뒤편으로 심은 소나무가 저우에 있는거야.》

중해는 검붉게 상기된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들었다.

동사무장의 머리너머에 제철소의 검은 형체들이 산발처럼 솟아있었다.

전호숙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올라가라

...

동사무장이 옆에 앉은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소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을 뿌리는 모닥불과 더불어 모두의 마음을 숙연히 괴워올리고있었다.

제철소의 하늘이 갑자기 붉어졌다. 그 거대한 빛발에 《숲》속의 나무우듬지들까지 불그스레하게 되었다. 중해는 웅광로에서 쇠물을 뽑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언제인가 아버지에게서 들었었다.

...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서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사람들이 동사무장의 노래를 따라불렀다.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노라

《숲》속에 서늘한 바람이 아까보다 세게 불어왔다. 소나무우듬지들이 《좌-》하는 소리를 내며 설레인다. 그러자 웅벽에 기여오르고 정자처마에 뻗어붙고 차돌을 깬 길바닥에 나가누웠던 사람들의 엷은 그림자가 하늘을 향해 훌훌 뛰어올랐다.

...송정화는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다른 사람의것처럼 여겨지고있었다.

누군가 먼데서 말하고있는듯했다.

《우리의 공원이 꾸러진 다음에 마을아이들은 <숲>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숲>은 군사놀이 하기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군사놀이할 때면 웅벽을 <성새>라고 불렀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웅벽 밑에 었드리면 제법 엄엄한 침묵이 잔등우에서 기여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학생동무들,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하나의 자그마한 추억에 불과하지요.

동무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 대하여, 매일 다니던 학교길, 지어 고향의 날씨에 대하여. 얼핏 보기에는 평범하고 실지에 있어서는 하찮은 일들도 동무들의 앞으로의 나날에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낼것입니다.

동무들, 그 추억을 사랑하십시오. 그 추억앞에 충실하십시오. 삶의 마지막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동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대한 추억, 우리 아버지들의 영원한 삶의 노래처럼 울리는 공원의 소나무숲의 설레임소리를 가슴속에 다시금 새겨안고 부대르며 납니다.

4월 1일 역기다림칸에서.》

처녀가 편지를 다 읽고나자 교실안에는 한순간 정적이 깃들었다. 그 정적마저 또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는것 같았다.

정화는 편지를 가슴우에 꼭 가져다댔다. 중해의 추억속에 간직된 소나무숲의 그늘아래에 금시 들어서고싶었다. 이름모를 새소리며, 솔향기며, 파르스름한 새벽안개를 가슴속에서 일일이 다 되새겨보고있었다. 하여 교실안에는 시큼한 솔잎냄새가 습배여있는듯... 정화는 나무들의 실레임소리를 듣고있었다. 들꽃의 낮인양 상긋한 향기가 학생들의 눈빛에서 감도는듯... 정자지봉의 기와도 보고있었다.

《그런데...》 하며 가운데 창문가에 앉아있던 학급반장이 일어섰다.

송정화는 어리둥절해졌다. 불현듯 학급반장의 얼굴이 인민학교 학생처럼 무척 어리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정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난것인지... 학급반장은 웅벽우의 소나무를 울려다보고있었다. 정화는 마음을 진정하려고 나들문쪽으로 몇걸음 옮겨갔다.

《선생님, 아저씨는 왜 떠났습니까?》

학급반장의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렸다.

정말!?

정화는 책상들사이로 다시 걸음을 옮긴다. 왜 다시 부대르?...

처녀의 머리속에는 중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공원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동사무장을 바라보던 때의 모습이였다.

중해는 조용히 웃고있었다. 거기에는 어찌할수 없는 서글픔과 다행스러움, 기대가 어렸었다. 아니, 기쁨같기도 하고 존경같기도 한것인데... 또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 더욱 심원하고 보다 아득한, 정화 자기로서는 쉬이 헤아려낼수 없는 그런것이여서 자신이 막 야속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동사무장할아버지는 병사의 그 심정앞에서 머리를 끄덕이지 않았던가. 그들은? 과연 그들은 무엇을 생각한것인가?

문득 정화의 시선에 띄우는 동사무장, 아, 할아버지.

학생들의 눈길이 그를 따라 동사무장에게로 쏠렸다.

로인은 결상등받이에 기대고있던 몸을 책상앞으로 활달하게 당기며 그우에 팔을 올려놓았다. 마주 잡은 두손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리더니 《군대아저씨가 왜 떠났는가?》 하고 먼저 말을 꺼냈다. 그 혼연스런 목소리에는 교실안의 분위기를 한결 일신시키는것이 있었다.

송정화는 동사무장의 옆자리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래... 선생두 알테지, 지난해말이요, 내가 9.9절을 맞으며 군인들이 맡은 도로건설장에 우리 마을 원호물자를 가지고 갔다온걸.》

알고있었다. 그때 바로 정화가 학교에서 준비한 세면도구며 모표땀개, 위문편지들을 그에게 가져다주었던것이다.

《그럼?!》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동사무장의 낮으면서도 신명에 겨운 목소리는 그대로 섬세하면서도 정열적인 음악선율을 들을 때처럼 정화에게 선명한 화폭을 안겨주고있었다. 로반공사가 진행되는 도로건설장전경이 정화의 눈앞에 다가왔다.

...도로가 지나가는 산기슭에서 웅벽공사를 하는지 군인들이 집채같은 바위에 대고 함마를 휘두르기도 하고 밑에서 압송기로 몰탈을 쏘울리기도 하였다. 산기슭을 지나면 도로가 입구확장을 하는 골안으로 뻗어들어갔다.

《아니?! 이거...》 동사무장은 영예게시판에서 저쯤 떨어져서 려단정치부 일군과 이야기하는 동지도원녀인을 찾았다.

녀인은 로인의 놀란 목소리에 얼른 다가왔다.

소좌도 무슨 일인가싶어 이쪽으로 돌아섰다.

《저거-》 하며 동사무장이 황급히 영예게시판에 붙어있는 한 사진을 가리켰다.

《어느겨말입니까?》

《아- 저 가운데줄 두번째... 수산물직매점 앞집 중해가 아닌가말이야?》

중년의 녀인도 《수산물직매점 앞집》이라는 말에 황황히 눈여겨보았다.

《아이고나, 맞아요. 밑에 이름이 있지 않아요.》

《허참… 떠날 때 왜선지 저녁석을 만날것만 같더니…》

《정말 여기에 동원됐다고 했지요?》

그들의 눈빛이 시름겹게 꺼져든다.

굴입구를 확장하는 작업장쪽에서 손풍금소리가 울리더니… 누군가 노래를 부른다.

《왜 그러십니까?》 영문을 몰라하는 소좌에게 로인은 선뜻 응대할념을 못했다. 한숨을 내쉬며 돌아설뿐.

《오, 저 중해동무말입니까? 러단적으로 유명자인 착암명수구, 또 독창가수지요.》

동지도원녀인이 뭐라고 했는지 소좌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러니까 중해동무를 아십니까?》

《우린 저애 집이 있는…》

《아, 그렇습니까… 가만, 이자 좀전에 여기 어디 있었는데…》

소좌는 재빨리 작업장들쪽으로 돌아섰다. 중해를 데려올 차비다.

《참, 저기 있지 않습니까. 노렐 부르는…》

소좌의 좁은 얼굴복판에서 틀지게 솟으며 인증우로 쭉 내려온 코끝이 더 예리해지는데었다. 그의 활달한 웃음이 굴입구쪽으로 날아간다. 거기서… 한 병사가 타는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중해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허영계 돌가루가 낀 철갑모를 쓰고 고무장화를 신었다. 소좌는 중해가 러단에술소조원이고 지금은 매일모래 하게 될 9.9절경축공연을 위한 연습을 한다고 알려주었다. 《…전투휴식참에도 해대지요. 락천갑니다.》

중해의 노래소리는 해살을 안고 고요히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희색비둘기를 련상케 했다.

《전호숙의 나의 노래…》 하고 로인이 혼자말처럼 중얼거린다.

《저 노래가 말하자면 중해동무의 <지정곡>같은 거지요. 자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한다면서 늘 부른답니다. 이번 공연에두 저걸 가지구 출연하지요.》

《그래요?!》

동지도원녀인이 어딘가 놀라움에 실린 목소리로 소좌에게 응대했다.

《…그래…》 하면서 로인은 다시 묵묵히 소좌와 녀인을 외면한다. 그의 입에서는 《그 사람이 좋아했지.》 하는 소리가 가늘게 새나온다.

소좌는 이상한 감을 느꼈다. 《왜 그러십니까?》

《머칠전에… 아버지… 돌아갔다우.》

녀인의 말이 몹시 떠듬거린다.

《중해동무네 아버지가 말입니까?》

해별에 타서 그런지 가뜩이나 살빛이 철색인 소좌의 표정이 더 컴컴해졌다…

《고향사람들이 왔다는걸 알자 중해가 막 달려왔어. 우린 사실대로 다 말해주기로 했다. 아버지의 유언도 있구 해서… 나와 그의 아버지인 딱친구

였지. 어릴 때부터 아래웃집에서 함께 자랐구 학교다니 할 때도 이렇게 한교실에서 공부했구, 정이 각별했다. 내가 전후에 돌아와보니 제철소 소결직장에서 책임기사를 하고있었었지. 우린 공원의 소나무들도 같이 심었구 제철소복구에도 같이 나갔어. 세월이 흘러 중해의 아버지는 제철소가 다 아는 계획일군이 되었다. 헌데 요 몇년간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만 하다나니 덜컥 병이 났구나. 그는 자기 몸이 며칠 더 못넘긴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다음해 공장계획을 마저 다 세워놓아야겠다며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지…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 우리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글렀었어… 마지막순간엔 내 여기(로인은 자기의 오른쪽팔굽우를 짊 잡았다.)를 붙잡고 군대나간 녀석이 보고…싶다, 옛그제 그 애 편지를 받았는데… 녀석이 9.9절경축 부대공연에도 나간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중해가 예미를 닮아 목소리가 좀 별다른것 같은데, 거기 가서두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데 한번만 들어봤으면 하고는 슬그머니 웃지 않겠나. 그리구는 아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그려보는지 웃웃어린 눈길로 비내리는 먼 하늘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그 눈을 감지 못한채 사무실에서… 조만해서 웃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동사무장의 주름깊은 눈귀에 고였던 맑은것이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학생들은 어느새 그의 두리에 모여서있었다.

정화는 조만해서 웃지 않았하던 중해의 아버지 얼굴을 생각했다. 마지막순간에 지은 아버지의 웃음, 아들의 최우등성적증을 받았을 때처럼…

창밖의 어디선가 먼 기적소리가 무척 길게 울린다. 그것은 정화의 가슴속에서 미세한 파동을 일으킨다.

《그앤…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무말도 못하더군… 그저 이제 굴길을 관통하는 마지막전투를 한다면서 가봐야겠다고 하더군. 근데… 마지막전투가 일을 칠줄은… 착암을 다 하구 도화선들에 불을 달았는데 그중 두개가 웬일인지 불이 잘 달리지 않더라는지, 다른것들은 막 타들어가는데. 중해는 동무들을 피하게 한 다음 혼자서 그것들을 재빨리 손질하고 제창 불까지 달았대. 했지만… 안전구간에 들어서기전에 터쳤지. 그 폭파진동에… 그앤 자기가 영영 그렇게 됐다는걸 알구 명절날까지 온 이틀동안 밥두 안먹구 멍청히 침대에 누워만있었지. 나두 옆에서 아무말도 못했네. 기가 차서… 참… 그래두 명절은 또 명절대로 부대 9.9절경축공원이 진행돼서 그의 동무들이 중해를 데리러 군의소에 왔더군. 구경가자구…》

그날의 아픔이 가슴에 더욱 사무쳐오는지 로인은 입을 다물지 못한채 잠시 머리를 천정으로 들었다. 눈을 재빨리 습벽이며 계속했다.

《사실 동무들은 그의 가슴을 꺾어놓을가봐 그만두려고 했는데 러단지휘부에서 한사코 꼭 데려오라구 했다는거지. 공연장소에 가니 중해가 상한걸 온 부대가 알고있는 뒤여서 모두들 수군거리더군. 그 소좌가 중해와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주고는 그애 옆에 앉았네. 중해는 공연장소에 올 때까지는 모르겠던게 정작 공연이 시작돼서 두 중목인가 지났을 때는 흥분되는지 별루 긴장해하더군, 그때 소개자인 녀성군인이 무대 한옆에 나왔네. 다음 중목은 독창 <전호숙의 나의 노래>라며 출연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 글썽 리중해라고 하지 않겠나. 2대대 1중대 1소대 2분대장이라며 중해의 군사칭호까지 딱 붙여서 말이야. 온 객석이 한순간 웅성웅성했지. 중해는 머리를 푹 수그리고 어쩔바를 몰라하구. 그때였어... 전주가 흐르는 가운데 소개자처녀가 가운데마이크로 가더니 이렇게 말했어. <동지들, 우리의 주인공은, 러단의 자랑이며 우리 병사들의 사랑이었던 독창가수는 이틀전 물길을 관통하는 마지막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그만 목...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이 도로건설전투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아니 러단이 벌리던 모든 전투마다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던 그의 노래를 우리는 다시 못듣게 되었습니다. 힘겨울 때는 힘겨워서 찾았고 기쁠 때는 기뻐서 찾던 병사의 노래, 하지만 우리모두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그의 노래, 열렬한 심장의 노래가 울리고있습니다.>... 그러자... 기악반주에 맞추어 온 객석이... 합창오루...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불렀어. 모두들 노래를 다하고는 중해를 향해 박수를 보내주더군. 중해는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했구.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장한 눈물이었지...》

창문들은 타는듯한 노을빛을 교실안으로 아름벌게 안아들이고있었다. 그래서 붉은가 하면 누렇고 또 누런가 하면 붉은 저녁노을은 온 하늘을 좁다하게 하는 그 거창한 빛발의 날개들로 학생들을 일일이 안아주는것 같았다.

《... 중해는 이번에 제대되여왔을 때도 역에서 곧장 제철소로부터 갔됐구나. 아버지의 사무실을 보고싶어서... 그래서 오늘... 다시 부대로, 도로건설장으로 떠났다.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구.》

말을 끝내고 일어선 동사무장은 천천히 창가에 다가갔다. 그의 모습은 비껴드는 노을빛속에서 불그스름하게 타든다.

송정화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다시 창문너머 멀리서 기적소리가 울린다. 이번에는 먼저번보다 더 또렷하게 들린다.

순간 정화의 머리속에서 돌이켜지는 중해의 편지.

《...동무들이 졸업을 기념하여 소나무숲의 정자를 더 잘 꾸린다기에 갔됐습니다. 저도 군대에

나갈때 동사무장아저씨와 저의 아버지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 《숲》에서 철없이 군사놀이할 때부터 시작되었을 그의 복무생활, 그래서 도로건설전투의 그 순간 남먼저 몸을 던졌다. 인민학교에 입학하던 날 수많은 신입생들중에서 맨먼저 무대에 뛰어오르던 그것처럼 결국 아버지앞에, 나사자란 고향앞에 떳떳할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영원한 병사》라고 하며 다시 떠났다. 사무실에서 숨진 아버지처럼, 오늘도 설레이는 《명철의 노래》처럼, 아, 고향의 부락을 지켜, 고향에 대한 사랑을 지켜 애송나무를 안고온 병사...

동사무장은 이윽도록 창밖을 내다보며 서있었다.

마음속으로 중해가 가는 길을 그려보는것인지. 정화는 중해에 대한 고패치는 생각속에서도 어째서인지 동사무장의 얼굴에서 눈을 뗄수 없었다. 추억의 빛이 력력한 주름덜인 얼굴이다. 정력 이 있어보이지만(백살까지 산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로인이었다.) 어쨌든 늙음이 깊이 배인 얼굴이다. 오히려 그 정력조차 일흔이 다된 나이로 오는 그것을 추억의 빛발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하는것 같다. 그런데 교실안으로 비쳐드는 노을빛이 로인의 얼굴에 부딪쳐 퍼질 때 그의 검누룩한 머리칼과 어울리며 그 색조가 더 완연해진다.

《하어튼 그는 목소리를 잃었다.》 정화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고있었다. 그러도 사랑하는 노래를 이제 더는 못하게 되지 않았는가.

창가에서는 하루해의 마지막빛이 불타고있었다.

가슴이 후두둑 떨린다.

《노래라는건 애착이다. 뭔가 바치는거다.》

이건 누구의 말인가... 아, 동사무장할아버지가 그랬지.

정화는 머리속에서 그려지는 중해의 애송나무를 바라보고있었다. 웅벽우에 서있는 《명철의 노래》가 정자가까이에 있는 그 애송나무를 굽어보고있었다.

저녁하늘에서 교실안으로 한껏 휘날려오는 검붉은 빛발이 정화의 가슴속에 실려든다. 래일의 밝고 후더운 개인 날씨를 예고하는가.

그러자 래일 날씨에 대한 이 순간적인 감촉이 부지중 그를 설레이게 한다. 마을길에 흐르는 파르스름한 새벽안개, 소나무숲의 나무설레는 소리...

《할아버지.》 정화는 로인을 부르며 학생들앞으로 돌아섰다. 동사무장도 정화의 부름에 끌려 그에게 시선을 보냈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처녀의 가슴속 깊은곳에서는 노래구절이 울려나온다.

추억은 그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즐거움 봄날인가 비오는 가을인가

그의 눈앞에 중학교시절 새벽안개 흐르는 소나무숲의 정자에서 공부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비껴든다. 학생들의 모습도 나타난다. 공원에서 마을사람들과 함께 금잔디를 심고있었다. 그 하늘가에서 용광로며 공장굴뚝들이 보인다.

추억은 아름다운 내 생의 메아리

《학생동무들-》 저도 모르게 정화의 입에서 울려나왔다. 열렬한 환희의 웨침처럼, 녀의 휘날림처럼... 거의 우렁우렁했다. 오늘 하루동안에 보고듣고 느끼며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에 대

세계작가일화

칭찬속에 비낀 야유

745년경 중국의 당나라시기에 있는 일이다.

양귀비를 데리고 《침향정》에 올라 한참 무르익은 봄경치를 감상하던 현종이 흥취가 올라 신하들에게 시를 지어 흥을 돋구게 하였다.

한참후에 한 선비가 불리워왔다. 그런데 그는 술에 잔뜩 취해 황제앞에서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현종은 기분이 잡혔으나 내려다보니 자기가 얼마전에 직접 한림학사로 임명한 사람인지라 더 말은 않고 이마살만 찌프렸다.

황제의 숨소리만 달라져도 제격 알아채는 눈치 빠른 수행신하들이 곧 선비의 얼굴에 찬물을 들부어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던 선비는 자기가 불러나온 이유를 알고는 인차 옛꼭조에 맞추어 시를 지었다.

구름같은 옷자락 꽃잎같은 얼굴이여
봄바람에 나뭇기는 아름다운 작약인가
군옥산마루에 노닐던 신선인듯
요대의 달빛아래 거닐던 미인인듯

한송이 고운 꽃 향기 담백 어렸으니
무엇을 근심하리, 꿈길도 흐뭇하리
그 누가 이처럼 아름답고 고왔던가
새 단장 곱게 한 비연에나 비길런지...

(그러면 그렇겠지! 과시 사람을 잘못 보진 않았어.)

자기와 양귀비를 한껏 올리춰주는 바람에 기뻐한 현종은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 참, 명시오이다.》

《궁성의 귀한 인재로소이다.》

《새로 부임된 한림학사가 다르긴 다르오이다.》

한 공지로 뿌듯하게 되살아났다. 마치 그 모든것이 자기가 태어나기 썩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것으로 마련되어있은것처럼 여겨졌다. 또한 그 모든것은 벌써 학생들의것으로도 되어있었다.

정화는 중해의 편지를 읽을 때처럼 자기와 학생들이 지금 교실이 아니라 소나무숲속에 있는 감을 느꼈다. 학교며 창너머의 길이며 마을까지, 모든 주위환경이 온통 소나무숲이라는 거대한 녀트로 감수되었다.

그리하여 정화는 학생들앞에서 중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동사무장의 이름으로 소나무숲과 더불어 가슴속에서 울리는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바로 그들처럼 이제 머지 않아 초소로, 공장으로, 대학으로 떠나갈, 조국복무의 먼길을 걸어갈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싶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역바른 신하들이 황제에게 연방 선비를 추어올렸다.

《응, 짐의 생각도 다를바 없노라.》

무게있게 한마디 던진 현종이 선비에게 술 한잔 권하려고 할 때였다.

《저... 비연에 비긴것은 안된줄로 아오이다.》

항상 선비를 시기하여 황제에게 이런저런 말을 주어섬기며 선비를 깎아내리던 한 수행신하가 하는 말이었다.

《날씬하고 춤 잘 춰 비연이라 하였지만 그녀는 웅당한것으로 하여 비참하게 종말을 고한 녀인인줄로 아옵니다.》

순간 현종은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그도 그럴것이 양귀비로 말하면 자기가 머느리로 삼았던 녀자가 아닌가.

양귀비가 궁성에 궁녀로 나타났던 첫 순간부터 그의 요염한 자태에 눈독을 들인 현종은 처음에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었다. 그러나 주색에 이골이 난 현종은 미인을 아들에게만 맡기고싶지 않았다. 현종은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양귀비를 리혼시켜 얼마동안 절간에 은신시켰다가 인차 자기의 귀비로 맞아들였다.

양귀비 역시 현종에 짝지지 않는 애교가 철철 흘러넘치는 음탕한 녀인이었다.

현종은 패شم해났으나 자기가 한 말이 있는지라 내색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속으로 내뱉었다.

(말칙한지고...)

그로부터 얼마후 그 선비는 궁성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가 바로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리백(701~762년)이었다.

리동성

영원한 복무

리중홍

(전 호에서 이음)

편 지

나는 지금 책장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한통의 편지를 꺼내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 우리 가정을 대표하여 삼가 올리였던 편지의 사본이다.

《자나깨나 뵈고싶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흰 종이우에 나의 자필로 정성껏 박아쓴 편지를 읽어내려가노라니 그 글줄을 고르며 밤을 새던 나날들이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그것은 장군님의 높은신 신임과 배려로 예수살을 넘긴 나이에 장령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받은 때로부터 여섯달 남짓이 흘러간 주체84(1995)년 11월이었다. 그해 겨울 장군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나의 손아래동생인 중식이가 분에 넘치게도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큰 경사였다.

널리 알려져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는 영웅이 많은 나라이다.

인류력사상 가장 위대한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싸우는 그 나날에 우리 나라는 영웅의 나라, 우리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되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름없는 우리 집안에서 영웅이 났다는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사람들의 립장에서 볼 때 그렇게 레사롭게 받아안을 일이 못되었다.

옛날부터 시골태생의 이름없는 자식들이 나가 큰일을 하면 《개천에서 룡났다.》고들 했다. 그런데 그 큰일이라는것이 많은 경우 보기탓이고 생각하기탓이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존에 크게 소개되거나 어느 대학의 선생이 되었거나 배우 혹은 작가로 이름을 떨쳐도 그들은 《개천에서 난 룡》이라고 추어올리며 자기 고장의 큰 자랑으로 간주하는것이였다. 설사 그 작가나 배우, 교수선생이 아직은 온 나라가 다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방하다. 오히려 그처럼 크고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모를수 있느냐며 모르고있는 사람들자체를 의아쩍게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러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배려로 영웅을 맞이한 우리 집안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나는 너무도 놀라운 소식, 너무도 분에 넘치는 믿음과 사랑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며 이제는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장령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은 여섯달전의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 나라는 동방레의지국이다.

분에 넘치는 어떤 평가나 표창을 받으면 그것을 안겨주신분을 찾아뵈고 고맙다는 사례의 인사를 올리는것은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레의법도이다.

장령의 군사칭호를 받아안은 그날밤 나의 생각은 것처럼 높은 믿음과 배려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이를 찾아뵈우고 고마움에 겨운 감사의 인사, 반백의 머리 더욱 희어져 파뿌리같이 되고 내 육신이 땅에 물려 한줌의 진토되여도 장군님의 그 은혜에 꼭 보답하고야말 전사의 맹세를 꼭 올리고싶은 심정이였다. 마음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싶었다. 그렇지만 그럴수는 없었다.

나처럼 장군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잠 못드는 사람들은 그 얼마이며 장군님을 뵈우고저 금시 달려가고싶은 마음을 안은채 묵묵히 자기의 일터를 찾는 사람들은 또 얼마랴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하여 부대로 나와 일손을 잡았지만 그 마음은 버릴수가 없었다. 그러는중에 문득 나 자신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이 모든 심정을 편지에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장군님을 찾아뵈우고 인사를 올린다는것은 바랄수 없는 일이지만 편지로 자기의 심정을 아뢰어드리는것은 십분 가능한 일같이 생각되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가 써올린 편지로부터 나 어린 인민학교 학생이 써올린 편지까지 일일이 다 보아주시고 친히 회답서한을 보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 아니신가!

그런 장군님이시여서 나의 편지도 꼭 보아주시리라 믿음이 마음을 확 틀어잡고 며칠동안 놓아주질 않았다. 했으나 나는 끝내 펜을 들지 못했다. 원썩들과의 근 반세기동안에 걸치는 피어린 싸움에서 혁명전사의 지조를 굽히지 않은 리인모영웅이나 벌써 열살미만의 나이에 온 나라를 놀래울만한 일을 해낸 수재형의 그 학생들과 나의 경우는 다르다는 생각이 장군님께로 달리는 마음의 한끝을 소리없이 붙잡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장군님께 아뢰어드릴만큼의 큰일을 해놓았지만 나는?... 나는 해방후 이날 이때껏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기만 했을뿐이다. 그들은 편지를 받으시면 장군님께서 인춤 아시리만큼 온 나라가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나는 그저 평범하고도 평범한 장군님의 한 전사였다.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자라고 자라올라 나는 끝내 편지를 써올릴 생각을 단념하고말았다. 그랬는데 반년남짓이 흐른뒤 또다시 그 고민이 시작된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고민은 그때의것과 조금 사정이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무얼 한게 있다고, 내가 도대체 무어길래... 하고 끝내 용단을 못내리게 만든 그때의 생각을 짊어지고 누르는 다른 강한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도대체 날마다 해마다 더해지기만 하는 장군님의 은혜에 천분의 하나,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할수 있겠는가 하는 내 나름대로의 새삼스러운 발견이었다. 아니야,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나는 자답했다.

주시는 사랑은 무한대로 끝이 없는데 바쳐야 할 나의 힘은 너무도 작았다. 받아안은 믿음은 우주처럼 크지만 보답해드려야 할 나의 능력은 너무도 보잘것 없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받고만 앉아있겠는가?

그럴수는 없었다. 혁명이시기전에 우선 인간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슬하에서 로동당시대의 행복한 대가정으로 번창해진 우리 다섯형제의 맏이로서(맏형은 전쟁때 전사했다.), 천명도 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애들의 총 가장으로서 이제는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장군님께 올릴 감사의 편지, 맹세의 편지에 쓸 글줄을 찾느라 며칠동안 갖은 신고를 다했다. 그런데 글이 잘 안되였다. 아뢰고싶은 이야기는 가슴에 콕 찔는데 어느 문장도 그 마음보다 거리가 먼것이였다. 글귀가 모자란대기보다 정작 그 용단을 내리고 앉아 곰곰히 더듬어보니 지난 반세기동안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 가정이 받아안은 행복이 너무도 큰데 비해 그처럼 큰 사랑을 기울이시여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 내세워주신 장군님께 드릴 내 가슴속의 말마디들은 너무나도 작고 유치하고 보잘것 없는 까닭이였다.

하여 나는 며칠동안 끝내 한글자도 쓰지 못한채 두분의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로동당시대의 대가정으로 자라난 우리 가정의 역사를 곰곰히 되새겨보기만 했다. 참으로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김일성**대민족의 한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라난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한 축도이기도 한것이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키쫘이 장대하고 성격이 과격한 반면에 할머니는 체소한 몸집에 성미도 펍 부드러웠다.

할아버지는 목청이 굵고 높은것이 특징이었는데 장마철에 큰물이 저서 강 이편과 저편을 잇는

다리가 물에 잠긴 다음 건너편마을에 꼭 알려야 할 일이 생기면 마을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오곤하였다. 온 골안을 드렁드렁 울리며 흐르는 큰 물소리를 누를수 있는건 오직 우리 할아버지목소리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런데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를 《게사니령감》이라고들 불렀다.

그 《게사니령감》이 한겨울 해질무렵이 되면 온 마을을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장손아》, 《장손아!》 하고 밖에 나가 정신없이 놀군하는 우리 형제들을 불러들이곤했는데 그 소리가 10리는 들릴거라고 마을사람들이 말하던 생각이 기억된다.

동네방네 흩어져 얼음지치기, 눈썰매타기 등 놀음놀이에 빠졌다가 그 쨍쨍 울리는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면 할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방안에 무릎꿇려 앉혀놓고 지난해 가을 제손으로 한알두알 주어 모아둔 밤알들을 자기의 껌딱지안에서 서너알씩 꺼낸주곤하였다.

그런데 겨울에 먹는 그 밤맛이 참 별맛이였다.

4대독신으로서 대대로 지주집머슴을 살아왔는데 슬하에 또다시 아들 하나밖에 두지 못한것을(우리 아버지도 5대독자였다.) 늘 불안하게 여기며 실날같은 가문의 명줄이 혹여 끊길가봐 화전군의 고생살이속에서도 늘 속을 썩은 할아버지였지만 속엔 강한 정의감을 안고 살아왔다. 언젠가 그 정의감때문에 붓글씨를 잘 쓰는 우리 아버지에게 글을 써달라고 찾아왔던 마을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뒤통을 맞고 쫓겨가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할아버지는 성이 독같이 올라서 아버지가 켜 붓대를 뺏어 탁 땡개쳐버리고는 그 높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되게 닦아세웠다.

《임자가 저 사람들한테 글을 써주면 저 건너 대서방집에선 굶어죽게 된다는걸 몰라? 무슨 재간을 가진 량반일수록 도덕을 지킬줄 알고 의리를 중히 여길줄 알아야지 그럼 못쓰네.》

그 말에 글쓰러 왔던 사람들은 들고왔던 물건들을 걷어가지고 슬금슬금 달아났고 우리 아버지는 그후 단 한번도 손에다 붓을 들고 남의 글을 써주지 않았다. 대서방보다 글을 더 잘 쓰기때문에 왔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그 충고가 그만큼 아팠던 모양이였다.

우리 할머니는 머리가 영특한편이였다. 5대독자외아들을 공부시키느라 손에서 일손을 놓지 못하면서도 아버지가 공부하느라 중얼거리는것을 곁에서 물레질을 하며 귀동냥해 들은것으로 《천자》니 《소학》이니, 《대학》이니 한것들을 말끔히 따로 외워두었다가 우리한테 옛말처럼 배워주었다.

나는 우리 글과 한자를 할머니한테서 배우기 시작했고 나서자란 내 고향에 깃든 갖가지 전설들과 옛말들도 다 할머니한테서 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를 닮아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몸집이 단단한데다 머리가 좋고 손재간이 있었다. 붓글도 잘 썼지만 무엇이든 한번 본것이

면 못만드는것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장가들 때 색시한테 신겨줄 갓신을 구할길이 없게 되자 밀짚속초리에다 고운 물감을 들여가지고 밤새 제손으로 꽃신을 삼았다고 한다.

《그 신이 얼마나 고왔는지 모른다.》 하고 후날 어머니는 우리에게 몇번이나 이야기해주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닮은데가 있다면 대가 세고 정의감이 강한것이었는데 바로 그 덕에 해방전 우리 마을에서 서당을 걸쳐 국민학교, 2년제 고등까지 공부한 유일한 식자였으므로 면청에 올라와 서기노릇을 하라는 권고도 몇번이나 받았지만 매번 거절해 버렸다.

그런 아버지였지만 해방이 되자 마을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군보안서에 올라가 보안서원이 되었다. 그러다가 3년후에는 우리 고향마을에 내려와 면분주소 소장사업을 맡아하였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그때 아버지가 공민증등록발급사업을 잘한 공로로 받은 표창장이 렐사증과 함께 그대로 보관되어있다.

해방을 맞고 제손으로 처음 공화국을 세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새 공민증을 내어주려고 손에다 펜을 잡은채 꼬박꼬박 밤을 밝혀가며 일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보는것만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주소장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그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련만은 새 조국을 일떠세운다는 열의를 안고 네일내일 가림없이 있는 힘껏, 있는 재간껏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두몫, 세몫씩 해제졌던것이다. 바로 그처럼 양양된 열의가 있고 비등된 노력이 있었기에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러도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고 3년간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세계《최강》을 으시대는 미국놈들을 무릎꿇릴수 있었던것이다.

아버지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나고 재진격이 바야흐로 시작될무렵 덕천해방전쟁에서 전사하였다. 그때 덕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사에 기록될 만큼 큰 전투들이 여러번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명령을 받고 들어온 인민군대의 중소집단들과 군내무소와 면분주소 내무원들로 조직된 부대들이 두번에 걸쳐 덕천시가지를 해방했던 것이다.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승리산》이라고 이름지어주신 광이재(고양이가 엮드려있는것처럼 생긴 산이라는 뜻)기슭 어딘가에 우리 아버지를 묻었던 옛 무덤자리가 있을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떼를 써가지고 곧 군대에 나가다보니 나는 아버지의 최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조국해방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다음 어머니를 통하여 그리고 당시 열세살 어린 나이로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을 갔다온 동생을 통하여 전해들었을뿐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눈물겹도록 생동했던지 나는 내가 직접 체험했던 일처럼

그것을 생생하게 그려보군한다.

...어느날 아버지가 총을 멘채로 불쑥 집에 들어와 이제 곧 남은 아이들을 데리고 뒤흘쪽으로 들어가라고 어머니에게 말한다기보다 지시했다. 먹울것, 입을것들을 쫓겨가지고 들어갔다 미국놈들을 내몰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시 나오라고 이르고는 곧 나가버렸다.

그것이 덕천방어전투를 며칠 앞두고 어머니에게 한 아버지의 말이였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였고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음성이였다.

촌너자치고 꽤 당돌한편이였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곧 세 남동생과 두 녀동생(일곱남매중 형과 나는 전선에 나와있었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아버지가 분주소일만 일이라 해가지고 가정일에 통 무관심이다보니 원체 가산이 얼마 없는데다 그나마 얼마간 먹고 입고 쓰고살 식량, 속옷, 모포 등속만 끌라낸 다음 나머지는 다 내버리고 그냥 떠났다. 식량은 열세살짜리 셋째와 열살짜리 넷째가 제힘에 맞으리만큼씩 갈라졌고 옷보통이와 모포는 막내동생을 업은 몸인 어머니가 이고 여덟살짜리와 다섯살짜리 두 누이동생들은 제발로 해종일 걸어서 가달은곳에 덕천군 잠상면 내포리였다. (지금의 삼흥리, 옛날에는 세계의 리로 되어있었는데 지각변동으로 대동강상류의 물매가 급해지기전까지만 해도 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길상리, 선가리, 내포리라고 불렀었다.)

어떤 농가에 들러 하루밤 자고 주인집 일도 도와줄겸, 마을형편도 알아볼겸 물동이를 이고 박우물터에 나갔던 어머니는 그곳에서 뜻밖에도 차기를 알아보는 한 중년녀인을 만났다.

우리 어머니를 보자 안고오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반기는듯이 달려온 그 녀자는 《아이구나, 이게 저아래 분주소장집택이 아니요!》 하고 여간 기뻐하지 않더라는것이였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생각이 깊었다. 적들이 여기까지 밀고 올라오지 않는다는 담보는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물가에서 만난 그 녀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말이 한입건너 두입건너 돌다가 나쁜놈들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자기는 물론 귀한 자식 다섯생명이 위태로왔다. 떠나야 했다.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하여 떠나야 했다.

그래 짐들을 다시 쫓겨싸는데 밖에서 《<국방군>놈들이 온다!》 하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놀라서 눈에 커진 아이들을 꼭 눌러앉히고 창호지를 두텁게 바른 문밖으로 내다보았다. 가을날의 선명한 저녁노을이 비쳐내리기 시작한 마을 아래쪽으로 둥그런 철갑모들이 언뜻언뜻 보이는데 마음을 꼭 다잡고 군복차림새를 찬찬히 살펴보니... 그들은 피뢰군놈들이 아니라 인민군병사들이였다.

《애들아, 인민군대다, 인민군대야!》

어머니는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리며 소리쳤다.

《야!》하는 탄성이 동생들의 입에서 일시에 터져올랐다.

어머니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면서 꼭 닫겨진 집집의 문들을 향해 소리쳤다.

《아니요. 피괴군놈들이 아니예요, 우리 군대요. 인민군대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집안에, 울타리너머에 숨어있던 녀인들과 아이들, 로인들이 머리를 내밀고 멈칫멈칫 내다보다가 환성을 올리며 달려나왔다.

그들-인민군병사들은 저 락동강에서부터 집요하게 뒤를 물기로 하고 앞을 가로막기도 하는 적들을 답새기며 거기까지 들어온 인민군후위부대 전사들이었다.

어머니는 그들중 책임자로 보이는 상사전장을 단 사관에게 이 마을을 꼭 떠나야 할 사정이야기를 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다 듣고난 그는 여기에 눌러앉았다가는 큰일이 난다면서 자기들 대원 두사람을 부르더니 짊어졌던 배낭의 쌀을 쏟아놓고 대신 나의 어린 녀동생 둘을 각각 업으라고 명령했다. 두 대원은 가타부타없이 명령대로 했다. 참으로 고마운 군대들이었다. (같이 걸으면서 들은바에 의하면 상사는 황해도사람이었는데 여기로 들어오면서 피뜰 자기 집에 들려보니 마을에 잠입해있던 악질반동놈들이 그의 안해와 두 자식을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무참하게 때려죽인 뒤였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그 상사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며 당장 같이 가자고 오히려 제편에서 이끌다싶이한 그 심정을 알게 되었다.)

떠날 때까지는 아직 그 사정을 몰랐지만 어머니로서는 쌀대신 자기 자식들을 업고나선 그들의 성의를 그냥 받고만있을수 없었다.

그게 어떤 쌀인가! 이 마을사람들이 부디 빨리 되돌아나와 미국놈들을 몰아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넣어준 쌀이 아닌가? 그걸 버리고 가게 하다니...

어머니는 그들 몰래 이래 이고오던 옷가지들대신 그 쌀을 전부 이고 그 쌀의 중량이 무겁게 머리를 내리눌렀지만 힘든줄 모르고 따라걸었다.

《무슨 힘으로 그 무거운 쌀을 이고 60리 밤길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후날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하곤했다.

그러나... 무슨 힘으로 걸었는지 우리는 지금 말할수 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하여 그토록 귀중한 식량을 버리고나선 그 고마운 군대들과 헤어질적에 바로 그 식량을 다시 지워보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걸었을것이다.)

내포리를 떠날 때 어머니가 다음 정착하기로

예정한곳은 덕천군의 마지막 리인 풍곡리였다. 한낮이 기울무렵 군대동무들의 뒤를 따라 그 마을에 들어서던 어머니는 마을초입에 있는 조밭에서 가을걷이를 하는 어떤 녀자의 거동을 무심히 살피며 걷다가 소스라치듯 깜짝 놀랐다. 얼굴이 벌에 탈가봐 흰 수건을 깊이 내려쓰고 느릿느릿 조이삭을 베고있는 그 녀자는 왜정때 잠상면에서 공의사노릇을 해먹던 사람의 녀편네였던것이다.

조국이 해방되자 아이들은 죄다 월남해버리고 그의 남편은 공화국제도를 비방중상하며 못되게 굴다가 끝내는 법기관에 잡혀들어갔었다...

여기도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다시 머리를 쳤다. 했으나 바쁜 길을 걷는 군대동무들한테 더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 어머니는 그 녀자네 마을이라고 짐작되는 동네를 멀리 벗어나자 이젠 다 왔다고 했다. 군대동무들은 줄곧 업고오던 나의 녀동생들을 내려놓고 승리한 다음 다시 만나자며 곧 떠났다.

떠날 때 어머니는 그들의 훌쩍해진 배낭에다 여태 이고온 쌀을 도로 넣어주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는 입을 항 벌린채 아무 말도 못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고 그 무슨 힘으로도 꺾을수 없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힘! 그것앞에 놀랐고 또 그것앞에 머리를 숙였으리라!

그곳에서 어머니는 다섯아이와 얼마 남지 않은 길량식을 이고 또다시 백오십리길을 걸어 이틀만에야 희천에 가달았다. 그리고 덕천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올 때까지 얼마동안 어느 마음좋은 할머니네 집에 그야말로 여섯식구가 《무전류숙》하면서 전선원호사업을 도왔다. 그러다가 덕천해방소식이 전해져오자 그날로 또다시 집을 궁져이고 고향으로 나왔다. 고향에서는 가슴아픈 소식이 어머니와 다섯동생을 기다리고있었다.

그 아픈 소식을 어머니는 덕천시가지로 들어서 는 길가에서 접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덕천시까지 입구에 당도한 것은 그해 11월 중순 한낮이 기울었을무렵이었다.

전투는 그 전날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랑 있던 희천에 와닿은 덕천해방소식은 채 해방되기전에 이곳을 떠나간 소식이었다. 아마 덕천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것이 확실해지자 그 소식이 발에 날개를 달고 희천까지 날아온 모양이었다.

덕천시내를 얼마 앞둔 행길로 여섯이 힘겹게 걸어오는데 저편 밋미스름한 산등성이 꽤 큰 소나무앞에서 웬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있었다. 머리를 수그린채 서있지도 하고 허리를 구뿔거리며 흠을 퍼올리기도 하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느라니 총을 멘 내무서원들과 무장자위대복장을 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어느 내무원이나 혹은 자위대원이 잘못되었는가부다 하는 생각으로 눈길을 떼지 못하고 걷는데 조금 뒤떨어져 걸어오던 넷째가 《어머니! 저거 아버지 가방!》 하고

소리쳤다.

그바람에 모두 문득 서버렸다.

그애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눈을 모아 바라보니 웬 사람이 손에다 길다란 끈을 바투 모동켜 쥐고 서있는 적갈색의 야전가방이 보였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여서 아버지가 늘 메고다니던 가방인 것을 인츰 알아볼 수 있었다.

혹시 아버지네 내무원이... 하는 의혹으로 어머니는 저도 모르는 사이 그리로 발걸음을 돌렸다. 아버지가 거기 있을 듯해서였다. 아버지가 있으니 가방도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동생들이 따라오는 것을 거기 있으라고 제지시켜 놓고 어머니만 홀로 갔다.

누군가를 금방 묻고 한창 성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알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여 눈여겨 살폈으나 어머니의 눈에 걸리는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방을 들고 서있는 내무원 복장의 사람에게로 곧추 다가갔다. 그런데 어쩔 일로 그가 뒤걸음 옆으로 옮겨가자 불그스레한 봉분앞의 대돌우에 놓여있는 낡은 제모가 화살처럼 어머니의 눈속으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모자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피신시키려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 모자를 쓰고왔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모자를 대뜸 알아보았다. 모자에 류다른 표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늘 문앞에서 받아 벽에 걸어놓아주곤 하였고 아침에 집을 나설 때면 벗겨다 손에 쥐여 주곤 하던 그 모자를 어머니는 룡감으로 알아본 것이었다. 또는 아까부터 보아오던 남의 손에 들려있는 아버지의 그 야전가방이 한발 먼저 그 어떤 예감을 시사해주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남에게 절대로 자기의 짐을 들리우는 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어머니!》

몇 걸음 걷다 말고 뒹없이 서있는 어머니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동생들이 부르는 소리였다. 그바람에 뒤쪽으로 얼굴을 돌리던 몇 사람중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이거 승하소장동무의 아주머니가 아니시우?》

그러자 모두의 얼굴이 어머니 쪽으로 일시에 향해졌다. 그러더니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슬며시 얼굴을 돌리거나 눈길을 떨구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몇 걸음 다가오더니 축 늘어뜨린 어머니의 팔을 짹 붙잡고 울먹울먹한 어조로 뜨직뜨직 말했다.

《원, 일이 공교롭기란... 이런 때 여길 지나갈 건 뭐요?》

그러더니 설레머리를 저으며 금방 던진 자기의 말을 스스로 부정했다.

《아니, 아니, 아무래도 알게 될 걸 제때에 왔수

다. 허, 올바하군 조금만 더 빨리 왔어두...》

말을 채 끝맺지 않고 그는 아이들을 손짓해 불렀다.

《이녀석들아, 이리 오너라!》

그러는 것을 어머니가 반대했다.

《뒤두시우, 그애들은 모르는 게 낫수다.》

《아니, 조그만 애들은 몰라도 큰 애들은 알아야 합니다. 애, 사내들만 오너라.》

셋째와 넷째가 영문도 모르고 왔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들을 굽어보는 어른들의 침울한 얼굴빛과 쓸쓸하기 짝없는 주위공기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차렸다. 허나 울지는 않았다. 울어야 소용없다는 것을 그 조그만 애들이 알았더란 말인가? 아니면 그 잔혹한 전쟁이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응당 흘려야 할 눈물마저 다 앗아갔는지...

아버지의 가방을 들고 서있던 사람이 셋째를 생뿔이 무드기 쌓여진 봉분앞에 바투 데려다 세우고 말했다.

《잊지 말어라. 너희 아버지 어제 있는 덕천해방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문건으로 남겨두겠지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가슴속에 새겨두고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단단히 기억해둬라. 이 소나무를 말이다. 이 소나무 밑에 너희 아버지가 누워있다. 지금은 여기다 이렇게 쓸쓸하게 홀로 묻어두지만 앞으로 큰 렬사묘를 만들고 거게다 안치하게 될 것이다. 그뻘 이 소나무를 표적삼아 찾아가거라.》

그 자위대장(그는 그곳 자위대장이었다.)의 말대로 조국해방전쟁이 끝나고 50년대도 이속해갈 무렵 당에서는 북창읍 가까운 양지바른 산기슭에 큰 렬사묘를 만들고 덕천해방전투에서 희생된 우리 아버지도 거기다 안치하도록 했다.

아버지의 묘소를 옮기는 작업에는 당시 이웃 군안전부지도원으로 있던 셋째가 갔는데(나는 그때 고향을 멀리 떠나와 군관복무를 하고 있었다.) 자위대장의 말을 듣고 단단히 기억해두었던 곳으로 가보니 그 소나무도 봉분도 없었다. 그때는 허허풀밭이던 그곳엔 무연한 밀밭이 펼쳐져있었다. 어디가 어딘지 통 알수가 없었다.

동생은 리주재원을 찾아갔다. 리주재원은 그때의 자위대장한테로 동생을 안내해갔다. 자위대장은 그후에 있는 반동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상한 후자로 사회보장을 받고있었다. 그는 동생을 반겨맞더니 새로 발을 일군 밀밭끝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정성껏 잔디를 떠입히고 앞애다 잘 생긴 향나무까지 떠다 심은 봉분이 하나 있었다.

《협동조합이 생기구 거게다 발을 일구면서 너의 아버지를 여기다 옮겨모셨다.》

동생은 자기들이 사는 땅을 지켜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곳 사람들의 극진한 마음을 뜨겁게 느끼며 묘소를 봤다. 그런데 파놓고 보니... 팔 하나가 없었다.

의아해서 쳐다보는 동생을 바라보며 자위대장이 말했다.

《용서해다구. 그땐... 너의 어머니한테 아픔이 덧칠가봐 차마 말을 못했는데 너의 아버지 그 전투에서 팔을 하나 잃었다. 전투가 끝난 다음 살살이 훑어봤으나 끝내 찾지 못해 팔없는 시신을 못었었다.》

그 말을 들으니 슬픔보다는 감동이 더해졌다. 동생은 자위대장과 그곳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거듭거듭 사례를 표한 다음 아버지의 유해를 가져다 렐사묘에 안치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나는 아버지의 묘소를 한번도 찾아보지 못했다. 좀처럼 시간을 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엔 가 상급당조직의 권고로 시간을 내어 갔다.

그리 높지 않은 야산기슭, 사개가 흰히 트이고 북창음이 저만치 내려다보이는곳에 터를 잡았는데 아버지의 묘는 맨 웃쪽에 있었다. 누구들의 소행인지 보통날인데도 전체 묘들이 깨끗이 벌초를 한후에 맨앞의 큰 대돌앞에는 크지 않은 생화목을 몇개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이곳 소년단원들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주둔부대 군인들의 소행일수도 있었다.

오늘을 위하여 피흘려 싸우다 먼저 간 혁명선렬들과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인간의 최고의 미덕으로 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한 공산주의적 도덕의리관이 여기 이름없는 산촌읍의 이름없는 렐사묘앞에도 싱싱한 생화를 피워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코허리가 시큰해졌다. 그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한가위도 지난지 오랜 보통날이라 아무도 없었다. 저아래 누렇게 무르익은 곡식밭을 누비며 불어온 들바람이 묘소뒤편의 소나무우듬지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만이 소연했다.

저밑, 깨끗하게 벌초를 한 저 봉분아래 아버지가 누워 계시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이상해졌다. 군대에 나가는 날 난생 처음 악수를 나누고 헤어진뒤론 아버지와 이렇듯 가까이해보기가 오늘이 처음이었다. (비록 살아계시지는 않지만)

나는 수십년이라는 세월의 공간을 넘어 아버지와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문득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어느날 우리가 차지했던 계선이 비무장지대로 선정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뒤로 철수하기 앞서 숙영누나의 묘소를 찾았던 생각이 났다.

《이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누나를 찾아가봐야 하지 않겠나?》

귀뻑하듯 조용히 떠미는 세포위원장아버이의 말을 듣고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올라가니 잔디가 듬성듬성 자리를 펴기 시작한 봉분앞에 사복차림의 웬사람이 서있었다. 그는 손에다 꽃을 들고 달려온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동무가 혹시 리중흥동무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며 의심쩍은 눈길로 바라보자

그는 《내 숙영의 아버지요.》 하고나서 《숙영이가 편지마다 동무의 이야기를 썼더군. 자길 누나처럼 따르는 동생이 하나 생겼다고... 허허, 어떻게 생긴 동물가 하구 보고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참 기쁘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담고 내 손을 마구 흔들었지만 나는 내가 기쁜지 어쩐지 알수가 없었다. 그저 눈물만 났다. 그래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리니 낮익은 통신중대동무들이 삼이며 곡괭이며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숙영동무의 묘소도 옮기게 되어있었던것이다. 하긴 사랑하는 전우를 비무장지대의 《주인없는 땅》에 홀로 두고 갈수는 없는것이였다. 하여 부대에서는 묘를 옮기기에 앞서 그의 고향인 김책에 계시는 아버지를 부른것이요...

몇분동안 시간을 받고 뛰어올라갔던 몸이라 나는 그의 묘를 파는 작업을 도와주지 못한채 내려왔다. 내려오자 곧 떠났다. 그 다음은...

지금 그의 묘소는 과연 어디쯤일것인가? 혹시 그의 아버지가 고향으로 옮겨갔을까? 아닐것이다.

그의 중대가 옮겨왔은 지대의 어느 양지바른 산기슭에 묘소를 썼을것이고 지금도 그 산기슭에 묻혀 있을것이다. 또 중대의 잊지 못할 기념일들엔 그의 몇대뒤의 전사들이 벌초를 해주고 저렇듯 소박한 추모의 꽃을 없어줄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그의 생각이 들적마다 쓸쓸하고 허전하고 어딘가 울적해지곤하던 마음이 홀연 뿌듯하고 경건한 감정으로 바뀌는듯했다.

나는 그 마음을 안고 아버지의 묘소를 떠나왔다.

그렇듯 나에게서 첫 너성전우를 앗아간 그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일곱형제에게서는 아버지를 앗아갔다. 아니, 우리 형님도 앗아갔다.

형님은 할아버지를 뉘어서 체격도 장대하고 인물도 잘났는데 성격은 펍 온순하고 침착한 편이였다.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인민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그해 10월에야 군대에 나갔는데 이듬해 3월 서울 삼각산전투에서 전사했다.

전사한 뒤 인차 《전사통지서》가 왔으나 어머니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몰랐다. 리인민위원장이 남편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 아픔을 덧칠가봐 조국해방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자기 집에 깊숙이 전사해두고있었던것이다.

만 2년만에야 수신인주소를 찾아온 《전사통지서》를 받고 어머니는 울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무덤앞에서도 울지 않은 어머니였지만 그 비보앞에서는 울었다는것이다. 아마도 죽음의 무서운 때구름이 말끔히 가셔진 이제 더는 가까운 혈붙이나 이웃들이 잘못될가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때에 문득 받아안은 《전사통지서》인 까닭에 더욱 가슴이 아팠으리라.

형님까지 없고보니 집안의 다음 가장은 나였다. 그러나 나는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1년

이 지나서야 제대되었고 제대되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인차 도안전국에 소환되는 바람에 집에 붙어있지 못했다.

하여 우리 형제들중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나의 손아래동생인 셋째 중식이였다. 어머니에게는 그가 전사한 아버지 맞잡이였다. 집안의 일체 바깥일은 그때 열다섯살도 채 안된 그가 도맡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다보니 내가 제대되어 집에 갔을 때 동생의 정상이 말이 아니였다. 원래 아버지의 체격에다 어머니의 용모를 닮아 흰하고 곱살하게 생긴 녀석이였는데 얼굴이 까맣까맣 탄데다 꺼칠하게 여윈것이 어디라없이 고생의 흔적이 풍겼다. 마른일, 굶은일 가림없이 하다보니 손도 얼마나 짝짝하게 굳어졌는지 도무지 아이손같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나에게 다시 군복을 입혀 아버지가 썼던 초소에 세우자고 당에서 제기해오자 아무런 반대도 없이 선뜻 동의해나섰다.

나는 조금 망설였다.

마음은 당장 달려가서 다시 군복을 입고싶었지만 꺼질해진 동생의 정상이 가슴에 매달려 열른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동생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대답을 못하는 나의 눈빛에서 속마음을 읽었는지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부엌으로 불러내더니 옷매무시를 바로잡아 주며 말했다.

《동생들걱정은 말고 떠나거라.

요즘이야 집에 아버지들이 있어두 제집일 돌볼새가 있는줄 아니? 직장일들이 바빠서 오히려 아이들이 날마다 밥 싸들고 직장에 내다주는 판이다. 그대도 너희 동생들은 전사자가족이라고 나라에서 특별히 돌봐줘서 아버지 있는 애들보다 호강하는 셈이다. 그러구 이 에미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의 그 말쑤에 나는 그만 속이 뜨거워졌다. 조국해방전쟁 3년, 복구건설 3년동안에 몰라보게 달라진 어머니, 훨씬 더 강직해진 어머니를 본것이였다. 하긴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리당부비서사업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의 충고에서 큰 고무를 받은 나는 그 길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 정든 마을사람들과 헤어져 도안전국으로 올라왔다. 저기서 경비초소 초소장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적이 있는 도안전국 정치부장동지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몇마디의 담화 끝에 어디론가 갔다오자고 하면서 나를 이끌고 차에 올랐다. 차는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구역들을 지나 어떤 3층살림집앞에 멈춰섰다.

저기서는 우리가 경비를 맡아보는 정문을 아침저녁 지나다녀 펴 안면이 있는 도당 조직부과장동지가 우리를 맞았다. 그는 정치부장동지의 뒤를 따라 차에서 내리는 내 손을 잡더니 어서 올라가라며 친절하게 끝었다. 2층인가 3층인가 올라가니 복도 저쪽끝에 활짝 열려져있는 문가에서

역시 안면이 있는 도당 조직부부장동지가 우리를 마중나오는것이였다. 그도 어찌선지 앞서가는 우리 정치부장동지보다는 나를 더 반겨맞는 눈치였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은채 그의 집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촌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반겨맞는것이였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제 올라오셨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물었으나 어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할뿐 대답을 피했다.

얼마후 간소한 음식상이 쟁겨지고 그앞에 모두들 주련이 마주앉았을 때 그 집 주인인 부부장동지가 아래방에 대고 누군가를 찾는것이였다. 사이문이 열리더니 걸어붙였던 팔소매를 내리며 부엌에서 올라오는것은 도당 조직부의 젊은 녀성부원동무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좌중에 인사를 하고는 서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러는것을 우리 정치부장동지가 팔소매를 잡아끌어다 옆에 앉혔다.

어안이 병병해앉은 나와 앉아서도 몸돌바를 모르는 녀성부원동무를 의미심장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집 주인이 술이 가득 담긴 잔을 공연히 병글병글 돌리며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게 무슨 상이고 하니 약혼식상입니다.

신랑은 도안전국의 고수머리초소장동무고 신부는 우리 도당의 장부원동무입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는 나를 옆에 앉았던 누군가가 꼭 눌러앉히는것이였다.

부부장동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초소장동무에게는 아버지가 안계시고 우리 장동무에게는 랑부모가 다 안계십니다. 조국해방전쟁때 미국놈들에게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초소장동무는 우리 도당을 처가집삼아, 장동무는 도안전국을 시집삼아 이렇게 모여앉기로 했습니다.

본인들 서로가 다 아는 사이니 경력소개같은건 필요없겠고 중매군은 더욱 소용되지 않아 정식 이렇게 마주앉았는데 본인들이 호상 싫은데가 없다면 이것으로 약혼식을 치른것으로 합시다.

레장교환도 피차 어려운 때니 호상 그만듭시다.

집은 앞으로 우리가 맡겠습니다. 가장집물은 랑견에서 호상 서로 방조합시다.

어머님쪽에선 할 말이 없습니까?》

어머니는 무릎을 고이고 앉아 잠시 우리를 굽어보시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마도 나의 일생에 어머니의 말쑤를 그렇듯 정중하게 앉아 가슴깊이 새겨보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들 합니다. 그 고생이라는데 다른게 아니구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이애들의 아버지를 잃구 또 군대에 내보낸 만일을 잃구... 나라에선 업고다니는 막내와 네살잡이 여섯째를 내놓고 셋째, 넷째, 다섯째를 다 혁명학원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반대했습니다. 그애들을 끼고있고싶어서

가 아니라 이 에미라는게 오록이 성성해 살아있으면서 제자식들을 나라에다 맡겨 부담을 주고싶지 않더군요. 그건 먼저 간 우리 애들아버지도 좋아 안하실겁니다. 그래 품어끼고 키웠지요.

지난번 당문헌토의사업때 회의지도를 내려왔던 도당과장동지가 회의를 끝내면서 당원은 김옥녀 동무처럼 살며 싸워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남편도 없이 일곱자식을 하나도 굶은데 없이 키워서 나라앞에 내놓은걸 큰일 한것처럼 말씀합니다.

도당과장동지는 이애들을 내가 잘 키웠다고 칭찬했지만 그건 내가 키운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다 맡아 키워주셨지요. 조국해방전쟁때 잘 싸우다 희생된 전사자가족이라구 교과서 두 무상으로 내주구 학용품두 무상으로 그것두 제일 좋은것으로 플라주구 나이들면 아버지, 형님 뒤를 이으라고 중요한 초소들에 데려다 키워주구... 정말이지 난 이애들을 낳았달뿐이지 당에서 다 맡아 키워 오늘은 또 이렇게 당조직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잔치까지 해주질 않습니다.

이애들이 눈에 흙이 들어가두 그걸 잊지 말았으면... 바라는데 그것 하나뿐입니다.》

좌중에 뜨거운 박수가 일어났다.

나는 절로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내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았던 나의 약혼녀도 그날 눈물이 나오는것을 겨우 참았다고 우리 어머니이야기가 나올적마다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곤 했다.

우리는 이렇게 당의 품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오를까지 산다.

조용한 기회가 생겨 그때를 가만히 더듬어보노라면 좀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때 그들은 우리 둘을 처음 마주 앉혀놓고서도 그와 나의 의사같은건 물어보지조차 아니했던것이다. 당사자들을 제쳐놓고 문자 그대로 저희들끼리 다 해치웠다.

《싫지 않다면.》 그것이 그들이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던진 물음의 전부였다. 그나마 우리의 대답을 바라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만들기 위하네 써먹은 질문에 불과했다.

더욱 우스운것은 지금 내자신이 그들의 그 말을 곧잘 빌려다쓰곤하는 바로 그것이다. 누가 그런 문제에 대하여 물어온다든가 혹은 상대방을 놓고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을지 몰라 갈팡질팡한다든가 하면 저도 모르는사이 《싫지 않으면 하라.》 하고 조언을 주곤한다. 그러면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싫었던가? 싫지 않았던가? 하고 되새겨보는 모양인지... 그러다가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물러나곤하는데 얼마간 지나서 보면 대체로 그 상대와 인연을 아주 맺곤한다. 대개가 그렇다. 아마 호상 싫지 않았던것 같다.

우리 경우도 그랬다. 서로 견주어보며 마음을 두지는 아니했지만 부부장동지의 말을 듣고 생각

해봤을적에 실지 않았기에 그 동무도 나를 선택했으리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아직 한번 물어본적은 없지만)

결국 보면 우리는 끈거나 혹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한 상대의 용모에서 좋고 싫은것을 찾은것이 아니었다. 그 용모속에 은근히 내비치는 성품에서 호상 마음드는데를 찾았던것 같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던것은 둘다가 미국놈들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다는것과 친부모처럼 믿고사는 당조직에서 맺어주는 인연이니 등탈이 없으리라는 믿음이었을것이다.

그후 나의 동생들도 다 나와 비슷한 경우를 체험하며 자기들이 속해있는 당조직들에서 알선해준 처녀들과 만나 바로 그 당조직들이 차려주는 결혼식상 앞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도 그랬고 주체49(1960)년에 어머니마저 급병으로 사망한후에도 그랬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리당부비서, 리녀맹위원장일을 맡아해오느라 늘 바빠 지낸다는것을 고려한 까닭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이라는데로부터 그러할것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이루어진 매 가정들에서 태어난 제3세대에 속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 조카들과 며느리들, 사위들, 조카며느리, 조카사위들 모두가 손에다 총을 잡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지키는 우리 혁명의수뇌부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복무하고있다.

나는 그 모든것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꼭 말씀드리고싶었다. 저 인민군출판사에 만이를 둔 8형제군관들과 6부자비행사들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싸움에서 신을 훨씬 넘은 우리 다섯형제들과 아들, 딸들, 조카들, 사위들과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모두가 보이지 않는 지뢰가 되고 총폭탄이 될 결사의 각오를 편지에 담고싶었다. 그리하여 며칠밤을 꼬박 밝혀가며 썼다가는 지우고 지우고는 다시 써서 만든 편지초안을 온 가족이 다 모인 가족회의에서 읽었을때... 나의 동생들과 아들과 딸들 그리고 며느리들과 사위들은 말없는 박수로써 열렬한 찬동을 표시했다.

나는 그 편지를 다시금 몇번이나 다듬고 또 다듬은 다음 책상앞에 앉아 하루낮, 하루밤동안 깨끗이 정서했다. 마음은 자꾸만 앞서는데 이젠 굳어지기 시작한 손이 미처 따라서지 못해 몇번씩이나 고쳐쓰고 또 쓰며...

그렇게 써올린 편지를 친히 보아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손수 귀중한 존함수표를 해주셨다.

그 편지원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충성의 편지들과 함께 부대 혁명사적실에 정중히 보관되어있다. 그리고 그 사본은 우리 집에서 깊숙이 건사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의 일등가는 가보로 될것이다.

참으로 우리같이 평범한 가정에서 온 세상이
우러르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
께서 직접 써보내주신 친필을 받는다는데가. 그렇
게 쉬운 일이겠는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
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나라, 우리 시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그 편지를 펼쳐놓고 우리의 아버
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걸어
온 경위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
해주곤한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 앞으로 **김일성**
대민족의 한 가족성원으로 영원히 의지하고 계
승해나가야 할 뿌리인것이다.

씨앗을 땅에 묻으면 싹보다 먼저 뿌리가 나온
다. 뿌리가 토양속 깊이 박히기 시작한 다음에야
싹이 터나오며 그 싹이 땅을 비집고 올라와 해
빛을 자양분으로 자라고자라 거목이 되는 전기간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로운 열매를
익히는 전기간... 뿌리는 더 역세게, 더 굵게, 더

깊게 기름진 토양속으로 생명의 줄기를 뻗쳐내린
다. 이를테면 식물은 한생토록 뿌리를 살찌우고
뿌리의 힘을 더 역세게 보강하는 일을 멈추지 않
는것이다. 그래야만 줄기가 더 아름답게 자랄수
있고 가지와 잎이 더 무성하며 열매는 더 알차고
향기로울수 있다는것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생명
물질들인 그것들도 잘 알고있는 까닭이다.

우리의 위업도 마찬가지이다.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
수록 그리고 생활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운
택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첫 싹을
내린 그 전통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부단하
고 또 부단한 교양사업으로 그 뿌리를 끊임없이
살찌우고 역세게 보강하는 사업을 중단없이 해나
가야 한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경애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주체
혁명위업은 영원불멸하고 그에 바쳐진 우리의 삶
도 천대만대로 영생할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의 하늘과 땅

(총련) **홍윤표**

이국에 사는 사람치고
애타게 그리운은
제 나라 하늘과 땅이여라

피롭고 슬플 때
문득 쳐다본 하늘이
이국의 구름질은 하늘이라면
더 서러워지기만 하더라

지난날
제 고향 하늘과 땅 빼앗겨
파도 센 바다의 나그네로
류랑하게 되었던 우리들
이국의 하늘과 땅에는
몸 감출 틈 하나
도망칠곳 하나 없더라
그 어떤 모욕, 고통을 받았어도
이 한몸 쓰러져도
혼만은 저 하늘로 날라가
제나라땅에 묻히고싶었더라
피흘려 싸우다 숨지는 때에도
나는 찾으리라 우리의 하늘, 땅

해방이 되어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도
남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우리들

그리고 그림던 고향이지만
거기에는 없더라
두고두고 바라보는 우리의 하늘이
길이길이 살아가는 우리의 땅이
아직은 없어라 찾아가고싶어도

우리 사는 이역에도
하늘높이 펴럭이는 공화국기발
그 기발아래 우리의 총련조직

바라보는 우리 가슴 언제나 후더워
보노라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하늘과 땅을 찾아보노라

인민이 주인으로 된 나라
우리의 하늘과 땅으로 세워진
우리의 공화국, 우리의 조국
그곳에는
맑고 푸른 늪디늪은 천공과
어머니치마폭같은 강산이 있구나

해외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
조국이란
나라의 안팎 가리지 않고
같은 피줄이라면 다 받아안아주는
하늘과 땅이 있는곳이여라

상식

지식인들의 두뇌건강요법

지식인들이 두뇌를 계속 맑고 총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뇌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단련하는것이다.

- 관찰하는것

주위의 사물을 많이 관찰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머리를 써가며 사고해야 한다. 사물을 머리속에 기억해두고 기억이 오래가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 듣는것

흥겨운 음악과 자기가 즐기는 곡을 자주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뇌신경세포의 대사속도가 빨라져 청각신경의 기능을 단련하는데 리롭다.

- 사고하는것

많이 사고하는것은 뇌를 단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총명한 사람들은 모두가 머리를 쓰기 좋아하고 부지런히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 읽는것

책은 지혜의 원천으로서 많이 읽을수록 더 총명해진다. 그러나 열심히 읽고 책에서 지식을 습득해야지 심심풀이로 읽어서는 안된다.

- 움직이는것

세밀한 수공로동을 많이 하고 글씨런습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며 고급동작의 체조를 많이 하면 지능수준을 높일수 있다.

상식

- 말하는것

사람은 두뇌의 지배하에 말을 하게 된다. 말을 많이 하여도 뇌발육을 촉진하고 뇌기능을 높일수 있다. 물론 아무말이나 할것이 아니라 논리성이 강하고 내용이 풍부한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

- 깨끗한 공기

뇌는 사람의 몸에서 산소소모량이 제일 많은 기관이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뇌의 사업능률도 높아진다. 머리를 쓸 때에는 특히 방안의 공기를 맑게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 합리적인 식사

음식이 불합리적이고 장기간 동물성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뇌동맥경화를 초래하기 쉽다. 때문에 음식에 여러가지 영양분이 조화를 이루게 하며 비타민 C 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 잠을 푹 자는것

잠을 푹 자야만 뇌의 피로를 풀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장기간 잠을 푹 자지 못하여 피곤이 몰리게 되면 뇌기능의 쇠퇴가 촉진되게 된다.

- 거뽀하고 유쾌한 기분

거뽀하고 유쾌한 기분으로 날을 보내는것은 뇌의 생리적기능을 높이는데 리롭다.

인구가 많은 10 개 나라

자료에 의하면 주체88(1999)년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나라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12억 4천 8백만명
2. 인디아 10억명
3. 미국 2억 7천 2백만명
4. 인도네시아 2억 1천 6백만명
5. 브라질 1억 7천 1백만명
6. 로씨야 4억 4천 6백만명
7. 파키스탄 1억 3천 8백만명
8. 방글라데슈 1억 2천 7백만명
9. 일본 1억 2천 6백만명
10. 나이지리아 1억 2천 3백만명

현재의 인구장성률로 보아 주체 114(2025)년에 가면 나라별 순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질것으로 예견된다.

1. 인디아 14억 1천 5백만명
2. 중국 14억 7백만명
3. 미국 3억 3천 5백만명
4. 인도네시아 2억 8천 7백만명
5. 파키스탄 2억 1천 1백만명
6. 브라질 2억 9백만명
7. 나이지리아 2억 3백만명
8. 방글라데슈 1억 7천 9백만명
9. 메히꼬 1억 4천 1백만명
10. 로씨야 1억 3천 8백만명

제 땅

정진혁

파도는 허연 갈기를 펴리며 달려와 바위를 때리고는 천갈래, 만갈래 세찬 물보라를 날리며 부서진다. 12월의 바다바람은 차고도 썰다.

멀리 북쪽하늘가에는 우중충한 구름장들이 음산한 기운을 띠고 낮게 떠있었다.

군사들은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호로병에 담긴 술을 조금씩 돌려마시며 한기를 달래었다.

홍두적이 쳐들어와 수도 개경을 비롯한 여러 성들과 촌락들을 강점한 전란의 시기였기에 여기 강화도에서도 수비를 보다 튼튼히 하고있었다.

고구려때에는 강화현을 혈구군이라고 불렀는데 구멍과 같은 입구를 가졌다는 뜻이었다. 이 이름에서처럼 강화도는 갑곶 한곳만을 막아서면 일부당관 만부막개라 할수 있을 천연의 요새였다.

며칠만 지나면 새해였다.

새해에는 누구나 《복반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것처럼 새해는 행복과 결부되는 그러한 것이었던만 군사들의 얼굴색은 밝지 못했다.

그 틈에 끼여앉은 림연홍의 모습에도 그늘이 비껴있었다. 나이는 한 스물예닐곱 되여보일가.

림연홍은 번드는 군사들의 패두로 직급은 대정이었다. 대정이라 하여 무슨 무관벼슬일듯이 보이지만 대정에는 품계가 없다. 즉 종9품도 못되는 벼슬 아닌 벼슬이요 장교라는 명색뿐이었다.

림연홍은 대대로 흙을 만지며 살아온 강화도 토착민의 집에서 태어났으나 무예를 힘써 닦았고 이름높은 검객들과 수비의 명수들을 찾아다니며 수를 익혔다.

그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판료배들이 혐오스러웠으며 할수만 있다면 당장에 칼 들어 베이고싶었다. 그럴수록 내 나라 고려를 피로써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강렬해지었다.

호로병이 넘어왔으나 림연홍은 도리질하였고 호로병은 다른 군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는 말없이 나무꼬챙이로 불무지만 뒤적일뿐이었다.

공민왕의 시대는 동란의 시대였다.

기철, 권렴도당의 숙청, 납합출, 삼선삼개 등 외적의 침략과 계속되는 왜구의 침입, 반역자 최유의 처단...

그런중에도 홍두적의 대거침입으로 왕이 수도 개경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나라의 체모가 말이 아니었다.

당시 《우대후》라는 참요가 나돌았다.

소가 크게 영각하니

룡은 바다를 떠나

열은 물에서 물장구만 치누나

이는 홍두적이 쳐들어왔을 때 경상도 안동에 도망처가 방탕하게 놀아대던 공민왕을 조소한 노래였다.

강화현내의 부로들은 나루터마을의 좌상 박로인의 사랑방에 모여앉았다.

《물에선 왜적들이 마구 분탕질하며 돌아친다오.》

《어허 변고로다.》 하고 탄식들은 하지만 부로들의 안색은 그다지 어둡지 않았다.

(설마 홍두적이 예까지 오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듯했다.

《불측지변이 생긴다면 어쩔고.》

누군가의 우려의 목소리였다.

《걱정도 원, 원나라 대군도 감히 넘보지 못하던게 여긴데 무슨 일이 있을라구. 또 그렇다 한들 사또께서 어련히 알아하시지 않으리.》 하며 박로인은 허연 수염을 술술 내리썰었다.

레부 랑중까지 지내다가 몇해전에 락향해온 박로인은 강화현내 부로들의 우두머리격이었다.

강화도사람들은 인격도 높고 학식도 어지간하여 민가의 대소사를 거지반 다 주관해나서는 박로인을 《박랑중나으리》라고 전직을 불러주며 존경하였다. 이런 박로인이었던만 고집이 보통이 아니였고 관에 대한 미련이 강하였다. 이러루한것은 박로인의 생활 이모저모에서 나타나는데 나루터마을에 집을 정한것도 상감 계시는 개경을 가까이에서 우러르고저 하는 《충의 지심》에 의한것이였다.

또한 누가 《춘추가 어찌 되셨소?》 하고 물으면 《<이순>을 넘긴지 오래고 바야흐로 <종심>을 바라보오.》 하고 대답하였으니 그는 공맹지도(공자와 맹자의 사상 즉 유교사상)에 폭 물젖은 사람이라 하겠다.

에서 말하는 《이순》이란 공자가 60에 이르러 비로소 세상리치를 깨달았다는 뜻으로 예순살을 말함이었고 《종심》이란 역시 공자가 70세에 이르러서야 누구앞에서도 언동을 바로하게 되었다는 뜻의 일흔나이를 말하는것이였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날 저녁에도 수염이 한자 가웃이나 되고 머리들이 시허연 늙은이-부로들이

박로인네 사랑방에 가득 모여앉아 시국담을 펼쳐놓았다.

경험이 많다고 하여 로인네들만의 논의로 모든 일을 결정할게 못되며 그들만의 논의를 전적으로 믿을수도 없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또 래일이 다른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있을수 없듯이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이 인간의 생활방식이며 인간사회이다. 어찌 경험과 인생체험이 많다고 하여 이것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만사에 대응하라.

영치를 붙이고 질편하니 오래 앉아있기는 하나 로인들의 이야기판이 대개 그렇듯이 차츰 곁가지들 뻗다가 나중에는 왕청같은곳으로 흘러가 결국 누구의 아들이 언제 장가가고 당진 사는 신부될 랑자의 집안은 어떻게 하는데로 화제가 번져지고 말았다. 구석에선 추운 겨울날 절절 끓는 구들우에서 영치를 지지니 절로 만사가 태평해져 슬슬 잠에 든 축들이 고개방아를 찢고있었다. 개중에는 《잠간 측간에 갔다온다.》 하고 슬쩍 빠져 제집으로 돌아가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한참만에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박로인은 《으흠.》 하고 헛기침을 크게 갖는 것으로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러는 박로인에게도 뽀죽한 수가 없었다. 신통한 방도가 없기에 분위기가 저조해 진다는것을 그도 모르는바 아니었으나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와할뿐이었다.

그저 하나 믿을데라고는 현령과 그 휘하의 군사들뿐이었다. 갑곶의 천연요새에 의거한다면 적은 군사로도 적을 물리칠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 안심하였다.

홍두적장수 왕동침은 배머리에 앉아 깎아세운 듯한 절벽, 삐죽삐죽 막 돌아난듯한 바위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였다.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강화성은 텅 비었다는것이다. 허나 무언지 알수 없는 불안감이 왕동침의 마음을 붙들고 놓아 주지 않는다.

왕동침은 홍두적괴수 관선생의 비장이었다.

그러나 왕동침은 군중에서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관 아무개라는 이 작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관선생》-괴이한 호칭이었다.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라면 관장군이라든가 관원수라 할게지 선생이란 뭐 말라빠진거냐. 제까짓게 제갈공명이나 되는것처럼.

이 추운 겨울날 바다바람을 맞기도 수월치 않은 노릇인데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이라 할수있을 강화성을 함락시키라 한다.

어이가 없었다.

(어디 글방에 가서 훈장질이나 실컷 하다가 고스란히 뒤여질게지 군중엔 왜 들어와 호통이람.)

하고 왕동침은 관선생을 저주하였다.

《왜 내가 가야 하오?》 하고 되물었더니 관선생이 하는 말이 《다 생각이 있어서 내리는 군령이야. 강화도는 한때 고려의 립시수로 되었던곳일세. 원나라 대군도 감히 함락시킬수 없었지.》

관선생은 잠시 말을 끊고 혈떡거리었다.

송나라(홍두적이 세운 나라) 평장사 류복통의 은사라던가 하는 관선생은 산 송장같은 늙으데기였다. 관선생은 늙은이들이 많이 걸리군하는 만성적인 해소로 하여 길게 말할수가 없었다. 한 뒤마디하고는 쿨럭이거나 씩씩거리며 한숨 돌리고서야 말을 이곤했다.

개경을 잠점한후 관선생은 《신문전》에 틀고있었다. 역시 근본이 유생이던 관선생에게는 《신문》이란 이름이 마음에 들었던것 같았다.

불이 잔뜩 부어있던 왕동침은 관선생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에 마구 불만을 내뿔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날 보내는가말요?!》

왕동침의 목소리는 고향에 가깝게 울렸다. 관선생은 나이가 많아 내쫓는 언변은 잃어버린지 오랫동안 대신 능글맞고 로회하였다. 군중에서 부하가 명령을 흥정하며 이렇듯 막되게 구는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였으나 오히려 관선생은 느물느물 추하게 웃어보았다.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왕동침의 어깨를 피부주름이 우글부글한, 그러나 자그맣고 하얀 손으로 제법 다정한체 툭툭 두드렸다.

《이봐, 왕비장.》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목소리를 약간 낮추었다.

《강화도엔 군사가 한놈도 없네. 다 물에 올라왔거던. 무지렁이 백성놈들만 남았지. 전공이 대단해. 살레탑도 어찌지 못한걸 자네가 해봄이 어떨가?》

관선생은 다시금 곁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씩씩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

왕동침은 반신반의하면서도(한번 해볼테다. 거긴 보물도 많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럼 가겠소. 래일 당장.》

왕동침은 풀보기 싫은 이 늙다리와 더 마주하고 싶지 않아 칼로 베듯이 내뿔고는 획 돌아서 전각밖으로 나와버렸다...

(감히 어떤놈이 맞서나올련고.)

왕동침은 멀거니 앞을 바라보았다. 멀리 강화도는 자기의 모습을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내보였다.

강화현령은 도망보파리를 꿈지고있었다.

십여바리가 잘되는 토색질한 재물을 수습하여 야밤도주하면서 도 수하 장수, 군사들에게는 출륙

(특지로 나감)하여 《근왕》하러 간다고 희뻘게 굴었다. 그러면서도 소와 말의 아가리에 자갈을 물리고 방울들을 숨으로 끄끄 따서 끌어온걸 보면 도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백성들의 눈에 띄울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군사도 많지 않지, 하긴 군사가 많아야 무슨 소용이람. 책상물림인 그에게 무슨 지략이 있을래야 있을수 없었다.

하긴 지금의 현령벼슬도 평장사 김용에게 잔뜩 피물을 바치고서 얻은 벼슬이다.

(사나이로 태어나 제집을 알기전에 군사를 알아야 한하지만 이때까지 모르고도 잘만 살아온걸 귀밑머리가 시허연게 새삼스레 병서를 잡을가.) 이렇게 속으로 위안하니 닥쳐온 국난도 꿈만하게만 생각되었다.

(삼십륙계에 줄행랑이 제일이었다고 이길수 없는 싸움엔 제격 꼬리를 사리는게 상책이다.)고 현령은 마음먹었다.

일신의 보신을 위하여 현의 백성들을 꺼리낌없이 내버리고도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니 이제 강화도의 백성들의 운명은 어찌될것인가.

《사또님, 정말 가시렵니까?》

림연홍은 현령이 이렇게 몸을 사릴줄은 정녕 생각지 못했다.

수도 개경이 홍두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홍두적이 갖은 만행을 다 감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림연홍은 특지로 나가 총병관 정세운의 휘하에서 싸우려고 했었다.

선발사업이 진행되었었다. 웬일인지 다들 뽑혀가면서도 강화현에서 제일 용맹한 무사였던 그만은 선발되지 못했다.

그때 현령에게 따져물었더니 현령이 하는 말이 《강화도를 지켜야 한다. 미구에 적이 이리로도 쳐들어오리라.》 하였다.

강화도를 지키기 위해 림연홍을 남게 하는듯이 말했지만 겁많은 현령에게는 용맹한 무사가 곁에 하나라도 더 있는것만으로도 한결 안심이 되었기때문이었다.

림연홍은 현령의 말과는 관계없이 결심을 바꾸었다. 자기 고향, 자기 고을의 한치 땅을 굳건히 지키는것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근본으로 된다고 그는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림연홍은 현령이 노는 꼴에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현령이 지금까지 피난가지 않은것은 자기의 재물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얻고저 함이었다.

레성강이나 림진강나루에서 배를 띄우면 강화도까지는 잠간이다. 락탈에 미친 홍두적들이 여기로도 기필코 쳐들어올것은 불보듯 뻔했다.

배가 가라앉으려 할 때에는 쥐새끼가 제일먼저 알아채고 도망친다고 겁많은 현령이 적의 겁새

를 눈치채고 달아나려 하는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되 그렇다고 남은 군사들마저 다 끌고가면 어찌한단 말인가.

림연홍은 배에 오르는 현령의 옷자락을 잡고 《가서는 안되오이다. 상감께서 사또에게 강화백성들을 맡겼는데 이들을 버리고 가면 백성들은 어찌합니까.》고 절절히 만류하였다.

오히려 현령은 제편에서 노발대발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너 이놈, 이 패썹한놈, 상감을 근왕코저 가는 본관에게 감히 행악질이나?! 불손한지교.》 하며 살찐 불편을 덜덜 떨며 발까지 굴러대었다.

《갈테면 혼자나 가시오. 꼭 후회하게 될거요!》

림연홍은 휘하의 몇몇 군사들과 함께 결연히 성으로 들어갔다.

민석용이라는자가 있었다. 역시 림연홍과 같은 대정이었다.

강화도사람들은 림연홍과 민석용의 두 대정을 한자로 원앙도에 비겼다. 즉 한칼집안에 들어있으면서 싸움에 림하여서는 둘로 갈라져 위력을 배로 떨치는것과 같았다.

림연홍과 민석용은 호형호제하며 절친하게 지냈다. 이들이 순찰선을 타고 강화현소속의 교동도, 석모도, 주문도 등을 오갈 때면 왜구들도 수적들도 두려워하며 꼬리를 사리었다.

민석용도 림연홍과 함께 강화도에 남았다.

현령이 떠나간 다음날 새벽이었다.

수십명의 홍두적의 선발대가 나루터마을을 불의에 기습하였다.

피물은 외적의 칼은 아침밥을 짓기 위하여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나왔던 녀인들의 연약한 몸에 제일먼저 떨어졌고 이어 집집마다 야수같은 놈들이 무리로 달려들어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새벽잠에 들어있거나 혹은 방금 깨어난 사람들을 무참히 살륙하였다.

마을의 여기저기에서 삼단같은 불기둥이 솟구쳐올랐다. 나루터마을은 순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울부짖음소리, 웨침소리. 악쓰는 소리, 비명소리...

죽이고 빼앗고 불사르고... 잠간사이에 마을을 도륙낸 홍두적들은 일단 바다로 물러갔다.

홍두적이 물러간 마을은 부모처자를 빼앗기고 집과 가산을 강그리 잃어버린 사람들의 곡성으로 가득찼다.

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림연홍은 한달음에 나루터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이 가까와질수록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심히 자극하였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단란한 가족들과 화목한 이웃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던 마을이었다.

허나 지금 림연홍의 눈앞에 펼쳐진 나루터마을

은 채더미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시계, 시체 그리고 또 시체.

눈을 부릅뜬 사람, 피덩이가 엉겨붙은 가슴을
움켜쥐고 굳어 진 사람...

림연홍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어 눈을 꼭 감았다.
머리속에선 형체를 알수 없는 《분노》라는
감정의 립자들이 마구 튀어다니다가는 부딪치고
합쳐진다. 림연홍은 몸을 온통 우들우들 떨었다.

눈앞이 노랗게 되더니 갑자기 헛구역이 나왔다.

누군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머리 흰 로파였다.
로파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전복차림의 림연홍의
우아래를 훑어보았다,

아마 이 로파도 령감과 아들 딸, 손자들을 하
루아침에 죄다 잃어버렸으리라.

로파의 흰머리는 한절반 그슬러있었고 불에 덴
오른손에서는 진물이 흐른다.

림연홍은 그 진물이 자기의 심장에서 뿜어져나
오는 피같은 환각을 느꼈다.

무언가 위로할 말을 찾고저 우물거리는데 로파
가 먼저 쉰 목소리로 두덜두덜 지껄어댔다.

《장수, 군사들은 뭘하는게냐. 백성을 지켜주는
게 임자들이 할 일이 아니냐. 우리가 너들에게
공밥을 먹였구나.》

《저, 할머니...》

림연홍은 실성한듯한 로파의 소매를 잡으려 하
였으나 《봐라! 돌도 못된 내 손자가 저 불속에서
타죽었다.》 하며 로파는 림연홍의 손을 단호히
쳐갈겨 뿌리치고는 어디론가 털썩털썩 가버렸다.

림연홍은 그자리에 못박힌듯 움쩍할수 없었다.

관자노리끼에서는 피줄이 살아 숨쉬는 무엇치
럼 툭툭 튀었다. 그는 당장 터져나갈것만 같은
머리를 두손으로 감싸쥐었다.

현령이 군사를 남겨두고 갑곶수비를 계속하게
하였더라면 이런 끔찍한 참사가 없었을게 아닌
가.

아, 외적만이 우리 백성의 원쑤가 아니로다. 썩
은 관리야말로 숨어있던 또 하나의 원쑤로구나.

죽는 날까지도 잊을수 없을것만 같은 로파의
원한에 가득찬 눈빛, 귀전에 땀방울이 맺혀
저마끔내기로 우르르 달려들어 이리차고 저리차
고 하는듯싶었다.

림연홍은 자기가 어떻게 성으로 돌아왔는지 조
차 알수 없었다.

강화성안은 온통 불안, 공포, 분노 등의 감정으로
가득찼다.

젊은죽들은 복수하자고 욱욕거렸으며 로인네들
은 하늘을 쳐다보며 세상을 한탄하였다. 특히 밥
술깨나 뜨던자들이 몹시도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모두는 현령이 간밤에 도망치고 군사들이
거의나 남아있지 않음을 알자 의기소침해졌다.

성에 남은 림연홍과 민석용 두 무장을 모두가
바라보았다.

림연홍의 눈은 무섭게 번뜩이고있었다. 분노였
다.

홍두적에 대한 분노, 성을 버리고 달아난 현령
에 대한 분노, 이 모든 분노의 감정들이 복수의
화염으로 되어 가슴속 깊은곳에서 이글거리며 무
섭게 타고른다.

장대에 올라서 자기를 바라보는 군중을 향해
림연홍은 웨쳤다.

《모두 힘을 합쳐 싸우자! 이게 뉘땅이라더냐.
자손만대 복락을 누리갈 우리모두의것이 아닌가.
어찌 세상에 태어났다 외적의 노예되어 비참히
살랴. 죽더라도 싸우다 죽자!》고 짙막하나마 피타
는 호소를 하였다.

싸우자! 복수하자!

강화도사람들은 떨쳐나섰다!

원래 민석용은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싸우겠다는 생각보다도 헛되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마치 장마철
에 폐방해두었던 방에 곰팡이돋듯하였다.

갑곶을 까맣게 덮은 적의 전선들과 성밖에 진
치고 선 홍두적의 무리를 바라보며 민석용은 과
연 이길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았다.

병서에도 《10배의 병력으로 적을 포위하며 5
배의 병력으로 적을 진공하며 2배의 병력으로는
적을 타승하기에 힘쓰며 병력이 대등할 때에는
적을 분산시키며 적군보다 약할 때에는 결전을
피해야 하느니라.》고 써여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물며...)

랭정히 타산해보니 싸울 용기가 더는 나지 않
았다.

홍두적의 진중에서는 《항자불살(항복하는자는
죽이지 않음)》이라고 크게 쓴 흰천이 긴 장대끝
에 민석용은 그 네글자를 넋없이 바라보았다.

죽는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무슨 수로 싸워
이기겠는가. (현령을 따라갔을걸.) 하는 생각만이
자꾸 들었다.

이렇게까지 빨리 적이 쳐들어올줄 몰랐었다.

평시에 남달리 《용맹》하던자들속에서 변절자
들이 나타나는적이 종종 있군한다. 신념이 약한
자들이 그렇다. 진실로 용맹한자는 절해고도에
떨어져도 단신으로 백만대병의 포위속에 들어서
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법이다. 신념이 약한자들
의 《용맹》-이는 무리를 이룬 맹수의 강포함과
무엇이 다르랴.

《민형, 무엇을 보시오?》

민석용은 와플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자넨가.》

민석용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림연홍에게 웃음지어보였다. 민석용은 림연홍보다 한살이 우었다. 그래서 림연홍은 그를 형이라 불러오는터였다.

《이보게, 좀 내려가세.》

민석용은 림연홍의 소매를 잡아끌며 지휘처가 위치한 장대에서 내려왔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당하지 못할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래서...》

민석용은 림연홍에게 자기의 속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었다.

림연홍은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그래서 어찌자는건가. 성을 내주자는건가.)

숫구쳐오르는 의분을 가가스로 누르며 행여나 하여 《그래서》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민석용도 찢리우는데가 있는지 《그래서.》 하고 말을 내고도 한동안을 주뭇거렸다.

《그래서 어찌자는거요?》 하는 림연홍의 목소리에 노기가 다분히 깔려있었다.

갑자르던 민석용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었다.

《항복하세.》

실은 엿저녁까지만 하여도 전의가 만만하던 민석용이었다. 그러나 나루터마을의 참변을 목격하고 또 험요지인 갑곶을 잃고보니 홍두적에 대한 공포감이 커진것이었다.

림연홍은 심한 허탈감을 느꼈다.

(내가 이런 비겁한 인간이었더냐?)

《그래선 안되오. 아니, 그럴수 없소. 민형, 끝까지 싸워야 하오. 나루터마을의 참변을 보지 못했소?!》

림연홍은 웨치다싶이 말했다. 그리고는 더 말없이 장대로 올라갔다.

멀어져가는 림연홍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민석용의 두눈은 점차 도끼눈으로 되어갔다.

왕동침은 말우에 높이 올라앉아 어깨를 으쓱이며 강화성을 향해 천천히 말을 몰았다.

드디어 성우엔 항복기가 오르고 굳게 닫겼던 육중한 성문이 요란히 찌그극거리며 입을 연것이었다.

얼마전까지 그의 가슴속에 서려있던 불안은 죄다 사그라져버렸다.

그는 마냥 하늘을 날것만 같았다.

(정복자의 쾌감이란 이런젠가.)

머리에 붉은 두건을 질끈 동인 형형색색의 줄개들을 꿈무늬에 가득 거느린 왕동침을 민석용은 성아래에서 맞았다.

항복의 관례대로 갑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낸 민석용은 꿇어앉아 머리를 수그린채 허리에서 장검을 떼어 왕동침에게 받들어올렸다.

장검을 받아쥐는 왕동침의 입가에는 비양기어린 웃음이 떠올랐다.

(하긴 국록을 타먹는다는 관리의 꼴이 그 모양인데 하물며 백성놈들이야... 역시 백성이란 나약한것이로군.)

공손히 무릎꿇고 항복을 청하는 민석용을 보는 순간 자기가 강화현령이라며 갖고있는 모든 재물을 다 바치겠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관원의 비굴한 몰골이 떠올랐다.

...세찬 파도는 배전을 팡팡 답새겼다. 외로운 배를 단숨에 집어삼킬듯 모질게 불어쳤다.

현령은 배칸에 들어앉아 겁에 질린 눈길로 항방없이 상하좌우를 더듬었다. 살아보자고 빠져나왔는데 이러다가는 고기밥이 되기 십상일듯했다.

현령은 강화수로를 빠져 충청도쪽으로 내려가서 문경새재를 넘어 경상도로 가려고 마음먹고있었다.

배가 무엇에 부딪치며 동시에 현령도 뒤굴을 벽에 짓조으며 나가넘어졌다. 정신을 차리기도전에 별안간 문이 벌럭 열리더니 텅석부리에 몸집이 황소같은 괴한 둘이 들어와 다짜고짜 두팔을 비틀어 잡고 끌어낸다.

현령은 창졸간에 당한 일이어서 어쩔바를 모르더니 제법 위엄을 새운답시고 《무슨짓들이냐?!》고 고함을 쳐댔다.

두 괴한은 그러거나 말거나 발버둥치는 현령을 건공잡이로 들어올리더니 체격 끌어내었다.

현령은 겁이 나는 속에서도 정신차려 괴한들을 눈여겨보았다. 대뜸 눈에 띄우는것이 머리에 동인 붉은 두건이었다.

아뿔사 순간 현령은 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감을 느꼈다.

허공에 들리운채로 끌려간 현령은 왕동침의 앞에 털썩 짐짝처럼 던져졌다.

아름보다도 우선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판이라 《살려줍소사.》고 손이야발이야 빌었다. 그러더니 안개를 열고 입을 꺼내 《이것은 강화현령의 인이니 받아줍소사.》 하였다.

왕동침은 아무말없이 현령의 추한 꼬락서니를 바라보며 느긋이 웃을뿐이었다.

상대가 무관심한데 더욱 안달이 난 현령은 《재물을 모두 드리겠으니 제발...》 하며 눈물, 코물을 흘리었다.

왕동침은 이런 도야지같은놈을 살려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현을 버리고 도망가는 현령은 자기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것이다. 하등에 쓸모없는 존재였다. 게다가 이렇듯 루추하고 비굴한 자임에야.

왕동침이 좌우에 눈짓하자 부하들은 현령을 붙들어 굵은 바줄로 칭칭 온몸을 결박하였다.

《살려주소!》 하는 현령의 비명소리는 자못 높

있어도 미쳐날뛰는 바다의 울부짖음은 그것을 제격 물어버린다.

왕동철은 쓸모없이 되어버린 인수를 현령의 목에 걸어주며 《룡궁에 가서나 하소연을 해보아라.》 하고는 발길로 등판을 힘껏 내차 현령을 물속에 처박았다...

(이자는 현령과는 다르다.)

항복을 청하는 격식이며 언사,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무장답게 박력있어 보였다.

(이런자들을 끌어당겨 손발로 부러야 한다.)

승리자는 절로 너그러워진다고 마음이 녹았는지 아니면 어느 군자를 흉내내고싶었는지 기고만장하여 코대가 높아질대로 높아진 왕동철은 《일어나오.》 하며 평시의 그답지 않게 아량을 보였다.

홍두적의 야수적만행에 대하여 《고려사》에는 《사람고기를 지저먹고 임신부의 젖가슴을 도려내어 구워먹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붉은 두건 쓴 무리의 야만성!

류복통의 지휘밑에 《외적을 내몰고 한족의 세상을 세우자!》고 일떠선 이 무리가 강점된 타민족에게 준것이란 죽을 권리뿐이었다.

박랑중로인도 《오 서늘하구나. 시원히 죽노라!》하고 크게 웨치며 죽었다. 홍두적의 습격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성으로 들어왔던 그였다.

형장에 끌려나와서야 썩은 판리에 대한 미련을 버렸을는지.

그 늙은이는 가족을 벗기우면서도 민석용을 쏘아보며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원쑤와 손잡은 역적을 꾸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은 《지옥에 먼저 가 기름가마를 펄펄 끓여주마!》 하였으니 정녕 평범한 날에는 찾아볼수 없던 모습들이었다.

사람은 인생을 깨끗이 살아야 하지만 깨끗이 죽을줄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죽음-개인적으로는 유기체의 사멸일지라도 후세에게는 거울로 되는것이다. 인생의 가치는 곧 죽음의 가치로도 된다. 고귀한 죽음을 하였는가 너절한 죽음을 당했는가는 력사에 남기는 인간의 마지막발자취이다.

림연홍은 목에 50근짜리 큰 칼을 쓰고 손에 착고를 찬채 살창으로 찬기운이 확확 풍겨들어오는 옥안에 앉아있었다.

설달그믐이 멀지 않아 달빛 한점 들지 않는 옥안은 흡사 먹물을 풀어놓은듯했다.

림연홍은 어둠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있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가족에 대한 걱정보다도 장담했던 기둥이 제일먼저 넘어진것 같은 실망감, 배반당했다는 원통함이 앞섰다.

래일이나 모레에는 결말을 볼것이다. 뼈를 에

이는 추위에도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원쑤들에게 보여주자. 자야 한다. 편안히...

이른아침 유난히 밝은 해빛이 그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간밤에 파수를 서던 홍두적들은 사라지고 민석용의 부하들이 옥문앞에 버티고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있었다.

《민석용 그 자식은 저밖에 모르는놈이야. 흥, 어디 우리들이 도우지 않았던들 제까짓게 다 뭐야.》

《그러게 말일세. 일을 다 성공시켰는데 고작 쌀 한말이야. 그러면서 큰 은혜나 베푸는듯이 설을 잘 쇠라구?》

《이젠 립가를 끌어내세. 사시(9시~11시)까지 형장으로 가야지.》

절커덕절커덕 쇠를 어루머니 둔중함과 아츠러운감이 동시에 나는 괴상한 소리와 함께 옥안은 삽시에 확 밝아졌다.

《나왔!》

림연홍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비록 소리는 호기차게 질렸으나 찢리는데가 있어 이전의 두 병졸은 립연홍의 쏘는듯한 눈빛을 피해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림연홍은 이들의 얼굴에서 못할짓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조금이나마 깨끗한데가 남아있는 속마음을 읽을수가 있었다.

《자, 가자. 이 립연홍이 어떻게 죽는가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너희들은 고려사람이 아니란 말이나?!》

림연홍은 무사로 웅변가의 기질은 없었다. 그러나 이 순간 자기의 속마음-배반자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다 내뽐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한마디한마디는 두 병졸의 가슴속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같았다.

페부로, 뇌리로 파고드는 피타는 웨침! 마침내 두 군사는 칼을 던지고 그앞에 꿇어앉아 일시나마 원쑤에게 통락당한 잘못을 뉘우쳤고 용서를 빌었다.

《림대정, 밖에서는 마리산에 들어간 백성들이 무기를 잡았다 합니다. 설을 쇠고나서 토벌한다 하오.》

림연홍은 놀랐다. 아, 고려사람의 넓은 죽지 않았구나. 새로운 신심, 백배해진 용기가 솟구쳤다.

연회는 어우러졌다. 겨울의 바다바람속에서 설을 맞게 될줄 알았건만 이렇듯 쉬이 강화성을 손에 넣어 한해의 마지막날을 즐겁게 보내게 된것이 너무 좋아 입들이 함박만큼이나 벌어졌다.

왕동철을 위시하여 홍두적의 장수들, 민석용과 그의 부하들(이들이 립연홍의 설득으로 다시 넘어왔다는것을 민석용은 몰랐다.)을 비롯한 고려사

람들은 전작의 광실에서 산해진미로 가득찬 상을 받았다. 줄게들도 따로 상들을 받았다.

무희들이 춤을 추며 돌아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흥두적들은 탕개를 풀고 질탕히 놀아대었다. 벌써 어떤놈들은 술구역까지 앵앵 해대었다.

민석용은 연회에 매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참가하였다.

어떻게 되며 림연홍이 도망쳤는지 알수 없었다.

이제 왕동침이 형장을 차리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전전긍긍할뿐이었다! 그저 이자가 모든것을 다 잊어버렸으면싶었다. 방도는 오직 하나였다. 술에 폭 잠겨 모든것을 망각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왕동침의 곁에 바짝 붙어앉은 민석용은 왕동침이 대접을 비우기 바쁘게 술항아리를 기울였다.

취기가 가득 올라 얼굴이 썩어놓은 소고기빛이 된 왕동침은 더욱 호기만만하여 팔소매까지 걷어붙이고 대접을 높이 들어올려서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단숨에 들이켰다. 입귀로 술이 흘러 옷자락을 화락하니 적시는데 올대는 오르내리며 꿀꺽꿀꺽 소리를 낸다.

왕동침의 모가지를 노려보는 고려사람들의 가슴속에서는 원쑤에 대한 증오감이 더욱 세차게 끓어올랐다....

림연홍은 탈출후 마리산에 피신하여들여간 사람들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미리 자기 편사람들을 흥두적들사이에 앉혔다.

일격에 내외협공으로 성을 탈환할 계략을 주도 세밀히 세우고 드디어 싸움에 진입하였다.

때는 왔다. 전고를 울려라!

만취된 이 오합지졸의 무리는 이미 그들의 적수가 아니었다.

왕동침과 민석용 등이 갑자기 울리는 북소리에 놀라 어안이 빙빙해할 때 신호에 맞추어 곁에 붙어있던 고려사람들이 품속에서 비수를 뽑아들고 비호같이 달려들어 왕동침의 목덜미에 힘껏 박았다. 《악!》 소리를 지르며 왕동침은 뒤로 벌렁 나가자빠졌고 비수를 뽑으니 피가 대줄기처럼 뿜겨나온다.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적장들이 눈알만 디룩이며 어정쩡하니 앉아있을 때 일격에 모조리 요정을 내버렸다.

밖에서도 림연홍의 지휘하에 질탕히 놀아대던 흥두적들을 삼대배듯하였다. 저마끔 칼, 창, 낫, 결이대, 도끼 등을 휘둘러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민석용은 판이 글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칼을 휘두르며 도망칠수 있었다.

숨이 턱에 닿아 바다쪽을 향해 달아나는데 뒤로부터 말발굽소리가 쫓아왔다.

《이놈, 서라!》

더는 쫓곳이 없었다. 깎아지른 절벽아래선 검푸른 바다가 한입에 삼킬듯이 울부짖고있었고 뒤에는 림연홍의 서리찬 장검이 쫓아온다. 민석용은 그만에야 풀썩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제발 옛 정의를 생각해주게.》

배신자의 목소리는 처량하게 울렸다.

림연홍은 민석용이 가엾게 여겨졌다. 그러나 용서할수가 없었다. 원쑤의 손에 무참히 죽은 강화도사람들의 령혼이 용서하지 않는다.

《더 할말이 없느냐?!》

《연홍이, 내가 어리석은놈이었네. 이놈을 한번만 용서해달라구.》 민석용은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림연홍은 칼든 손을 아래로 내려뜨리고 민석용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두사람의 생이 이렇듯 판이하게 달라질줄을 누가 알았으랴. 가장 친근했던 사람이 가장 악독한 원쑤로 되리라고.

림연홍의 뇌리에는 민석용과 지내온 나날들, 그와 함께 똥고은 가지가지의 난관들이 떠올랐다. 림연홍은 자신의 눈시울이 축축해움을 느꼈다.

민석용은 이 틈을 노렸다. 모래를 림연홍의 얼굴에 쥐여뿌렸다.

《악!》

림연홍은 얼굴을 싸쥐었다.

련이어 민석용은 몸을 솟구치며 오른팔을 들어 휘둘러차 림연홍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말우에 뛰어올라 뒤돌아보지 않고 냅다 박차를 가했다.

림연홍은 눈을 비비고 민석용을 찾았다.

이미 민석용은 8~9십보 간격으로 달아나고있었다.

림연홍은 전통에서 쏟아져 땅에 흩어진 화살을 집어들어 시위에 먹었다.

말우에서 들까부는 민석용의 등판을 지그시 쏘아보며 깎지깎 손을 떼었다.

×

강화도사람들은 이겼다. 승리자는 제집, 제고향을 지켜싸운 그들이었다.

무슨 힘이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었던가.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의 힘이였다.

자기 고향, 자기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제손으로 지키려는 마음들이 강포한 외적들과 사생결단하고 싸워 승리하게 만들었던것이다.

그들은 군사도 아니었고 나라에서 임명받은 판리는 더욱 아니었다.

그들은 나서자란 제 땅을 더없이 사랑하는 이 나라의 평범한 백성들이었고 애국자들이었다.